



10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10호

(루게 588)



◇◇◇◇◇◇◇◇◇◇

차 례

◇◇◇◇◇◇◇◇◇◇

| | |
|--------------------------------------|----|
| 위대한 년대여 | 4 |
| 당이어 그대를 두고 | 5 |
| 인민의 이름으로 | 6 |
| 화전땅의 들국화 | 18 |
|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찾아서 | 19 |
| 오, 새벽이여! 10 월의 첫 노을이여 | 21 |
| 우리에게 김정일 장군님이 계신다..... | 22 |
| 10 월에 대한 생각 | 23 |
|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 24 |
| 붉은기 찬가 | 25 |
| 백두산은 장군님의 산..... | 32 |
|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전당의 당세포들..... | 33 |
| 청춘거리가 전하는 이야기 | 35 |
|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탐구는 작가들앞에 나선 | |
| 중요한 문제 | 37 |
| 당에 드리는 감사..... | 39 |
| 명언해설 | 40 |
| 금강의 물줄기 | 40 |

| | |
|---------------------------------|----|
| 무지개대문 | 41 |
| 대학찬가 | 43 |
|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서 저의 한생이 꽃렸습니다..... | 44 |
| 룡남산 | 47 |
| 발자국소리 | 48 |
| 우리의 혁명문학이 태어난 로정을 더듬으며 | 49 |
|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 | 52 |
| 우리는 장군님의 7 련대 | 53 |
|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 54 |
| 쇠물은 뜨겁다 | 56 |
|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 66 |
| 혁명의 성인의 도덕과 인품을 닮은 시대의 명작 | 67 |
| 시험을 앞두고 | 72 |

위대한 년대여

김정철

백년보다 뜻깊은 스무해가
세기보다 크나큰 그 년대가
저기 두 글자로 함축되어있어라
개신문 네 기둥에 금빛으로 빛나는
《1925-1945》

조용히 다가서면 어리여온다
내 났을 송엄히 불태우며
머나먼 광야의 한끝에서
위대한 심장이 지퍼올린 《ㄷ. ㄷ》의 우등불이
우리 당 기발에 붉은 바탕을 준
화전의 하늘가에 비껴간 그 노을이

귀전에 쟁쟁 사무쳐온다
천만대오를 발맞춰가게 하는
우렁차고 씩씩한 《유격대행진곡》이
근위사단의 저 병사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한 진군길에 세워주는 나팔소리

오, 바람만 차디찬 년대였던가
주림과 추위만이 락엽처럼
황량한 들판을 휩쓸던 년대였던가
한장의 얇디얇은 군용모포아래
사령관과 전사들이 혈육처럼 살던 날이
그 년대가 그려줄 화폭이 아니냐

났이라도 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기고저
멀리 사령부를 우르르며 마지막 미소짓던
백설도 뜨겁게 타오르는
진대나무아래의 아름다운 저녁이

그 년대가 남긴 진정한 표상이 아니냐
뜨거운 그 백설우에서
세상이 열백번 바뀌어도 끄떡없는
백두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이
나래쳐올랐고
이제껏 없던 새 인간 새 사회 새 시대가
탄생의 장엄한 고고성을 터쳤노라
사회주의 새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의 첫 혁명년대로
주체시대의 원년을 이룬
《1925-1945》

끝나지 않았노라 그 년대는
흘러가지 않았노라 그 년대는
위대한 우리 장군님 계시여
오늘에 이어지는 그날의 정신
래일로 이어져갈 그날의 그 위업

효성도 충성도 어제와 다름없는
김일성, 김정일의 인민은
90년대 저 너머로
21세기 저 너머로
끝없이 그 년대를 펼쳐가리라

천년보다 기나긴
만년보다 뜻깊은
위대한 년대여
오, 《1925-1945》

당이어 그대를 두고

문동식

당이어

내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랴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말로

그대를 부르려

고르고 골라도 못찾는 그 말

태양에 비기려 하면

그대의 품속에 태양이 빛나고

지구의 광활함에 비기려 하면

그대의 품속에 세계가 숨쉬고...

둘러보면 우리의 그 어디서나

고요한 순풍속에 풍양가 울릴 때

내 어이 다 알수 있었으랴

태양보다 더 뜨겁고 지구보다 더 큰

그대의 정신, 그대의 리념, 그대의 사랑을

태고연한 행성의 넓은 대륙에

사회주의창문의 불이 꺼지고

다시 자본의 흑운이 드리운 오늘

오직 그대만이

사회주의 횡불을 더 높이 추켜들었음은

파괴와 복귀의 참혹한 재앙속에

로병들이 길가에서 숨지는 이때

그대만이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가고있음은

당이어, 오로지 그대만이

가장 청신한 정신과 량심으로

가장 뜨거운 애정과 의리로

사회주의를 구원하려

사랑의 심장을 불태우고있기때문

그 심장의 거센 박동소리는

설한풍 휩쓰는 거리와 초원에

끝없이 흘러가는 사랑의 열풍

그 뜨거움에 얼음장이 쨍-쨍-터지는 소리

봄의 훈향이 넘치는 대지위에

재생의 새싹들이 움트는 소리

당이어 참으로 그대만이

수억년 인류가 그리로 기원하던

자주와 평화 사랑과 믿음

이 세상 만민을 다 안아 꽃피워주는

사회주의 화창한 봄빛이거니

오직 그대밖에 없으랴

한번 그 넓은 품에 안아주면

죽음의 사선이 앞에 놓여있어도

고이 품어 운명을 지켜주는 어머니는

내 작은 심장에도 혈액을 이어놓고

사랑의 뜨거운 피를 부어주는

그대의 진정이 넘치는 음성은

천하를 울리는 봄우뢰소리던가

지구의 끝에서도 그 품에 달려와

사람들은 녹아내린 눈물에 젖나니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대지로 펼치고 하늘로 열어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다함없는 고마움에 가닿을 그 말

못찾아 모대기며 안타까운 내 마음

오, 당이어 그대를 두고

꿈결에도 진정다해 내가 부를 그 말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노라

영원히 자주의 태양이 빛나고

영원히 세계가 안겨서 숨쉬는 그 이름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이 위대한 부름밖에는

인민의 이름으로

김형지

1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던 림성혁부주석의 눈길은 자석에 이끌리듯 월력에 가뒀었다. 《새색시》라는 민족의상을 곁에 차려입은 조선녀성의 단아한 용모가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김정일 화춤》이라는 화려한 보석화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림성혁은 그제서야 어느새 정월도 다가고 뜻깊은 2월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생각하였다.

《김정일 화!》

부지중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림성혁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거룩한 영상이 우뚝이 어리어왔다. 몹시도 축이 간 모습이었었다.

림성혁은 금시 가슴이 저려나 돌아섰다. 하지만 자리에 가서 앉을수가 없어서 창가로 다가갔다. 창가림을 열어제끼니 만수대예술극장과 그 너머 인민대학습당의 웅대한 자태가 한눈에 안겨왔다. 여느때는 건축예술의 극치라는 생각을 먼저 불러일으켜주던 그 건물들도 오늘은 웅일인지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먼저 안겨주는것이였다.

림성혁은 떨어뜨리듯이 창가림을 놓고 돌아서서 사무실안을 조용히 거닐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오늘 아침 월력을 번저놓지 않으셨을가? 하다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가? 이제 보름만 있으면 탄생 53돐을 맞게 된다는것을 생각하시진 않으셨을가? 아니, 아니다.)

림성혁은 단호히 부정해버렸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을 잊고 지내신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림성혁이였다.

그래서 그이를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동지들이 그이의 탄생일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동지들의 생일은 잊지 않고있다가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오찬이나 만찬까지 차려주시면서도 자신의 탄생일에는 극히 소박한 행사마저 엄금하는 그이이시였다. 그것이 오죽 안타까우면 때로는 수령님께 하소연을 하곤하였겠는가.

1992년 2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 50돐을 맞이할 때도 바로 그랬었다.

그해에는 수령님탄생 80돐과 지도자동지의 탄생 50돐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1월에 벌써 1.4분기계획을 끝내는 작업반들이 속출되더니 2월에 들어서서는 상반기계획을 끝낸 작업반들이 나왔다.

그들은 레외없이 자기들이 달성한 성과를 알리

면서 수령님께는 대원수칭호를, 장군님께는 원수칭호를 드리자고 제기하였다.

하긴 그들만이 아니였다. 각계각층 인민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뺑뺑이 제기하였다. 제기하는 내용도 저마끔이었다. 공화국영웅칭호를 드리자고 하는가 하면 도시나 대학에 존함을 모시자고도 했고 4월 15일처럼 2월 16일도 민족최대의 국가적인 명절로 제정하자고 중앙인민위원회에 제기해오기도 하였다.

림성혁은 인민들의 미움이자 자기의 마음이어서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림성혁부주석은 드디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들과 의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해 2월 1일은 마침 토요일이였다.

정치국위원들도 토요일이면 언제나 한곳에 모여 학습도 하고 강연회도 하는 날이어서 림성혁은 이 기회를 리용하였다.

림성혁의 이야기를 들은 인민무력부장은 책상치며 찬성하였다.

《거 참, 부주석동무가 참 좋은 안을 내놓은구만. 사실이야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벌써 법제화했어야 했지요.

총리동무, 그렇지 않소?》

정무원총리 역시 절대찬성이였다. 이렇게 되어 격식없는 토론이 벌어졌고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한결같은 찬동을 받았다.

림성혁은 그길로 중앙인민위원회 해당부문일군들을 불러 정령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림성혁은 정령초안이 완성되자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수령님을 찾아갔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반갑게 맞아주며 무슨 급한 일이지에 선통도 없이 달려왔는고 하시였다.

림성혁은 문서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씀드렸다.

《급히 비준받아야 할 문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일이야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지 왜 직접 들고다니우? 부주석동무도 이젠 80이 오래지 않는데...》

《제가 직접 가지고 와야 할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봅시다.》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옆에 밀어놓고 손을 내미시였다.

림성혁은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수령님께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문건을 받아 소리내어 읽으시였

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함에 대하여> 음. 그러구 그건 뭐요?》

《지도자동지께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초안입니다.》

《영웅칭호라? 우리가 **김정일** 동지에게 두번째 영웅칭호를 준게 그의 탄생 40돐때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50돐이라...》

수령님께서는 생각깊은 눈길을 창문쪽에 보내시며 손가락으로 조용조용 문건을 두드리시였다.

림성혁은 숨을 죽였다.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줄곧 수령님곁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때 그이의 사색의 폭과 깊이를 도무지 대증하지 못하는 그였다. 지금도 새벽수풀안의 고드름뿔한 백두산밀영을 그려보시는지 아니면 지도자동지가 계시어 더욱 부강번영할 래일을 그려보시는지...

림성혁은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우리 인민들이 더는 참고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동지의 탄생 40돐때부터 그랬지만 50돐이 되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매일 수십수백통씩 청원서가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렇거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탁두리를 거들며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민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조국의 미래도 다 맡긴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이름으로 보고드리 는것입니다.》

《<인민의 이름으로>라...》

부주석동무, 나도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찬성이요. 사실 **김정일** 동지는 당과 혁명 앞에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런것만큼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주자는것도 응당하고 우리 인민들이 그이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고싶어하는것도 응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인민의 한사람이면서도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당원인것만큼 이런 중대사는 반드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정치국의 동의는 벌써 받았습니다.》

《그럼 **김정일** 비서동무도 알고있겠소?》

《지도자동지께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40돐때도 보고드렸다가 다른 행사들까지 모두 중지시켜서 섭섭하게 보냈고 45돐때는 이런 문건을 다시 들고다니면 조직문제를 보겠다고 해서 여태 아무런 마련도 보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책벌을 받을가봐 무서워서 **김정일** 동지한테는 들고가지 못하고 나한테 가지고왔구만 허허...》

《수령님! 비준해주십시오. 인민의 이름으로 청

원합니다. 이 정령이 발표돼서 우리 인민들이 기뻐할 때는 그 어떤 책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라면 할수 있지. 나야 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구 혁명해오는 사람이 아니요. 수풀 합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집무탁으로 돌아오더니 마지크를 쥐고 활달한 필치로 존함수표를 한 다음 그 밑에 《1992. 2. 7.》이라고 비준날자까지 밝혀 주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래. 언제 발표하겠소?》

《지난 1월 11일에 비준해주신것까지 세건의 정령을 2월 15일에 일제히 공포하려고 합니다.》

《**김정일** 동지의 동의는 받지 않구?》

《지도자동지께는 공표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비조직적인데.》

《그렇지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나서주지 않으시면 지도자동지께서 몽땅 중지시킬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총비서의 권한, 국가주석의 권한을 한번 써달라는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록 자신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도 <인민의 이름으로> 한번 제기해본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수억만 우리의 벗들도 여간만 기뻐하지 않을것입니다.》

《인민들이 기뻐할 일이면 나서야지.》

《수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림성혁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환희에 넘쳐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친히 비준해주신 세건의 정령은 그때 단 한건도 공포되지 못했었다...

(내가 제구실을 못했지...)

림성혁은 무거운 한숨을 지으며 회상에서 깨어났다. 앞에는 여전히 월력이 걸려있었다. 월력에서는 머리에 소담한 **김정일** 화를 인 무용수가 한껏 팔을 벌리고있는데 《부주석동지, 언제까지 <인민의 이름으로>라고 말씀만 하겠습니까?》라고 힐난하는것만 같았다.

림성혁은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한 외국인은 한생을 바쳐 연구한 꽃에 지도자동지의 존함을 모시였고 소설가는 그 사실을 소설에 담고 영화인들은 영화에 옮기고 가수들은 선률에 담아 노래부르고 무용가들은 그것을 춤가락에 담았다. 그런데 부주석이라는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싶은 생각이 그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다시금 이끌어 가는것이였다.

3년전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정령을 받아안을 때 립성혁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일을 해낸 뿌듯한 공지가 그를 그 리도 흥분시켰던것이다.

그는 나는듯이 사무실에 돌아오자바람에 관계 부문 일군들을 불렀다.

《동무들! 기뻐하오. 수령님께서 모두 비준해주 시였소!》

립성혁은 퍼그나 흥분해서 그들앞에 문건봉투 를 꺼내놓았다.

《야! 그렇습니까!》

한 일군이 봉투에서 꺼내는 문건을 넘겨다본 녀성일군이 손벽을 치더니 부주석에게 물었다.

《정령을 언제 발표하겠습니까?》

《언제 발표하는게 좋겠소?》

《수여식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시간을 내주실 때 하더라도 정령은 당 장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녀성은 워낙 그렇게 불같은 성미였다. 그래서 지도자동지께 최고 학위, 학직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도 수령님의 비준에 맨 먼저 제기했던것 이다.

립성혁은 벼룩 웃으며 다른 일군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 일군은 명절분위기도 세울겸 한꺼번 에 발표하지 말고 이들 건너씩 발표하자고 했고 다른 일군은 말없이 머리만 기웃거렸다. 역시 소 심하달만큼 심중한 부장이었다. 그래서 더구나 그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은 립성혁이었다.

《부장동문 왜 말이 없소?》

《45돛때 생각이 나서 그렇니다.》

《웁소 그때는 서빨리 서두르다가 수령님께 제 기해보지도 못했었지.》

동무들, 정령은 2월 15일에 일제히 공포합시다. 그때까진 부서동무들에게도 비밀에 붙이시오. 실은 그래서 불렀소.》

립성혁이 문건을 서류함에 넣는데 서기가 들어 왔다.

《중앙당에서 회의가 있답니다.》

《무슨 회의?》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랍니다.》

《비상확대회의?》

립성혁은 대번 긴장해졌다. 정치국 비상확대회 의에서 토의할 문제라면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일것이였다. 그런데 방금 뵈온 수령님께서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하다면 그사이에 제기된 긴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립성혁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몸에 붙은 습관대로 가방에 사업 수첩을 넣었다.

당중앙위원회 소회의실로는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거의 동시에 모여들었다.

립성혁은 맨 앞줄 총리결에 앉았다.

그는 앞탁우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총리에게 무

슨 문제인가고 물었다. 총리도 모르고 뒤에 앉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도 모르고있었다.

(무슨 문제인가?)

립성혁이 혼자 생각을 굴리는데 주석단 출입문 이 열렸다.

지도자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것이였다.

모두 일어섰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앉으라고 손짓을 하면서 결 어 나오시였다. 언제나와 같이 무게있으면서도 쾌기와 정열이 넘쳐나는 좀 빠른 걸음이였다. 전 과 다른것은 빈몸인것이였다. 협의회같은 때는 문건을 한아름 안고나와서 검토하며 지도하기가 일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수첩만은 들고나오시곤 하였던것이다.

지도자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조직지도부 1 부부장이 출장중인 위원들을 내놓고는 다 참가하 였다고 말씀드렸다.

지도자동지께서 머리를 끄덕이며 회의장을 돌 러보시였다. 그럴 때면 꼭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이시였다.

《그럼 시작합시다.》

오늘 회의는 일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하겠 습니다. 위원동무들은 사업수첩을 거두고 1부부 장동문 속기원들을 데리고 나가도 되겠습니다.》

립성혁은 저으기 놀랐다. 너무도 이해적이다. 세포회의기록도 남기는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니 이 무슨 일인가싶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말아야 할만큼 극비에 속하는 중대한 문제란말인가.)

립성혁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이를 우려했다. 다른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안존한 눈길이며 깎 지 낀 손을 앞탁우에 올려놓은 편안한 자세며가 다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나갈 사람들이 나가고 나들 문이 닫기자 왼손으로 안경을 밀어올리시였다.

《시작합시다.》

오늘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은...

립성혁은 숨을 죽였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말아야 할만큼 극비에 속하는 문제라면 분명히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사일것이여서 자기 도 모르게 긴장해졌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것이 아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수령님의 비준에 제기 했던 세가지 정령입니다.》

립성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른 위원들 도 숨을 몰아쉬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중앙인민 위원회에서 수령님께 제기했던 정령이 어떤것인 지 모르는 위원들이 없었다. 10여년전부터 거론 되어 온데다가 바로 한주일전 토요일에 최종합의 를 보았던것이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음이 잦기를 기다리는듯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수령님께 지난 1월중순에 올렸던 문건은 **김정일**에게 우리 나라 최고 학위, 학직을 주자는 정령입니다.

수령님께서 전화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정령의 기안작성자들은 첫째로, 내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학설로 선포한것을 비롯해서 일련의 문헌들과 담화들에 학술적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최고 학위, 학직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수령님의 전사로서 또 제자로서 너무도 웅당해야 할 일을 한데 불과하기때문입니다.

이 문건의 기안작성자들은 둘째로,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높은 대학들과 학계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최상급의 학위, 학직을 주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웅당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성이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대로 따라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지도자동지께서 사양하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림성혁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고동쳤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왜 여태 최고 학위, 학직을 드리지 않는가고 성이 나서 따지고 들던 권위있는 한 학자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그것은 어느새 1,700여명이 참가한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제65차 확대회의 광경으로 번져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박사, 교수의 학위학직과 함께 원사칭호를 드리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숙원이고 행복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영광이라던 토론자들, **그**에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며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던 회의참가자들...

학계나 교육계에서뿐이 아니였다. 청천강가에 자리잡고있는 종이공장 로동계급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원사, 교수, 박사 칭호를 드리는 중서에 써달라면서 2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종이를 만들어 보내어왔다.

림성혁은 대한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험한 산밭을 뒤져 닻나무를 찾아내어 특고급증서용지를 만들어낸 우리 로동계급의 그 충정만이라도 아뢰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지도자동지께서는 앉으라고 손짓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부주석동무는 의견이 좀 있는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수령님께서 전화로 교시가 계셨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일단 비준하셨기때문에 이번에는 정치국위원들도 양보하려 하지 않을수 있는데 날더러 잘 리해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동무들!》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앉으라고 손짓을 하시고나서 계속하시였다.

...원래 학위, 학직은 학계, 교육계를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전문가

들에게 주는것이다.

그런데 직업적인 혁명가들인 우리가 학위, 학직을 받는다는게 어울리는가?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어느모로 봐도 좋을것이 없다.

《동무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동지께서 좌중을 둘러보시였지만 누구도 대답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지도자동지께서 답답하신듯 앞섶 자크를 조금 내려놓으시였다.

《아직도 리해가 안된다면 한가지 론거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무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최고 학위, 학직을 드리자고 했을 때도 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적중치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저 위대하다고 해서는 그 위대성이 오히려 왜소화될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위대성을 한두마디로 집약해야 한다면 영생불멸이라는 네 글자를 붙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고 부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령님께 최고 학위, 학직을 드리는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께 그 어떤 최고 학위, 학직을 드리던 그것은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것이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주체사상은 그처럼 위대한 혁명학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립장이 충분히 리해된다고 하시면서 나의 의견에 찬동하시였던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리해되지 않습니까?》

장내가 다소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림성혁의 가슴도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명철한 분석이며 그야말로 누구도 어쩔수 없는 철의 론리인가.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예지였다.

림성혁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올라오는 인민들과 학자들의 편지와 외국대표단들의 제기를 받을 때마다 느끼던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외람된것이였는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하지만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과학적업적을 높이 칭송할수 없는 안타까움은 어쩔수가 없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림성혁의 그런 심중까지 헤아리신듯 친히 의견을 물으시는것이였다.

《부주석동무! 어떻습니까? 아직도 리해가 되지 않습니까?》

림성혁은 일어섰다.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는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과학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변함없는 절절한 소원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치국위원들이 나의 의도를 충분히 납득하였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고 하시면서 밝게 웃으시었다.

희색이 만면한 지도자동지를 우리르노라니 립성혁은 어쩐지 눈곱이 저러났다. 전사들의 허물을 탓하시기전에 끝까지 깨우쳐주어 스스로 뉘우치게 하시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예술, 그것은 언제나 립성혁의 가슴을 뜨겁게 달쿠어주는것이였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무거운 짐을 얼마간 덜어놓으신듯 자리를 고쳐앉으시었다.

《두번째 정령은 나에게 또다시 영웅칭호를 주는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좀 해놓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령도가 현명했기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일때마다 영웅칭호를 받는다면 공산주의자로서뿐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실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비해보면 우리가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몇배나 더 많단말입니다.》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색이였다. 립성혁은 마음속으로 열렬히 호응했다. 사실대로 말해서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어찌 영웅칭호로 평가할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도 손짓으로 눌러앉히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도 잘 알지만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무를 나에게 넘겨주시였습니.

나는 이것을 인민군대를 잘 지도해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엄숙한 지상의 명령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명령을 지켜 조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영웅칭호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나에게 영웅칭호를 받으라고 다시 권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동무들에게 하는 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옆에 앉은 인민무력부장이 뜨거운것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립성혁이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라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수령님께서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품성이라고 찬성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국 위원들에게 잘 리해시키라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내 마음을 충분히 리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세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문건은 나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정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히 잘못된것입니다. 전사의 생일을 어떻게 수령님의 탄생일과 같이 민족최대의 명절로 법제화할수 있단말입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구태여 논의할 필요도 없는것입니다.

동무들.

나는 이 기회에 나나 동무들이나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이며 제자라는것을 언제나 또 어디서나 잊지 말자는것을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를 결속하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는가?

그것은 우리 수령님은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이시기에 그이의 전사된 영예보다 더 큰 영예가 없으며 그이의 제자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수령님을 더 잘 모시는 여기에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 있고 수령님의 구상을 더 잘 관철해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참다운 영예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수령님의 구상을 더 잘 관철하는데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며 일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합시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느냐는듯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립성혁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세건의 정령들이 모두 그냥 보류되고말것이였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용서하지 않을것이고 후대들이 저주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립성혁은 아무말도 못했다.

지도자동지께서 아까와 같이 손짓하며 엄하게 말씀하셨던것이다.

《부주석동무, 앉으시오. 이 문건을 기안작성한 부주석동문 발언권이 없습니다.

사실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하자면 오늘 회의에서 응당 부주석동무의 조직문제까지 봐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전화교시가 계셨고 또 나와 관련한 문제여서 심중히 고려한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건을 수령님의 비준에나 모르게 다시 제기할 때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이만합시다.》

지도자동지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올 때와 같이 활달하고 쾌기있는 좀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에서 나가시는것이였다.

림성혁은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지었다.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오늘 회의기록이 남았대도 이렇게까진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았다. 회의기록이 남았다면 후대들이라도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세건의 정령이 왜 공표되지 못했는지 그 뜨거운 내막이나마 알수 있을것이였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였다.

그래서 한숨짓는데 주석단에서 나가시던 지도자동지계서 돌아서더니 정무원 총리와 당중앙위원회비서를 집무실로 부르시는것이였다.

림성혁은 그제서야 그냥 앉아서 한숨만 짓고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3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생각해봐도 림성혁이 자신에게조차 실로 놀라운 일이였다. 어데서 그런 용기가 나서 그이의 집무실에 뛰어들었겠는지 도무지 설명해낼수가 없었다.

김정일 동지를 우리러 따르는 마음이 하도 불같았기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앞에서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세건의 정령을 단 한건도 발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두였던지.

아무튼 림성혁은 총리와 비서를 대기실에 앉혀놓고 제사 먼저 그이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들어서자바람으로 **김정일** 동지께 절절하게 말씀드렸었다.

《지도자동지!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인민들의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어쩌면 그렇게도 모두다 사양해버리십니까? 예? 어쩌면 한두건도 아니고 세건 다 사양하시는가 말입니다.》

림성혁은 너무도 안타가와 질끔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길이 없었다.

《부주석동무, 뭘 그러니까. 자, 우리 저기 가서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지도자동지계서는 림성혁의 팔을 끼고 쏘파까지 데리고가서 앉혀주고 자신께서도 옆에 앉으시였다.

《너무한건 내가 아니라 부주석동무지요. 그런 일을 나한테는 귀찮도 하지 않고 수령님께 직접 보고드리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셨는데도 사양하시는 지도자동지계서 저희들이 청을 드리면 승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외람된 행동인줄 알

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수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던것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그러는데 당중앙위원회에도 그런 청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긴 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인민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민뿐이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벗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혁명발전에는 있는 힘껏 기여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동지!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도 세계의 수많은 벗들도 지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영광을 드리고싶어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여 한두가지만이라도 승낙해주시시오.》

《허허 참, 최고집이란 말은 들었어도 림고집이란 말은 못들었는데 이제 와보니 림성혁부주석동무의 고집두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런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은 탄생 80돐을 맞은 수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헤드릴까 하고 생각던끝에 내 한가지 좋은 궁리를 했습니다.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제 힘껏 돕겠습니다.》

《이건 아직 비밀이니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예!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뉘고하니 수령님 탄생 80돐을 맞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대폭 높여주는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 얼마전에 정무원 재정부장을 조용히 불러서 타산을 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는 근 50프로나 높이자고 하면서도 사회보장자들의 보조금과 대학생들의 장학금 같은것은 빼놓았더라말입니다. 그들도 다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타산해보라고 했는데 경제에 밝은 부주석동무가 재정부장을 잘 도와서 사소한 편향도 없이 수령님의 배려가 골고루 다 차례지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림성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몸가짐을 바로했다. 과업을 받을 때마다 하는 몸가짐이였다.

지도자동지계서도 따라 일어나시였다.

《서두를건 없습니다. 수령님 탄생 80돐을 계기로 발표하자는것이니까 3월말까지 끝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수록 빨리 끝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부주석동무, 이것으로 우리는 화해를 했습니다. 예? 하하...》

지도자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림성혁은 그제서야 자기가 정령문제를 가지고 더 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이께서 판전을 부리셨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대번 뜨거운것이 피여오르면서 눈곱이 저려왔다.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면서도 인민들이 드리는 자그마한 영예도 굳이 사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그래서 더구나 물려서서는 안된다싶어 무례한줄 알면서도 재삼 간청하였다.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해내겠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의 간청도 좀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허참, 또 그 이야기입니까?》 I

《그건 수령님께서 비준하신것이 아닙니까.》

《그 문젠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수령님께서 일단 비준하신 문제라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 별이라도 따오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배풀어지는 영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로 나를 더는 딱하게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가시어 초인종을 눌렀다. 서기가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들여보내라고 하시었다.

림성혁은 안타까웠지만 할수 없어서 인사를 드리고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만류하시면서 집무탁에 놓여있는 담배곽에서 담배를 꺼냈다.

《한대 피우면서 잠간 기다려주시시오. 우리 새 영화를 같이 보고 의견을 줍시다. 수령님 탄생 80돐에 드릴 영화인것만큼 만점짜리로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동지께서는 림성혁에게 불까지 붙여주시고서야 총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태양 그러시었다. 사양해도 소용이 없었다. 불을 붙일 때까지 그냥 라이타를 들고계시는 그이시었다.

수령님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온 로혁명가라고 각듯이 존대할 때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지어 민망하기까지 하였지만 지도자동지의 그 살뜰한 인정미에 반해서 그이를 더 높이 모시게 되고 변심없이 따르게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림성혁이었다.

림성혁은 지금도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림성혁이 쏘파에 편안히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야 총리와 비서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자신께서도 그들과 마주 앉으시며 회담준비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였다. 총리가 단장으로 활동하는 북남고위급회담은 며칠후에 평양에서 열리게 되고 비서가 단장으로 임명된 조미고위급회담은 미국에서 열리게 되어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회담준비가 잘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대적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말씀을 끝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영화나 봅시다. 다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부 두개 필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따라 일어서면서 문건을 꺼내들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며 물으시었다.

《그건 뭡니까?》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자료입니다.》

《이런건 왜 종합했습니까?》

《예견 못했던건 아니지만 너무도 상상을 초월해서 종합했습니다.》

림성혁은 비서의 말이 대번에 공감되였다. 지난 2월 4일 《로동신문》에 발표된 그 문헌을 읽으면서 림성혁자신이 얼마나 감탄했던가. 매일과 같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하는 자기도 감동을 금할수 없을진대 사회주의가 좌절되었거나 그것을 보고 갈길을 몰라 헤매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는 지도자동지의 문헌이 그야말로 등대일것이라며 라침판일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도자동지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 보겠다면서 문건을 받아 집무탁 한쪽옆에 놓고 림성혁의 팔을 끼시었다.

림성혁은 그 순간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모셔야 하겠다는 숭고한 생각을 하며 그이께서 이끄시는대로 영사실로 향하였다.

4

림성혁은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련속편을 볼 때면 언제나 지도자동지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곤한다. 그이를 모시고 제1부 두개 필름을 보는 영광을 지녔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그와 함께 영화 한편을 놓고도 먼저 수령님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에 자신을 비쳐보게 되기때문이었다.

지금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그때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깃든 **김정일** 동지의 로고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했다.

림성혁이도 모르는 사람축에 속해있었기에 그만큼 감동도 컸다. 영화의 종자를 주시고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도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만점짜리 영화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김정일**동지!

그때 림성혁은 그이를 우러르며 자신에게 물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로고를 바치시는데 그이의 혁명전사인 나는 과연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지도자동지께 어떤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가?)

판에는 여러가지로 마음을 써왔지만 수령님께 서 비준해주신 세건의 정령중에서 단 한건도 공표할수 없게 된 형편에서 자신에게조차 아무 대답도 할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렇게도 열렬히 청원해온 우리 인민들에게 과연 무슨 대답을 줄수 있으며 주지 못하는 사연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단말인가.

림성혁은 그때문에 밥술을 들어도 소태같이 썼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청할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끝에 마침내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그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함께 새 정령초안을 준비해가지고 다시금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떠났다.

저리에서는 록화사업소 원예사들이 꽃을 심고 있었다. 아직도 쌀쌀한 밤에 꽃이 열지 않도록 비닐박막을 정성스레 덮어주는것을 바라보노라니 자연 생각이 깊어졌다. 저들은 2월의 명절 아침에 꽃이 일시에 활짝 피어나게 하려고 저리도 정성을 깡그리 쏟아붓는데 나는 과연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지도자동지께 그런 정성을 다 고이고있는가.

림성혁은 이런 생각이 들수록 이번 정령만은 어떻게 하나 공표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져 승용차를 더 빨리 몰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직접 온걸 보니 또 긴급인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림성혁은 새 정령초안을 그이께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표지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시었다.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시책을 실시함에 대하여>

아니, **김정일**동지는 8월말까지 균형타산을 끝내기 위해 벌써 정령이 준비되었소?》

《예, 기초자료가 다 구비되어서 별로 품이 들 것도 없었지만 동무들이 지도자동지의 탄생 50돐

전으로 끝내자고 해서...》

림성혁은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셔서 더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허허... 그러면 내가 부주석동무의 마음을 모를것 같소? 전번에 가지고왔던 세개의 문건이 **김정일**동지한테 가서 다 걸렸으니 이것으로라도 별충을 하자는거지? 안그렇소? 허허...》

림성혁은 대답을 못하고 버럭 웃기만 했다. 자기들의 심정을 대변에 알아주시는 수령님께 사실 더 말씀드릴것도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마지크를 드시고 정령초안을 자구구 검토하시었다.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프로 높인다는 대목에서는 《아주 좋소!》라고 말씀하시었고 사회보장자들의 보조금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린다는 대목에서는 잘했다고 만족해하시었다.

문건을 다 검토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표지를 번지고 수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난 절대찬성이요. 그래 **김정일**동지는 뭐라고 합디까?》

림성혁은 대답대신 머리를 숙였다.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리지 않고 직접 가지고 온 그였다. 비조직적이라는걸 모르지 않았다. 이 정령도 수령님탄생 80돐에 발표하시려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신의 탄생 50돐을 계기로 공표한다면 반대하실것이 너무도 명백했기때문이었다.

《이거야 **김정일**동지의 탄생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령이 아니요.》

림성혁은 머리를 들었다.

《이번 시책도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받기하고 몸소 지도해오신것입니다.》

《음-그렇다?》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집무탁주위를 조용히 도시었다.

림성혁은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잠자코 하회만 기다렸다.

수령님께서는 뒤집을 지고 걸음을 옮기면서 말씀하시었다.

《그러니까 **김정일**동지가 2월 16일을 계기로 발표하는걸 반대할거라는거지?》

《그렇거요. 4월 15일을 계기로 공표하자고 할거요. 그렇구말구.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그것이 **김정일**동지의 첫째가는 특징이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건의 문건을 놓고도 사뭇 생각이 깊어지는것이였다. 80평생 얼마나 많은 충신들을 보아왔던가. 하지만 **김정일**동지는 그 많은 충신중에서도 으뜸가는 충신이었다. 무슨 일을 구상하고 조직하는 수령의 안녕과 장수를 첫 자리에 놓았고 수령의 심려를 덜어주고 기쁘게 하는데 귀착되곤하였다. 이번에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대폭 높이는 일도 그래

서 받기하고 지도해왔을것이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후터워올라 조용히 외우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오직 수령을 위한것이구 인민을 위한것이요.

그런데도 그의 탁월한 사상, 리론활동에 학위, 학직을 주자고 해도 반대하구 그의 현명한 령도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주자고 해도 반대하구 그의 생일을 국가적명절로 하제도 반대하지, 자기는 수령의 전사이구 제자일뿐이라고 하면서말이요.

사실 전번에 부주석동무가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청원해서 내 **김정일** 동지의 성정을 잘 알면서도 한번 나서봤는데 그의 철의 론리앞에서는 어쩔수가 없더군.

그렇지만 서운하면서도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게 아니겠소. 령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풍격을 완전무결하게 100프로 다 갖춘 **김정일** 동지를 대하니 우리 인민들이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기쁘더라말이요. 오죽 기뻔으면 내 그바람으로 **김정일** 동지의 탄생 50돐에 주려고 송시 한편을 썼겠소.

참, 부주석동무, 한번 봐주지 않을라우? 전문가들에게도 보내긴 했소.》

《수령님, 저야 공학전문인데 시를 뭐 압니까?》

《괜한 소리, 똑똑하다는 사람치구 젊었을 때 시가락을 주무르지 않은 사람이 있소? 자, 그러지 말고 한번 보우. 우리 늙은 사람들끼리야 허물이 있소.》

수령님께서는 집무탁으로 돌아오시더니 빼람에서 종이한장을 꺼내주시는것이였다.

림성혁은 기계적으로 받으며 퍼보았다. 대번 얼굴이 달아올랐다. 수령님께서 주신 8절지에는 붓으로 쓴 한시 한수가 적혀있었는데 뜻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망신스러운것은 둘째치고 우선 수령님앞에 죄송스러운것이였다.

《수령님! 저는 시를 잘 모릅니다.》

림성혁은 미리 용서를 빌어돌양으로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몇줄 되지도 않는데 어서 읽어보우.》

림성혁은 할수없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나서 글자 뜻을 새겨가며 읽어내려갔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수령님!》

림성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송시를 받쳐든 손도 떨렸다. 수령님을 우러르는 눈에는 어느새 평하니 물기가 어리였다. 한편의 시가 이처럼 사람의 심장을 잡아흔들수 있다는것은 난생 처음 체험해보는 그였다.

《그래, 어떻소?》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고 림성혁이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수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시가 어떤가고 묻는데 감사하다니?》

《이 송시를 박사나 원사칭호에 비기겠습니까. 공화국영웅칭호에 비기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덩어리를 통채로 드렸다고 해도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송시를 받으신것보다 결코 더 기뻐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지도자동지께 드릴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드리십니다.》

《부주석동무, 너무 그러지 마우.

김정일 동지의 령도자로서의 천품에 너무도 감동해서 몇자 적어본거요.》

림성혁은 너무 기뻐 문서봉투를 꺼내여 친필송시를 넣은다음 가방을 들며 인사를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아니 이 정령은 안가지고 그냥 갈라우?》

수령님께서 문건을 집어주셔서야 림성혁은 정령생각을 하였다. 난생처음 저지른 실수였다. 친필송시에 그는 그만큼 흥분되어있었다.

《그래, 이 정령을 언제 발표할 생각이요?》

《15일 아침에 신문, 방송으로 일제히 공표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비밀을 지켜주면 되겠소?》

《그렇습니다.》

《전번 정치국회의때 **김정일** 동지가 또다시 자유주의를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안심하우. 이건 **김정일** 동지가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는 배려인데 그의 탄생 50돐을 계기로 발표하는게 응당하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했소! 만약 **김정일** 동지가 책임을 물으면 나한테 미우.》

《일없습니다. 15일 아침에 제가 신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15일 아침에 **김정일** 동지한테 전화를 하지. 자 받소.》

림성혁은 수령님께서 내주시는 문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5

림성혁은 수령님께 말씀드린대로 15일 아침 첫 시간에 지도자동지를 찾아갔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신문을 보신듯 자리에 앉지 않고 팔을 엮고 집무실을 거닐고계셨다.

그이께서는 림성혁이 드리는 인사는 받는듯마는듯하고 퍼그나 섭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방금 수령님께서 전화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합니다.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느라 잘 알면서 어쩌면 그럴수 있습니까. 당규를 론하기전에 도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말입니다.》

림성혁은 머리를 숙였다. 모든것을 예견했었고 각오도 하고있었지만 무던히도 섭섭해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주하니 드릴 말씀이 없었고 가슴만 쿡쿡 찌서났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 정령을 발표할 때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무슨 작정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림성혁은 더는 고개만 숙이고있을수가 없었다.

《지도자동지! 수령님께서 자신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발표하는것보다도 지도자동지의 탄생 50돐을 계기로 공표한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80평생을 인민을 위해서, 동지들을 위해서 깡그리 바치신 수령님이 아니십니까. 아마 내 생일이 아니라 부주석동무의 생일을 계기로 해서 발표되었다고 해도 수령님께서 역시 기뻐하셨을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그 고매한 덕망을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령님께서 이번처럼 기뻐하시는것을 저는 일찌기 본일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송시를 친히 쓰시였겠습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림성혁이쪽으로 돌아서시었다.

《이것 보십시오...》

림성혁은 가방안에서 송시를 꺼내서 지도자동지께 드리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송시를 받아드시고 눈으로 읽으시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신룡인가
문무중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번 읽고 두번, 세번을 읽고도 송시를 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계시었다. 손이 가볍게 떨리었다. 송시의 무게를 더는 당해낼

수 없는듯 집무탁에 내려놓은 그이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창가림을 두손으로 갈라잡은채 정령에 눈길을 주고 까딱않으시었다. 가볍게 떨리는 창가림만이 그이의 심중을 이야기해주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번이나 손수건을 꺼내서 눈굽을 훔치고서도 한참 있다가야 돌아서시었다.

《나는 이때까지 충실한 신하나 독실한 제자가 자기 수령이나 스승에게 송시를 바치는줄로만 알았지 수령이 전사의 생일에 송시를 써준것은 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전사의 생일에 송시를 쓰신 첫 수령이시고 나는 수령의 송시를 받은 첫 전사로 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라고 하는것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수령님밖에 모르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것을 나의 숭고한 의무로,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는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줍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금 손수건을 꺼내시었다. 웃음도 많지만 눈물 또한 누구보다 많은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림성혁이도 마냥 눈굽을 훔쳤다...

1992년 2월의 봄명절은 그렇게 맞이했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은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송시를 써주신 것처럼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것이였다.

림성혁은 조용히 눈굽을 훔치며 생각했다.

수령님을 잃은 뼈저린 상실의 아픔을 안고 탄생 53돐을 맞으시는 지도자동지의 가슴은 얼마나 쓰릴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것인가.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늘의 별을 따다가 꽃바구니를 엮어드리련만 천하를 다 드린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수령님을 잃었기에 그이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것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림성혁은 월력에서 대답을 찾으려는데 《김정일 화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손기척소리가 나는가싶더니 한 일군이 들어왔다.

《부주석동지도 월력을 번져놓으셨군요.》

그의 목소리도 전갈지 않았다. 그도 월력을 번져놓으며 뜨거운것을 흘리다가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보름 남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소?》

림성혁은 월력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지켜보며 되물었다.

《지도자동지의 탄생 50돐때 수령님께서 비준해 주신 영웅칭호라도...》

《무슨 소릴 하우?》

림성혁은 책 돌아서서 방안을 거닐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열린 첫 정치국회의때 일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정치국위원들은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은 비길데 없었지만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나 또 국가간의 관계로 보나 총비서직도, 국가주석직도 그냥 비워둘수 없어서 **김정일**동지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하는가고 몹시 나무라면서 엄하게 말씀하시였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상제입니다. 상제한테 그런 말을 하는게 어디 도리에 맞습니까.

다른 나라의 전례가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국가관계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총비서의 명의로 보내야 할 축전이나 문건은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하면 될것이고 주석의 명의로 해야 할 문건은 중앙인민위원회의의 명의로 하면 될것입니다.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들의 신임장에 주석의 수표를 해야 할 일이 제기될수 있는데 그때는 림성혁부주석동무가 대리라는것을 밝혀서 수표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일곱달이 가까와오지만 총비서도 주석도 추대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영웅칭호를 드리겠다면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도 끝내 사양하신 그이께서 수령님을 잃은 가장 비통한 지금 과연 받으려 하시겠는가.

《저도 하도 안타까와서 그렇습니다.》고 일군의 목소리는 떨렸다.

림성혁은 그 일군의 심정이 대번 이해되면서 자기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였다. 월력을 번지며 애잡잡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것이 어찌 자기뿐이라. 그 일군과 같이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이 아침 월력을 번지며 아픈 마음을 달랠수 없어 모대길것이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림성혁은 소스라쳤다. 응당 경사스럽게 맞이해야 할 지도자동지의 탄생 53돐을 전체 인민들이 아픈 마음을 안고 맞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비정상인 아닐수 없었다.

(무슨 대책이든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신통한 공리가 돌지 않아 그냥 서성거리는데 외교부 부부장이 찾아왔다. 외국에 파견할 신임대사의 신임장에 수표를 받으러 온것이였다.

림성혁은 대사의 신임장에 수표를 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서 번개가 일었다.

그는 내쳐 송수화기를 들고 한 일군을 찾았다.

《수령님께서 3년전에 비준해주신 정령을 가지

고 곧 내 방으로 오시오. 문서고에 그냥 보관되어있을거요.》

그 일군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가 가지고 온 정령을 마주하니 눈앞이 흐려와서 림성혁은 손수건부터 꺼냈다. 마지크를 집어드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찌면 그리도 생생히 떠오르는것인가. 《나도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찬성이요.》라고 하시던 우렁우렁한 목소리도 귀전에 쟁쟁히 울리였다.

(그렇다! 인민의 이름으로 이 정령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의 아픈 마음을 얼마간이라도 달랠수 있을것이다.)

하나 다음 순간 지도자동지의 엄한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왔다.

《앞으로 이런 문건을 수령님의 비준에 다시 제기할 때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림성혁은 무거운 한숨을 지었다. 지도자동지의 사소한 문제도 다 보고드리고 그이의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생활로 굳어진 그였다. 그렇지만 보고드리면 3년전처럼 중지시킬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자의로 결심하자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엄한 추궁이 두려워선가. 아니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면 무거운 책벌도 웃으며 받을 동의를 있었다. 그러나 의도야 어땠든 탄생 53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금이라도 노엽힌다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아무리해도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도무지 변명해낼수가 없었다.

사실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해온 지난 30년동안 림성혁이 배운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수차례개념으로 표현할수 없는 사업과 생활의 전부였지만 압축하면 두가지로 이야기할수 있었다.

그 하나는 자기 수령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충신의 귀감이였고 다른 하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야말로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충복의 모습이였다.

하다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충성을 맹세한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림성혁은 드디어 확신이 생겼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지도자동지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이 그이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무이며 도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의 일치한 소원을 풀어주는 길이였다.

그는 더 바재이지 않고 토요일학습에 참가한 정치국위원들에게 자기의 속심을 터놓았다.

정치국위원들은 쌍수를 들어 지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절대적인 찬동을 받은 림성혁은 지체없이 《로동신문》과 중앙통신사 책임일군들을 불렀다. 그리고 정령원문을 넘겨주면서 그루를 박아 힘주어 말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세덱이 되는 날 일제히 발표합시다. 그리구 수령님께서 3년전에 비준하신 정령을 왜 오늘에야 발표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밝힙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절대적인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 무한한 겸손성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듭되는 만류로 하여 발표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밝히잔말입니다.》

그리하여 옹근 3년이나 중앙인민위원회 문서고에 보관되어있던 정령이 마침내 공표되게 되었다.

《로동신문》을 받아든 림성혁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정치국 확대회의기록도 남기지 못해서 후날 력사가들도 수령님께서 비준해주신 정령이 왜 발표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수 없었는데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것이였다.

림성혁은 인민들의 반향이 알고싶어서 거리를 한바퀴 돌았다. 뻐스나 전차정류소마다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이 기수 없는데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환했다.

(인민들이 기뻐하니 얼마나 좋은가.)

림성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얹한 그 추궁이 계시리라는걸 잘 알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당중앙위원회로 차머리를 돌렸다.

위대한 장군님께 아침인사를 드린 림성혁은 그이의 집무탁우에 오늘호 《로동신문》부터 퍼놓았다.

《인민들의 청원이 어떻게나 불같은지 저희들도 어찌는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무들도 <인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바로 그것을 바라고있었습니다.》

《3년전에 수령님께서도 인민들이 바라기때문에 비준하시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비준하신 정령을 주석대리의 권한으로 발표했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긴 무거운 걸음 이시였다.》

예견못한바가 아니였다. 그래서 열번, 백번 다시 생각해보고 내린 용단이였다. 그러나 정작 몹시 섭섭해하시는 그이앞에 서고보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림성혁이였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는 생각은 없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했고 자기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꼭 하고야말았을 일을 한것 같았다. 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법제화하는것은 그만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였다.

이런 생각은 림성혁에게 용기를 주었다. 림성혁은 조용히 장군님결으로 다가갔다.

《장군님! 지난 30여년동안 장군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 저희들을 너무 나무람게 생각지 말아주시시오.》

사실 이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고 또 총비서동지께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당적분공이기도 합니다.》

《아니 총비서동지께서 개별적으로 주신 분공이라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마침내 림성혁이쪽으로 돌아서시였다. 물기어린 그이의 안광에는 놀라움이 비껴있었다.

림성혁은 1991년에 있는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가 외국에 출장갔다가 돌아오니 비행장에 마중나온 한 일군이 지도자동지께서 급히 부르신다고 하는것이였다.

림성혁은 그달음으로 지도자동지를 찾아갔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척 기다렸다고 하면서 매일 수령님께서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중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피곤하겠지만 동무가 수령님을 수행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림성혁이 한가슴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주시는것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부주석동무가 수령님의 사업을 제일 잘 보좌해드리고 또 수령님의 안녕을 책임적으로 돌봐드릴것 같더라말입니다.》

그래서 수령님의 중국방문일정을 하루 드티면서 부주석동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겠지만 내가 주는 당적분공으로 생각하고 수고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떠난 중국방문길이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태산을 돌아볼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먼 하늘가를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명승지를 돌아보는데 **김정일** 동지는 지금도 얼마나 수고하겠소. 체때에 식사나 하면서 일했으면 좋으련만...》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림성혁이쪽으로 눈길을 주며 말씀하시였다.

《부주석동무! 나와 함께 일할 때처럼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주시오.》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의 운명이고 조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만큼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것은 모든 당원들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부주석동무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주시요.

이것은 총비서로서 정치국위원인 부주석동무에게 주는 당적분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림성혁은 이런 사연을 말씀드리고나서 한마디 보탬다.

《저는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분공을 수행하고있고 생명이 지는 순간까지 그 분공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령님의 뜻이고 우리 인민들의 요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석동무! 그만하십시오.

우리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그렇게 육친의 정으로 사랑해주신 수령님이어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그토록 그리워하는것이고 자나깨나 못 잊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것처럼 나도 영원히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일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생각이면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더 잘 모시겠는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주십시오.

나는 요지음 그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금수산의사당에 나가보려던 참인데 부주석동무도 같이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것처럼 충효를 다하시여서 그리도 위대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여서 그리도 거룩하십니다!)

림성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그이의 뒤를 따랐다.

거리에서는 록화사업소 원예사들이 꽃을 심고 있었다. 언제인가 수령님을 찾아 이 길을 달릴 때도 띄여본 광경이었다.

림성혁은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은혜로운 태양이 있어 꽃들이 만발했던것처럼 위대한 태양이 있어 꽃들은 더욱 활짝 피여날것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리치였지만 림성혁은 거기에 자기로서는 다 설명해낼수 없는 철학이 있는것만 같았다.

(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꽃들이 만발할것이다!)

림성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화전땅의 들국화

김 파

내 중국방문의 길에
화전땅을 찾은 오늘
추억도 뜻깊어 덕에 오르니
들국화, 들국화야
너도 나를 반겨 웃느냐

휘발하강 싱그러운 바람에
네 설레임은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의 자욱 어린
이 땅이 보고싶어 찾아왔느냐는
네 정겨운 물음이 아니겠느냐

불게불게 피여난
네 꽃잎들의 빛같은
못잇을 《E.C》 결성의 그밤
캄캄한 하늘을 밝히던
그 등불빛을 오늘도 담아서가 아니냐

목메게 향기풍기는 들국화
가슴에 안고 일어서니
눈앞에 어려오네

력사의 그 아침 들국화다발 위에
수령님께 드렸을 투사들의 그 모습이

14살 어린신 그 나이에
수난에 찬 조국을 구원하시려
《E.C》의 위대한 강령을 밝히신 수령님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 다시 있으랴
들국화에 얼굴 부비는 가슴뜨거운 생각이여

내 알았던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할
우리 수령님 하늘같은 그 업적
이국땅 덕에 떨기진 들국화를 보아도
가슴에 뜨겁게 어려울줄을...

들국화
화전땅의 들국화야
너는 정녕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대한 력사를 새겨주는 꽃
가장 뜻깊은 추억을 안은 꽃이로구나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최성진

온성이라고 하면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외진 고장이라고 하여 옛날에는 봉건관료배들과 변방 수비를 맡은 사람들조차 가기를 꺼려했다는곳이다.

척박할대로 척박하여 농사가 안되고 외적의 끊임없는 침습으로 사람살기 힘들다던 이 고장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락원으로 전변되었다.

온성읍에 들어서면 맵시있게 건설한 다층살림집들과 학교와 병원 탁아소와 유치원들 현대적인 편의시설물들과 공공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 마을들을 볼수 있고 사람들의 밝은 얼굴들을 띄어볼수 있다.

《여기 온성사람들은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들이지오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인연을 맺고계시는 이 고장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지오다.》

북방의 취재길에서 만났던 호성로인의 말이다. 얼굴이 꺼멥게 타고 기골이 장대한 이 온성 본토배기 로인은 강냉이 정보당 여덟톤을 기록하여 북방농사에서 장훈을 부른적이 있다는 농촌작업반장출신이다.

온성땅의 이 거대한 전변- 그것은 우리 당의 만년초석인 혁명전통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여기 온성지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해불을 높이 드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던 나날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기신 유서깊은 고장이다.

우리 당 력사에 잊지 못할 자욱을 아로새긴 력사의 땅을 찾아 나는 기행의 길에 오른것이다.

8월이었다. 삼복의 무더위에 벼마디가 생겨난다는 계절이었다.

전야에선 거름독이 올라 곡식들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다녀가신 강냉이 포전들에도 레년에 볼수 없는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

나는 현대식으로 지은 답사려관에서 하루밤 신세를 지고나서 아침에 곧장 왕재산으로 떠났다.

온성읍에서 바라보니 조국의 북변에 솟아있는 왕재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거기 푸른 웅자의 한가운데 대기념비가 솟아있다.

지척인듯 보이지만 리수로 치면 시오리길이라고 한다.

팔월의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포장도로는 왕재산대기념비와 직선으로 잇닿아있는데 그 우

로는 벌써 붉은기를 날리며 행진해가는 답사자들의 대오가 보이였다.

왕재산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유격근거지와 접하고있던곳이다. 여기서 북쪽으로 40리가량 가면 심리평이 있고 소왕청 마촌까지는 60리밖에 안된다. 소왕청 마촌이라고 하면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고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왕재산을 비롯한 온성지구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벌써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꾸릴 계획밑에 수많은 혁명가들을 파견하시여 이 지구 인민들을 혁명화해 오시였으며 드디어 1930년 가을에는 지신께서 몸소 조국땅에 나오신것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카륜회의가 있는 직후였다. 조선혁명의 항로우에 주체의 기치를 세운 이 력사적인 회의후 새형의 당조직으로서의 첫 당조직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려일으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조국땅 두루봉에 오르시여 국내당조직을 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목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일도 함께 하시며 카륜회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귀중한 씨앗은 싹트고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 우리 나라의 첫 주체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시련에 찬 간고한 싸움의 나날을 지나 1933년 봄 여기 온성땅에 다시 나오시였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지하혁명조직들이 자라나고 인민들의 혁명의식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투쟁속에서 성장한 지하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뜨거운 고무를 주시였으며 새로운 과업들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왕재산마루의 참나무아래에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후 한해동안의 투쟁성과를 총화하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당창건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서도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의 힘을 동원해서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려면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창건의 대업을 위해 일찌기 화전시절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여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신데 이어 카륜회의에서 주체적당창건로선을 제시하시고 여기 왕재산에서 다시금 당창건을 위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미래에 창건될 우리 당의 역센 골간을 위하여 투쟁의 초창기부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오시였으며 여기 온성지구에만도 수많은 혁명가들을 파견하시여 실천투쟁속에서 성장하도록 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에 오르시여 우리 당 역사에 남기신 불멸의 자욱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은 여기 왕재산에 그이의 동상을 모신 대기념비를 세웠다.

나는 대기념비를 찾았다.

조선의 미래인 어린 소년을 안으시고 한손을 높이 드시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온 세상에 장엄히 선포하시며 전민을 항일성전으로 부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30년대 전반기의 청년장군, 전설적영웅으로서의 그이의 풍모를 그대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지하정치공작원들, 각계각층인민들을 형상한 부주제 조각근상들이 있고 수령님의 동상뒤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66메터의 봉화탑이 거연히 솟아있다.

나는 왕재산혁명사적비의 비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비문은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조국광복의 굳은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여 새 역사의 선언으로 타도제국주의기치를 높이 날리시며 우리 당의 역센 뿌리를 자래

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신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슴속에 묻어두시고 불길천리 혁명의 길을 이어 조국땅 왕재산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위대한 업적을 전하고있었다.

나는 비문에 새겨진 가슴 뜨거운 사연들을 새겨보며 왕재산 마루로 향했다. 왕재산에는 역사의 그날 키낮은 참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그날의 참나무들이 지금은 거목으로 자라나 조국의 봉우리 왕재를 무성하게 뒤덮고있었다.

하지만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여 환희로 설레이던 그날의 광경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나무군차림으로 모여든 정치공작원들, 지하조직 책임자들의 열띤 모습들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나는 역사적인 왕재산회의가 열리였던 참나무아래에 오래도록 서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역사의 증언자로 자라 설레이는 왕재산의 참나무!

세기의 년륜을 새겨안고 거목으로 서있는 참나무를 볼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세월은 멀리 흘러가도 위인이 남긴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지에 역세계 뿌리박고 거목으로 자라나 푸른가지를 무성하게 펼친 저 참나무처럼 우리 당은 온갖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그 어떤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강철의 당으로 자라났으며 혁명과 건설을, 인류의 리상으로 빛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고있다. 우리 당이 승리를 떨치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자욱자욱에 이 세기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우리 조국 현대사의 한 갈피를 더듬어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갓 창건된 청소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이끄시며 1933년 이 한해동안에만도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들을 지나오셨는가! 1933년 봄에 인민혁명정부로선 제시,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수립, 제반민주주의개혁실시 그리고 이해 3월 31일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왕청현 차피거우전투, 4월에 있는 소왕청방어전투에 이어 6월에 반제공동전선의 실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사변들을 맞으시며 풍찬로숙하시오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는 나날에 바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불어일으키시기 위해 조국인민들을 찾아 왕재산으로 나오시였던것이다.

나는 광복의 성전에 바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영광의 땅을 떠났다.

오, 새벽이여! 10월의 첫 노을이여

장원준

머리우엔 바짝 마른 락엽이 몸부림치고
양상한 가지에 걸린 달은 이즈러졌는데…
빛못본 사람들이
눈에는 가랑가랑 섞은 비 맺히어
구차한 삶을 내어던지던 암흑의 가을이었다

오, 1926년 그해 10월이여!

날은 바뀌어도 해가 뜨지 않던
망국의 숨막히는 기슭에서
얼어죽고
끓어죽고
맞아죽은
불쌍한 령혼들을 흔들어 깨우며
화전의 키낮은 추녀아래 등잔불가에선
조국광복의 뜨거운 려명이 동터오고있었거니

오!!

위대한 **김일성**동지
제국주의 일본과의 결사전을 준비하시며
그 힘의 골간을 손수 키워
마침내 《ㄷ.ㄷ》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뜻깊은 10월 영광의 10월이여

정녕, 그것은

압제자에 대한 근로대중의 선전포고
새시대의 장엄한 우뢰소리
그 《ㄷ.ㄷ》로 하여
기나긴 20성상 혈로를 헤쳐
조국광복 대업을 이룩할수 있었고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거니

벌써 장장 70년이 흘렀구나…
그날의 려명
티없이 맑은 하늘로 펼쳐져있고
꿈을 기르는 고요한 창가에
산문시

밤깊도록 행복의 불빛 명멸하는 우리 세계
그 모두 품안고 세기의 언덕우에 우뚝 솟은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

그래서 아 그래서
풍요한 들을 흠뻑 적시는 저 강하의 굽이침
내 생활의 한복판우에 종일 눈부시고
철따라 가고오는 하얀 새무리 깃을 트는
행복의 뜨거운 바다가로 나는
그냥 해마중을 간다…

진정,

뿌리가 든든해야 상수리는 억센 법-
《ㄷ.ㄷ》의 그 푸른 시원을 목숨걸고 지켜온
우리 당 반백년의 영광찬 시간들을
내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렇다, 《ㄷ.ㄷ》의 그 10월은

입속에 생눈을 녹여가며
상봉과 작별 쓰고 단 교차점에 만난을 박차며
수령님 따라 승리해왔듯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 완성하는 승리의 한길에서
우리 당 력사의 첫 새벽으로 길이 빛나려니

오 새벽이여! 10월의 첫 노을이여

이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따라
백승의 기치 휘날려갈 구만리 하늘가에
《ㄷ.ㄷ》의 그 려명 무지개로 비껴안고
21세기 창문이 열릴 때
나의 심장
인민의 뜨거운 심장 소소리 높이 노래하리라
새 세기 동녘에 물드는 첫 푸르름
10월의 그 새벽으로부터 밝아온것이라고…

우리에게 **김정일**장군님이 계신다

오영재

산정의 회오리치는 바람결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서계신다
예지로 빛나는 그이의 안광은 하늘과 땅이
맞붙은
아득히 먼곳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그곳까지
바라보고계신다
그렇다, 그이는 세계를 발밑에 굽어보고
계시는것이다
그이는 백악관과 부활되는 《대본영》과 《청와대》
의 두터운 벽과 지붕을 뚫고 시간마다 새롭게
꾸며지는 온갖 비렬한 모략과 흉계를 지켜보고
계신다

대동란의 지진과가 세계를 흔들고있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위협과 압력과 봉쇄의
올가미들을 한칼로 베어던지시며 그이는 지구의
중심에 뿌리내린 백두산처럼 거연하시다
리상도 컸고 포부도 부풀던 세기의 려명기에
붉은기를 띄우고 힘겹게 공전해온 20세기
백년세월이 끝나는 황혼기에 불의(不義)의
역전으로 세기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았을 때
력사는 위대한 구원자를 인류의 머리위에
떠받들었나니
아, **김정일**장군-그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와 량심의 이름으로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준 대행운이여라

치렐했던 항일격전의 총포성이
억년 침묵속에 솟아있던 백두산의 잠을 깨우던
그 시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우렁찬 함성속에
안아올린 광명성
조종의 산이 자기의 정기와 기상, 담력과 의지를
고스란히 옮겨준 백두의 령장,
50여평생 제국주의와의 끊임없는 대결로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은 소요많은 그 세월에
그이의 자욱은 눈비속에 찍혀지고 폭풍속을
누벼왔거니

그이는 현란한 꽃발보다 울창한 밀림을 더
사랑하시였고 우짚는 새소리보다 하늘을 찢는
우뢰소리를 더 사랑하셨여라
그이는 평탄한 벌보다 거칠은 산악을 더
사랑하시였고 잔잔한 바다보다 격랑세찬 파도의
울부짚음을 부드러운 봄바람보다 폭풍치는
가을의 눈보라를 더 사랑하시였여라

하기에 백두의 천만산악은 그이의 기상
밀림에 울부짚는 눈바람은 그이의 숨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물지 않는 백두의 중력은
그이 신념, 그이 의지의 무게

천리수해를 불태우는 백두의 해돋이는 그이의
열정

그이는 순간의 정지도 모르시여라
그이는 사색도 종횡무진 걸음도 천변만화
그이의 기질은 언제나 가능만이 있나니 그것은
곧 승리

호방하고 여유작작하신 그 가슴속엔
작은것은 있어도 그이 심장보다 더 큰것 없여라
수억만톤의 무게를 가진 우리 사는 행성도
그이에겐 책상위에 놓여지는 작은 지구의
임의의 순간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볍게 돌릴수
있고 깨뜨려버릴수도 소중히 보호할수도 있는
하나의 물체

그이 굽어보시는 세계엔 큰 나라도 강한 나라도
없여라 빛나는 예지, 무쌍의 담력과 지략으로 그
어느것이나 무릎꿇릴수도 있고 소멸해버릴수도
있나니 그 누가 함부로 우리를 해치려
달려든다면 그이는 백두의 우뢰와 번개를 터치고
폭우를 쏟아 황색과 회색구름으로 얼룩지고
야욕과 배신과 침략으로 어지러워진 지구를
깨끗이 씻으리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
시대가 배출하고 하늘이 낸 세기의 위인
그이가 우리의 령도자이시며 어버이이시며
동지시다
그이가 우리에게 혁명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가르쳐주시고 불타는 열정을
우리의 심장마다에 옮겨주시고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주시여
우리 그이를 닮아 위대한 인민이 되게 해주신
희세의 은인이시다
사상도 령도도 인덕도 모습도 그대로 위대한 **김
일성**동지이시다

영광이여라, 그이가 인민을 이끄신다
그이가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신다
그이가 날뛰는 제국주의무리들에게 자갈을
물리며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켜주신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라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정신적재부를 안고있여라
그것을 세상사람들이 묻는다면
자랑스럽게 긍지높이 대답하리

김정일

우리에게 **김정일**장군님이 계신다!

10월에 대한 생각

정은옥

10월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산에도 들에도 온통 열매가 무르익은 풍요한 계절입니다.

들에 가면 금물결 설레이는 벼바다, 층층다락밭에 가면 팔뚝같은 강냉이이삭의 바다, 산에 가면 후둑후둑 산열매들이 락엽우에 쌓여지는 참으로 희한한 계절입니다.

10월이 좋아서 두루미는 때를 지어 벼바다우를 날아오고 10이 좋아서 활짝 핀 들국화는 아꼈던 꽃향기를 별가득 풍기는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월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가봅니다.

이해의 10월따라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날알향기는 어느해없이 더욱 구수하고 산에 들에 활짝 핀 들국화는 더욱더 아름다운듯싶은 이해의 10월!

연분홍빛, 연보라빛 들국화송이로 삼가 다발을 엮어 뜻깊은 이해의 10월에 엮는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사무쳐오는것은 다만 산과 들의 풍만한 열매만이 아닙니다.

이해의 10월은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0돛을 맞는 뜻깊은 달입니다.

산설고 물설은 화전의 언덕에 첫 자옥을 새기고 우리의 10월이 감아온 70돌기,

이제 다시금 그 돌기돌기를 되짚으며 우리의 10월이 걸어온 자옥을 더듬어보느라면 저도모르게 가슴은 젖어오고 크나큰 격정에 설레임을 어쩔수 없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우리의 10월이 탄생함을 알지 못했던 1926년 10월 17일! 연락도 없는 화전의 수수한 온돌방에서 우리의 10월은 자기의 첫 열매인 《ㄷ.ㄷ》를 받아안았던것입니다.

내 잠시 사색의 나래를 펴고 저 멀리로 헤엄쳐가면 그 첫열매를 받아안고 기쁨에 울고 웃던 그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가까이 있는듯싶고 그들속에 태양으로 빛나시던 10대의 청년장군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가까이 뵈옵는듯싶습니다. 그러면 책에서나 읽어온 그날의 화전이 새로운 숨결로 호흡하며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마주 옵니다.

그날 우리의 10월의 고고성을 알리며 더욱 푸르려 설레었을 화성의숙의 스무나무숲이며 그 고고성을 안고 줄차게 흘러갔을 휘발하강의 맑은 물결이며 그 고고성에 받들려 더욱더 높아졌을 그 밤 화전의 가을하늘이며...

그 첫 열매를 조선혁명이라는 토양에 심고 열백천으로 늘이며 우리의 10월이 헤쳐온 년대와 년대들... 혈전의 언덕을 넘어야 했던 10월도 있었고 청춘의 더운 피를 바쳐야 했던 포화속의 10월도 있었으며 허리띠를 조여매야 했던 복구건설의 10월도 있었습니니다.

시련이 컸던만큼 받아안은 영광이 또 산같은 우리의 10월이었습니다.

력사적인 우리 당의 창건을 선포한 해방산기슭의 작은 집에는 지금도 45년 10월의 감격이 그대로 흐르고있으며 우리 당의 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사변을 선포한 당제6차대회의 못잇을 10월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생생합니다.

더듬어보면 우리의 10월이 받아안았던 《타도제국주의동맹》-그 첫 열매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뿌리가 되고 승리만을 새겨온 우리 혁명의 초석이 되고 세계사에 빛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동지애의 첫 씨앗이 움트고 그 초석우에서 세상의 그 어떤 변덕에도 끄떡없는 일심단결의 사회주의성새가 솟아올랐으며 그 시원에서 주체의 기발 들고 인류의 새세기를 마중가는 력사의 도도한 대하가 펼쳐졌습니니다.

하거늘 우리의 10월은 혁명앞에 조국앞에 그리고 민족앞에 얼마나 거대한 열매들을 떠받들어 올린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니다.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를 다 뒤져도 우리의 10월처럼 이렇듯 자랑스럽고 이렇듯 긍지높은 10월은 그 어느 년대에도 없을것입니다.

10월의 영광이 가슴에 벅차올수록 우리는 이복받은 10월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더더욱 못잊습니니다. 진정 우리의 10월은 어버이수령님과 떼여놓고 순간도 생각할수 없습니니다.

이날에 활짝 핀 꽃들은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로 저리도 아름다운것이며 푸르게 열린 저 높은 하늘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으로 저렇게 빛나는것입니다.

오늘 그 뜻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손길로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으니 이 땅 이 나라에 영원할 우리의 10월!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 부푸는 우리의 10월을 안고 나는 지금 지구상에 사회주의의 첫 씨앗을 뿌려준 그 10월을 생각합니다. 인류앞에 혁명앞

에 그리고 력사앞에 얼마나 거대한 열매를 안고
왔던 그 10월이었습니까!

수천수만년 칭칭 감겼던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
리고 천대받고 억압받던 인류에게 인간만세의 밝
은 빛을 뿌려준 10월!

푸른 하늘가에 붉은기를 자랑스레 펼적이던 동
유럽의 10월이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해 것처럼
거대한 혁명의 열매들을 줄지에 다 잃고 치욕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으니 생각할수록 우리의
10월에 대한 행복과 긍지로 더더욱 뜨거워지고

한 몸 바쳐, 온 뉘을 바쳐 우리의 10월을 끝없이
빛내갈 충성의 맹세로 더욱 불타는 우리의 마음
입니다. 이 불타는 맹세로 하여 더 아름답고 더
풍만해질 우리의 10월!

우리의 10월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조국의 번
영과 인민의 기쁨을 위한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더욱 풍만해질 우리의 10월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21세기의 하
늘가에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뿌릴 우리의 10월입
니다!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오스카르 뻬드로 마기냐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망망대해의 배길 밝히는 등대와도 같이
인류의 앞길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의 리념 위대하여
수백만 인민들
승엄한 경모의 마음담아
당신의 존함 높이 부릅니다

야자수 설레이는 남방에서도
찌는듯 무더운 사막에서도
얼음덮인 동토대에서도
사계절 아름다운 땅에서도
당신을 우러르는 칭송의 목소리 울려옵니다

날이 밝아 해가 질 때까지
고생속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존함에서 밝은 미래 내다보며
당신의 손길 고대하여라

장엄한 백두산정에서
힘있게 울리는 당신의 목소리
그 음성 메아리되어
뻬루의 안데스산정에
아시아의 히말라야산정에산정에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산정에
뜨겁게 울려퍼집니다

김정일 당신은
김일성동지의 혈통을 이어
김일성동지의 통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백프로 계승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최대의 의무로 여기시고
그 실현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 인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위력 날이 갈수록 커가거니
조선의 통일은 기어이 이룩되고
조선의 붕괴 꿈꾸는 분렬주의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백전백승의 기치
지구의 높은 봉우리위에
힘있게 휘날리며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거니
혁명사상의 종말을 운운하는
혁명의 배신자들
력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으시라
조선의 통일과 번영의 상징이시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신
시대의 걸출한 사상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정일**동지
영광을 받으시라

(필자는 뻬루시인임)

붉은기 찬가

홍현양

나의 동지들이여
붉은 기발아래
한번만이라도 서분 사람이라면
저 하늘이 왜 푸르른지
그것을 잘 알리라

이 기발아래서
서약을 한
당원이라면
청춘이라면
가야 할 길에
뒤돌아보는 일 없으리라

탓하지 마시라
포연탄우를 헤쳐보지 못하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벽돌장을 주어 손수레에 싣고
학교건설장으로 가던 소년이
오늘은 붉은 기발의 뜻을
붓으로 새겨간다고...

내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붉은 기발의 한쪽인듯
붉은넥타이를 한손에 들고
조국앞에
세상에
첫 서약을 하지 않았던가

생의 피와 같은 붉은 빛
그 진리는 거짓을 모른다
사람의 피에 티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아, 나는 그 순결을 안고
붉은기앞에 운명을 맡긴 사람
달리는 살수 없고
떨어져 해빛을 안을수 없는
그 붉은 기발앞에
사람들이여, 머리숙이라

기발의 펄럭임소리 들으며
그 웨침을 간직하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기발은 오늘도
백두의 바람을 안고있다

1

새날이 시작되는
수도의 아침
멀고 가까운곳에서
가로수잎들이 설레이는 거리
평양의 첫 걸음인듯
조국의 첫 자욱인듯
한대의 승용차 조용히 달린다

하나, 둘
창문들에 불빛들이 켜지는
이 새벽
동해천리 먼길을 다녀오셨는가
서해안의 해변들을 만나고 오시는가

한밤을 지새우며
달려온 차창가에
노을이 물들어 승업한데
경애하는 장군님께 피로를 풀어드리듯
조용히 울리는 노래소리

-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높이 불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노래가 말해주는 진리는
얼마나 강한가
노래가 이끌어가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미래
그 진리를 지켜
기발은 오늘도 휘날린다

사색에 잠기시여
노래에 매혹되시여
강하와 산야를 헤쳐넘으신
그 로고와 피로도 잊으신듯
또다시 선물을 음미하시는 장군님

력사는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인간이 자주성을 위해
삶의 표대로 든 붉은기
노예는 채찍자리의 피멍든 상징으로

농민은 로동과 근면의 징표로
로동자는 선혈의 뜻으로
이 기발을 날리지 않았던가

억압의 철쇄는
노예도 농민도 로동자도
두손에 다같이 찢건만
자주의 세계를 밝히는
그 기발은 들지 못하였다

콤포의 바리케트우에
쓰라린 교훈을 남기고 꺼져버린 기발
《아브로라》의 포성과 함께
동궁에 폭풍치던 10월의 기치가
배신자들의 손에 찢기여
오늘은 땅우에 밝히고있지 않는가

붉은 기발의 그 웨침을 들으시는듯
백두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주체의 기치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억천만번 죽더라도 놓지 않은
투사들의 피에 젖은 그 기발을 보시는듯...

장군님께서 마음속으로
백두밀림의 진대나무도 넘으신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 오신
찬비 내리는 광야
강기슭의 초막에도 들어서신다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이역의 오두막에 남기신 그 굴발이 적힌
작은 수첩장을 번지시며
아버이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을
못내 그리시는 우리 장군님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 만나주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하나하나 다 손잡아주시고
《E.C》의 강령을 펼쳐놓았던
잊지 못할 구름노전도 쓰다듬어보시며
우리 혁명의 붉은기가 솟아오르던
그날을 바라보신다

혁명은 동지를 얻고
동지로부터 시작되는것
그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

천만대오로 나아가는 길
혁명은 그 길에 휘날리는 붉은기

우리의 붉은기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기발
력사의 주인은 인민대중
인민대중은 력사의 개척자
주체의 진리를 처음으로 새긴
혁명의 기발

한별
일심단결
손에 손잡고 목청껏 웨치며
김일성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며
깜깜한 조선의 하늘에
이 나라 민족의 생명을
붉은 선혈로 새긴 기발

위대한 수령님은 붉은기
붉은기 휘날리는 세계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신념
그 신념 나래치는 기상은
꺾일줄 모르는 **김일성**민족의 모습

어찌 버릴수 있으랴
노래를 들으시며
수령님의 한생을 생각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결심하신다

- 수령님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이 있어 무엇하랴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김정일**이도 없다!

오, 세계여
수령님은 우리들의 운명
수령님은 우리들이 안고사는 붉은기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혁명의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마시라

2

내 때로 조용히
인간의 삶과 가치를 두고
생각도 많을 때 있어라
그러나 붉은 기발이여
네 앞에 서면
절로 머리숙여지더라

교생도 굶주림도
이 세상에 모르고 살아온 시인
배고픔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아득한 옛날의 일로만
다시는 이 세상에 없는것으로만
생각해온 사람

그러나 기발이여
아니할 말
내 여기에 적은것 같구나
어찌할수 없는
내 운명에 있어본적이 없는
그런 일을 말한다는것은
송구스러운 일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기발이여, 너는
눈보라와 굶주림!
죽음을 넘어온 년대와 년대들
아버이수령님 헤쳐오신
한생의 자욱이 아니냐

기발이여, 너를 보면
고난의 행군길이 떠오르더라
첨첨준령
허리까지 빠지는 장설우에
거마리처럼 달려드는 원썬들
하루길을 걸었어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던 깊은 원시림

우등불가에 쪽잠마저 그리웠고
한흙의 미시가루로
천만리길 때식으로 이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붉은기
너는 식지 않는 백두의 용암이었더라

겹쳐드는 죽음앞에서도
비겁한자야 갈라던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결심품고 떠난 길에
생 눈을 씹으며 주린 창자를 달래며
굶이지 않는 신념

철창과 단두대우에서
뼈속까지 스며드는
상처의 아픔을 안고도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붉은기 휘날리는 혁명의 심장을 지켜
스스로 허를 물어뜯으며

투사가 남긴 최후의 말도
붉은기를 더 높이 들리라!

그 신념에 받들려
붉은기와 삶을 일치시킨분은
우리 수령님
그 의리를 지켜
붉은기와 미래를 일치시킨분은
우리 장군님

내 오늘도
눈시울 적시며 전하는 이야기
기발이여
혁명가의 한생이
영생으로 빛나는것은
너를 지켜 신념을 굶히지 않는것
너를 안고 의리를 지키는것

아버이수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어찌하여 오늘 가슴을 더 치는가
조국은 광복했는데
나라를 찾자고 동분서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라를 찾은 오늘
제땅에서 지은 난알로
흰쌀밥을 한끼라도 나누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소원이 풀리겠다고
아버이수령님께서 늘 외우시던 말씀

백두밀림 만리광야
결전의 불바다와 행군의 긴긴밤
쓰러진 전사들의 추도문을 쓰시며
빙설천지에 묻으며
약속을 남긴 고장들을 어찌 잊었으랴

붉은 기발이여
너의 한치한치를 물들인
이 나라 아들딸들의 붉은피가 가슴아프시여
사랑하는 전사들의 모습
다 어디로 갔는가
아시면서도 모르시는듯 물으셨구나
아, 우리 수령님

목숨처럼
조국의 한줌 흙을 품고 싸우던
그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다시 찾은 제땅에서 지은 난알로
흰쌀밥 한끼라도 나누고싶으신 소원을

한평생 안고계셨구나
아, 우리 수령님

로동의 결실로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자유로운 참세상을
인민에게 주시고
수천년 노예의 멍에를 풀어헤친
주체의 기치를
인민의 삶으로 펼쳐주신
인류의 태양

위대한 인간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소원을
우리의 장군님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붉은 기발로 펼치시였어라

목숨바쳐 지킨 신념
목숨바쳐 지킨 의리인
그 붉은 기폭에 감싸안아
어버이수령님 찾고찾으시던
전사들의 모습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셨어라

오, 우리 수령님
그 몇번이고 이 언덕에 오르셨던가
사랑하는 전사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붉은기앞에 오래오래 서계셨던가

조국이 광복되면
쓰러진 전사들을 다 안아다
고향땅에 묻어주리라던
피눈물의 약속이
수령님의 그 언약이
붉은기로 휘날리고있었어라

푸른 솔밭속에
거세찬 바람을 안고
붉은 대리석이 기발로 불타고있어라
최후의 순간에 놓지 않고간
투사들의 그 넋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기치로 나뭇기고있어라

그래서였던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리던 민족의 절통함이
사람들의 가슴에 차고넘치던

1994년 7월 8일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세계를 잃고
사람들 땅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던 그 나날

수령님 다시 일어나시라고
수령님 가지 마시라고
인민이 몸부림치고 태질하며
바라고 또 바라던 소원
천만가지 꽃에도 담고
천지조화 자연의 신비경에도
꿈같이 비겼건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조용히 누워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마지막으로 드릴수 있는것은
수령님의 한생의 총화인
오직 이 붉은 기폭뿐
인민이 바라는 영생으로 드린것은
백두에서 안고오신
오직 이 붉은 기치뿐

눈시울이 탄다
기발이여, 너를 보면
위대한 수령님 지금도
가슴에 안고계시는 너를 보면
조국의 생명이 네가 아니냐
조국의 미래가 네가 아니냐

3

낮이나 밤이나 그 언제나
비오고 눈내리는 그 언제나
당중앙청사우에
붉은기
우리의 당기발이 나뭇기고있다

마치와 낫과 붓을
이 세상 처음으로 새긴
혁명의 기치
창공에 솟아 빛을 뿌리며
인민을 이끌어온 혁명의 기치

그 길엔
우리 수령님
땅없는 농민들에게 제땅을 준
토지개혁의 봄날이 있었고
그 길엔
이름없는 노동자들의 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시던
잊지 못할 밤도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용광로 철탑을 일떠세우는
연공들에게 신심높이 나아가자시며
인민을 안아 일으키시던 수령님

그날에 심어주신것
그것은 버릴수 없는 우리의 사상
그것은 꺾을수 없는 우리의 신념
그것은 가야 할 우리의 미래였거니

그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온 우리 혁명이라면
그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강령을 작성한 당이라면
우리 오늘처럼
머리를 높이 들고 살지 못하리라

공장의 구내길을 걸어봐도
우리 수령님
공업화의 지름길을 열기 위해
함박눈을 맞으시며
전기로앞에 늘 서시였던 땅

청산리의 두렁길을 밟으며
한그루 버드나무아래 서보며
수령님의 로고에 눈시울 젖어드는것
진정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업기풍과 사업방법을 몸소 창조하시며
농민들과 같이 앉으셨던 명석자리여

우리 수령님 제일 싫어하신것은
관료주의
세도를 부리는것
우리 수령님 제일 좋아하신것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주는것

대안의 가을하늘아래
찬바람도 헤치시며
공장의 생산형편도 알아보시며
우리 수령님
그 몇밤을 지새우셨던가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
자본주의기업관리체계를 없애고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창조하는 길
인민이 주인이 되어 생산에 참가하는 길

우리 수령님
그 길을 열으셨다
대안의 사업체계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과학적공산주의 기업관리체계를
우리 수령님 밝혀주셨다

내 오늘도
우리 당중앙 청사우에
붉은 기발
우리의 당기를 우러르며
마치와 낫과 붓을
다시 안아보는 마음

그 어느 세기
그 어느 기발에
마치와 낫과 붓을
함께 안은적이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주체의 가치
우리의 당기발에만 새겨져있어라
마치와 낫과 붓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에 살
인간의 참모습을 새겨안은
우리의 당기발을 바라볼수록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와
눈시울이 젖어들어라

우리 수령님의 손길
우리의 붉은기아래에선
버림받은자 없고
제갈길 혼자 가는 사람 없어라
우리 수령님의 손길은
천만사람을 다 안아주는
태양의 품
사랑의 품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혁명하는 길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안아주는 품

하기에 우리 수령님
돈있는 사람을 떼어버리고

지식있는 사람을 멀리하며
붉은 기발의 순결성을 켜치는 자들에게
준절히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고
한마디로 사상을 기본으로 본다고

비록 돈 있고
부유하게 살았어도
그가 인민을 사랑하고
그가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버릴수 없다고

오, 천이더냐 만이더냐
우리 수령님
태양의 손길을 따라
저 붉은기아래
로동자, 농민과 함께
한모습으로 선
이 나라의 꼭절많은 인생들은...

어머니가 있어
생의 태줄은 끊었어도
돈 가지고도 사지 못한 자주
짓밟혀 누리지 못한 자주
우리 수령님 계시어
인간의 삶으로
똑같이 받아안지 않았던가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인덕정치
우리 장군님의 손길은
광복정치
그 사랑, 그 손길아래
한점의 그늘도 모르는 우리

언제였던가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너도나도 기쁨에 넘쳐
너도나도 행복에 겨워
기념촬영을 할 때
빈방에 홀로 앉아있던 사람이 있던것은

우리의 장군님
이 사실을 아시고 하시던 말씀
지금도 천만사람의 심장을 울린다
- 동무들, 생각해보았는가

수령님을 모시고 만사람이 기뻐할 때
빈방에 혼자 있었을 그 동무의 심정을...

그러시곤 마음 피로우시여
그러시곤 한 일군의 아픔을 헤아리시는듯
그 동무는 오랜 세월
수령님을 모시고 일해온 지식인이라고
다음번 기회에
수령님 제일 가까이에서 세워
기념촬영을 시키자고
사랑을 담아 하시던 말씀이여

아, 그 사상으로 위대하고
그 정도로 빛나고
그 인덕으로 뜨거운
태양의 빛을 지녀
우리의 당기는 붉은것

그 붉은 빛을 지녀
사회주의령마루에 서서도
후퇴와 답보를 모르는
계속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 우리 혁명의 기발

하기에 우리 수령님
《E.C》의 강령을 새겼던 기폭에
인류리상사회를 밝히셨어라
공산주의 이것은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고

하기에 우리의 장군님
우리 당의 강령으로 선포하셨어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이 인류리상사회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과학적인 길이라고

내 바라보고 또 우러를수록
절로 깊어지는 생각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인
백두의 붉은 기발은
김정일 형의 기발
21세기로 빛발치는 주체의 노을
막을자 그 어느놈이나

우리는
그 사상을
그 숨결을 목숨으로 지녀
천만이 총폭탄이 된
하나의 일심대오

우리는
그 심장
그 뿔뿔은 피방울로 고통치여
천만이 친형제
천만이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대가정

부러워하라
이 힘을 당할자
이 힘을 깨뜨릴자
그 누구나
우리의 붉은 기발은
이렇게 말한다

4

나의 동지들이여
10월의 눈부신 하늘
김일성 광장에 서니
격정에 사무친 이 가슴에
그리움이 못견디게 덮쳐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나를 용서하시라
당창건 50돐 경축의 광장
기쁨의 물결이 파도치는곳에서
수령님을 못잊어
또다시 눈물을 흘렸던것을

이날을 위해
우리 장군님 바치신 로고
비내리는 날 저 들길에 젖어있고
금수산기념궁전
대리석계단마다
한포기 푸른 잔디에도 어리어있다

이날을 위해
정녕 이 경축의 광장을 마련하시려
우리의 장군님
붉은기의 노래도 지도해주시며
어버이수령님을 꿈결에도 만나시던
그 나날은 얼마였던가

당창건 50돐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경축하자고 했는데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명절이 가까와올수록
가슴이 미어지여 하시던 말씀

- 수령님 계시지 않을 때

명절을 쇠다고 생각하니
애절한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장군님의 이 아픔을 아시였기에
꿈속에도 찾아오시여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안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고
그리고 따듯이 말씀하셨던가

우리의 장군님
얼마나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셨으면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며
만수대언덕우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치 걸어오시는것만 같다고
그리고 간절히 말씀하셨으랴

우리 장군님 한몸에 안으신
혁명의 중하
그것은 주체의 혁명위업
그것은 우리의 생명인 붉은 기치
목숨 버려도 놓지 못할
그것은 우리 당의 기치

가야 할 길 아직은 멀고
부닥치는 난관은 산악처럼 다가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인민이 그 뜻을 받들어
붉은 기치의 광장이 파도치고
인민이 그 손길따라
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붉은기의 노래가 하늘땅을 진감한다

세계여, 들으라
심장이 있거든
저 발구름소리 안아보라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기를
불패의 근위기발들이 웅위하여
성세되고 방패가 된 강철의 대오

새기라
우리 장군님의 결심을
- 이 **김정일**이가 있는 한
우리 당은 변색을 모르리라
우리의 붉은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우리의 붉은기는 위대한 주체사상
나에게 다른 길을 묻지 말라

위대한 그 신념
위대한 그 결심
경축의 광장에 폭풍을 안아온다
자애로운 장군님을 우러러
환호를 터치며 인민이 흘리는 눈물
붉은 기폭을 적신다

력사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순결한 눈물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감격에 흐느끼는 마음
걱정을 터치는 목갈림

장군님의 모습은
아버이수령님의 모습
높이 드시여 답례하시는
장군님의 손길은
아버이수령님의 손길
그 손길따라
인민은 일심의 대오
붉은 기치로 나간다

사람들이여
아버이수령님이 그리울수록
머리들어 붉은기를 더 높이 우러르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려거든
붉은기아래 다진 맹세
버리지 말라

좋은 날에
백천번 따르는것 보다
시련의 날

가사

죽음이 닥쳐오는 역경속에서도
그 맹세
뜨거운 피로 더해주는것
이것이 혁명가의 삶
이것이 혁명가의 영생

우리 영생을 사랑하기에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날뛰고
제국주의자들이 대포와 땅크로 덤벼들어
붉은기를 목숨과 바꾸지 않는다
붉은기를 몇푼의 돈에 팔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는
백두의 성스러운 기발을
우리는 받들리라
장군님 높이 드신
주체의 기치를

지구를 덮으리라
정일봉의 우뢰를 안고
룡남산의 맹세를 지켜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
붉은기로 우리 타번지리라

누리에 붙는 불이 되어
조국이며 전진하자
10월의 대축전장
김정일장군님 모시고 발걸음 뻗
이 영광 이 자랑을 안고
무적필승의 대오
일심단결의 대오
붉은기의 노래로 번개를 부르며
김일성민족의 기상을 세계에 펼치자!

백두산은 장군님의 산

최주원

삼천리 이 강토를 한품에 거느린
백두의 모습은 장군의 모습
눈속에도 향기론 만병초 꽃피우니
그 열정 봄날같아라
아 백두산은 장군님의 산

천하의 온갖 변화 한뜻으로 길들이는
백두의 담력은 장군의 담력
순간에도 번개와 우뢰를 불러오니

그 기상 신비로워라
아 백두산은 장군님의 산

광명성 솟아오른 고향집 여기 있어
백두의 정기는 장군의 정기
정일봉 그 이름 하늘가에 빛발치니
그 위용 영광떨쳐라
아 백두산은 장군님의 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전당의 당세포들

몇십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어은동에 깃든 사연이 우리 전체 당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당세포총회를 마련하시고 며칠동안 회의를 지도하시며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당생활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고장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문제로,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강화발전할수 있게 하는 문제로 보시였다.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본단위인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당세포의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어은동의 어느 밤나무골짜기나 어느 등성의 일목일초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생활과 더불어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연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세포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라고,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가 건전해야 하는것처럼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려면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안의 당원들이 사상·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사업에 대하여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할수 있으며 세포안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개 당세포들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충성심이 짙 찬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되여온 로정우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8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속된 당세포에서는 자녀교양문제와 관련하여 당세포총회를 하였다.

당세포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매우 분망하게 일하시는데다 회의안건문제가 자녀교양문제이다보니 후에 회의진행정형을 보고드리려고 그이께 당세포총회가 있다는것을 알려드리지 않았다.

후에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세포사업을 책임진 당원을 찾아가시여 자녀교양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세포총회라고 하더라도 세포안의 당원들은 다 참가하여야 한다고, 나역시 세포안에 소속된 당원의 한사람이라고, 세포에서 당회의를 하면서도 자기 세포의 당원에게 알리지 않은것은 잘못되였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생각을 더듬으시며 방안을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에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당원은 한가지 규률에 복종하여야 하며 평등한 자격으로 자기 당세포에서 당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당세포에 소속된 평당원으로 당생활을 성실히 하시면서 당조직관념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자신을 항상 평범한 당원들속에 세우시고 스스로 당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칙적이고도 겸허하신 품모는 당적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신 감동적인 사실에서도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멀리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실 때 있는 일이다.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은 방금 받은 통신을 가지고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갔다. 방은 비어있었는데 책상우에는 수많은 신문, 통신들이 놓여있었다. 그래서 다 보신듯한 신문과 통신은 거두고 그자리에 새 통신을 놓고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여 일군이 방금전에 가지고나온 통신과 신문들을 요구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몇장을 골라가지시었는데 거기에는 려외없이 《참고할것》이라는 그이의 친필이 적혀있었다.

다음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날에 가지고 가시였던 신문과 통신들을 도로 주시면서 이제는 당적분공을 수행했으니 가져가도 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적분공이라니!!)

일군은 놀라운 눈길로 책상우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월간국제정세개관》(당적분공)이라고 친필로 표제를 쓰신 두툼한 자료철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당원들과 똑같이 당적분공을 받으시고 수행하고계시었던것이다. 일군은 크게 감동되였다.

이런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고 분공에서 제외로 되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나는 세포내 당원들에게 정세를 알려주는것을 당적분공으로 자진하여 맡았다고 하시고는 조용히 웃으시였다.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튼튼히 수호하고 즐기치게 전진시켜나가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던 1991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우리 당을 그 어떤 바람이 몰아쳐와도 끄떡하지 않는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당 세포비서 강습회를 마련하시고 강습회참가자들에게 **《당세포를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이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당세포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성의 세포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호는 전당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고 전체 당원들의 심장이 높뛰게 하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숭배심으로 충만한 당원들은 장군님께 충성의 편지를 올리였다.

세상에 어지러운 바람이 휘몰아쳐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하며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맹세를 담은 편지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 조국이 있고 장군님의 건강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므로 장군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원의 인사를 담은 편지들이

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범한 당세포 당원들이 올리는 편지를 받으실 때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실 의지를 더욱 굳히시면서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당세포 당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이 담긴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녔던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덕천탄광 사동갱 고속도 굴진소대, 당세포 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평양 창전인민학교 1, 2세포 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평양지하상점 통성식료공장대대 당세포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김일성**동지혁명력사 1강좌 당세포 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음향학강좌 당세포 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평양산원 의료기구과 당세포 당원들이 받아안은 회답서한...

충성과 효성을 담은 편지들과 믿음과 사랑이 담긴 회답서한.

이 위대한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전당의 모든 당세포가 혈연적으로 이어져있음을 얼마나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마음속엔 전당의 당세포들이 다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검덕의 수천척 지하막창에서 쇠돌을 캐는 광부당원들의 수고도 일일이 다 알고계시며 부모들이 썼던 로앞에 서서 강철로 당을 억세게 만들어나가고있는 강선의 새 세대 용해공 당원들의 충성스러운 마음도 다 아시며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지식으로 당을 만들어나가고있는 온 나라 지식인들의 숨은 공로도 다 아신다.

나라일에 그토록 분망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지만 1992년 4월 어느날 동림땅의 한 당세포비서에게 은정어린 환갑상을 보내주시였다.

그 어떤 보수나 명예도 바람이 없이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당사업을 하는 당세포 비서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력영웅칭호도 높은 국가표창도 다 안겨주고계신다.

실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처럼 한없이 은혜로운 품을 떠나 무성하는 충성의 대오로 자라난 우리 당세포들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한없이 자애로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충성의 한길을 가고있는 우리 당세포들은 끝없는 활기에 넘쳐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청춘거리가 전하는 이야기

옛그제만도 록음질은 가로수들밑에서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던가싶었는데 어느새 가을에 접어들어 산에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기 시작했다.

끝없이 푸르른 하늘에서는 한낮의 태양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며 대지에 밝은 빛발을 뿌리고있다.

아버이수령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옥이 어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기든 손길들이 곳곳마다 달아있어 저 하늘의 태양도 이 땅, 이 거리에 처처럼 아낌없는 빛을 뿌리는것이 아닌지.

바라보이는것마다 우리의 눈길을 끌며 생각이 깊어지게 한다.

케도전차를 타고 정임다리우에 올라서니 우뚝 우뚝 키돋움하며 솟은 광복거리의 고층살림집들이 언뜻언뜻 비껴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고야 맙니다. 그는 특히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풀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해빛이 아롱져 웃는 저 창가들이 어떻게 솟아났던가.

인민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느님》이라고 하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시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의 자옥우에 꽃피난 변혁이였다.

드넓은 길 좌우로 휘날리는 기발식이며 원통식, 다각형묶음식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초고층살림집들이 해빛에 아롱지는 창문들을 빛내이며 솟아있다. 온 세계를 돌아보아도 이런 희한한 거리가 또 있을까 하는 자랑과 긍지의 감정이 우리의 가슴을 환희에 젖어들게 한다.

우리는 칠골립체다리밑으로 빠져 청춘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야산을 량옆에 끼고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이채롭게 둘러앉은 저리였다.

지난날 농촌소로길이었던 여기에 덩지 큰 건물들이 의젓하게 자리잡은것을 보니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눈에 삼삼 안겨온다.

어느해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오시여 일군들에게 그 나라들에 가보니 다른것은 부러운것이 없는데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다면 평양시에 중요한 국제행사들을 손색없이 할수 있는 여리가

지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큰 거리가 적은것이다, 평양시가 혁명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 수 있게 만경대쪽에 그런 거리를 하나 크게 건설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이 말씀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이 구상을 적극 지지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평양시에 현대적인 새 거리를 건설하겠다고 결의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광복거리와 청춘거리의 그 실제로부터 시작해서 건설전반을 진두지휘하시여 짧은 기간에 아름답고 현대적인 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시였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싶어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무시려 불면불휴의 온갖 정력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충성심이 낳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은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흠잡을데 없이 번듯하다.

2만 5천석에 달하는 관람석을 술술 우거진 야산의 자연기복을 따라 합리적으로 묘하게 배치하여 경기관람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 특색있는 서산축구경기장, 공을 추켜들고 금시 끝문을 향해 투사하려는 선수의 동작을 본딴듯 약동하는 기상이 풍기는 송구관, 건물을 버티고 서있는 기둥처리를 숨씨있게 한 룡구관과 12개의 경사기둥을 건물의 량옆에 각각 반쳐주어 배구그물을 형상한 배구관, 무게가 확 느껴지도록 꺾임선을 강하게 준 중경기관과 가벼운 곡선들을 살리고 기둥다리를 짧게 감취춤으로써 날아갈듯한 경쾌감을 주는 경경기관, 직선과 곡선을 잘 결합하여 물결을 표현해주는 수영관과 하나의 대형탁구관을 편상케 하는 탁구관, 깃털을 형상하여 시공된 바드민턴관, 조선의 기품이 느껴지는 태권도전당, 그 하나하나의 특색있는 건축물들을 여겨보느라니 이런 전변을 안아오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고가 우리 가슴 뜨겁게 한다.

1986년 3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뒤로 미루시고 송구관을 비롯하여 안쪽에 건설하게 될 체육시설형성도안을 보아주시였다. 그 도안에는 송구관이 다리를 뻗친 식으로 하고 건물의 높이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형성도안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이미 빙상관이 그런 방법으로 건설된것만큼 구래여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탁구관과 중경기관, 경경기관의 형성도안에서도 그런

도식화의 편향을 헤아려보시고 매 경기관들을 다 특색있게 형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자신들이 여러건의 형성도안들을 만들면서도 포착하지 못한것을 단 한순간에 헤아려보시고 조언을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성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첫 형성도안을 보아주신 때로부터 두달후 그이께서는 또다시 안골에 일떠설 체육시설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만족을 금치 못하시며 모든 형성도안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그대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건설도중에도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1988년 4월 어느날 현장을 찾으시고 력기관과 배구관, 탁구관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건물의 품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관적으로 너무 진한 색깔의 외장재들을 리용한 결과 전반적인 색조화가 잘 되어있지 못하였었다.

장군님께서는 력기관과 배구관의 채색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탁구관기둥을 연록색으로 채색하였는데 너무 밝은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한 건물에서는 여러가지 색깔로 채색하지 말고 같은 색계통의 색깔로 대조를 적당히 주어 채색하여야 건물이 무게있어보인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또다시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건축미학적안목과 비범한 예지야말로 진정 그 누구도 따를수 없음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88년 9월 3일 완공된 청춘거리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 또 하나의 크나큰 만족을 드리게 된것으로 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희한하게 펼쳐진 청춘거리의 전경을 둘러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청년건설자들과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친히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색있게 건설된 경기장과 여러 경기관들을 돌아보시면서 시종 만족하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안골체육촌의 경기관들을 다 특색이 있게 건설하였다고, 체육촌은 하나의 큰거리인것만큼 광복거리에 포함시킬것이 아니라 따로 떼내어 그 이름을 안골이 아니라 다른 새 이름으로 지어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쁨으로 빛나시는 수령님의 존안을 우러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건설을 위해 바치신 자신의 수고는 안중에 두시지 않으시고 이 동무들이 이번에 건설에서 마감건제도 많이 개발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시며 오히려 건설자들을 내세워주시였다.

이런 령도자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위대한 구상으로 건설을 착상하시고 그 형성도안까지 다 보아주시며 일떠설 건축물들이 특색있게 건설되도록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순간 뜨거운것을 삼키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안골체육촌의 이름을 《청춘거리》라고 지어주시고 이곳에 건설된 2만 5천석의 축구경기장을 《서산축구경기장》으로, 근 1,000여개의 방을 가지고 일떠선 30층호텔을 《서산호텔》로, 수도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합수목 야산우에 건설된 호텔을 《량강호텔》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정녕 이 땅을 돌아보면 그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한 이름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가.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여 오직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행복도 기쁨도 찾으시는분이시기에 이처럼 일떠서는 거리들마다,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 친히 이름까지 달아주시며 세상에 더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의 그 환하신 미소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자신께서 느끼시는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가슴 궁지로 부풀게 하는 훌륭한 체육문화기지를 바라보느라니 제26차 올림픽경기장상공에 휘날렸던 람홍색공화국기가 또렷이 안겨온다.

전승절아침에 미국땅 한복판에 존엄높은 내 나라의 기발을 휘날린 나어린 우리의 체육선수들.

그들은 이 사랑의 요람에서 자란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아니던가. 안겨지는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줄 아는 효성스런 우리의 새 세대들이다.

와, 와- 이곳저곳에서 가을의 소슬바람에 관람객들이 터치는 함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러나 부쩍부쩍 힘이 솟아올라오는듯하다!

아, 얼마나 좋은곳인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속에 마련된 체육문화의 대전당.

바로 여기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더욱 활짝 꽃피날것이고 예서 다져진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은 더더욱 만방에 빛날것이니.

수령님의 높은 뜻이 꽃피나는 내 조국,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는 세월의 끝까지 무궁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성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탐구는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

천재규

오늘 우리 인민들과 함께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ㄷ.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예술적탐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

원천이 없는 대하의 흐름을 생각할수 없고 씨앗과 뿌리없는 주렁진 열매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의 시원이 없는 혁명의 거창한 흐름과 빛나는 위업을 생각할수 없다.

당면하게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내세운 《**ㄷ.ㄷ**》의 강령이 장엄한 선언에 밝혀진 혁명의 주체적목적과 자주적 원칙이 바로 조선혁명에 처음으로 심어진 주체위업의 새 씨앗이며 원종인것만큼 작가들은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예술적탐구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도 바로 이 위대한 씨앗에서 뻗어나리고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도 바로 이 영생불멸의 씨앗에서 움트고 자라났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형상적탐구를 통하여 이것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예술적탐구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

초기 공산주의운동에서 곁절을 겪은 조선혁명은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전투적당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조선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작가들은 작품들에서 이때로부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였다는것을 생동한 사실에 기초하여 깊이있고 폭넓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작품들에서는 두루마기자락에 독립청원서를 싸안고 남의 동정이나 얻으려 다니며 났아진 연미복옥설에 《감자도장》이나 감추어 가지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받으려 다니거나 동포들에게서 《운동자금》이나 굶어다가 탕진하면서 뒤꼍방공담질로 세월을 보내는 다양한 인물형상들을 창조함으로써 그들로서는 진정한 대중운동의 거세찬 물결을 불러일으킬수 없다는것을 실감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예술적탐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한 문제에 대한 형상적해명이다.

《**ㄷ.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ㄷ.ㄷ**》의 강령은 우리 당강령의 기초로 되었고 《**ㄷ.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ㄷ.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ㄷ.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20년대 후반기에 라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결함들이 극복되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는 카뮈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이 력사적사실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더 심화시키면서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신의 힘으로 혁명적당을 창건한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예술적탐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시기를 형상화한 작품창작에서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문학창작에서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형상화 문제는 소설로도 할수 있고 시와 극문학을 통하여서도 할수 있다.

오늘 당의 위대성이 날을 따라 뚜렷이 과시되고 당을 따르는 인민의 충성심이 비상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력사적뿌리를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이 매우 활발해지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무게있는 형상화이다.

무엇보다도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형상은 정서의 열도가 비상이 강렬하고 그 세계가 숭엄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작품에 그려지는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풍격은 작가의 사색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시원중에서도 위대한 시원이 바로 《ㄷ.ㄷ》의 출현이며 이 위대한 시원으로부터 출발하였음으로 하여 가장 위대한 혁명으로 된것이 조선혁명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작품들에서 조선혁명의 이 위대한 시원이 열림으로 하여 자주의 대하가 용용히 굽이쳐 일기 시작하였으며 주체위업의 력사적진군이 개시되게 되었다는것을 론리적으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파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ㄷ.ㄷ》가 내놓은 사상, 이것은 력사의 여러 시대들중에서도 가장 높고 들끓는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통찰하고 생활의 가장 엄혹한 흐름속에서도 인민의 지향을 절감하고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탐색하고 발견하여 들어올리신 위대한 자주의 사상이라는것을 심오히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력사의 대상으로 버림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고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감명깊고도 의의있게 그려야 한다.

자주의 새 력사적창공에 첫 돛을 올린 그 아득한 기슭에서부터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으나 오늘도 《ㄷ.ㄷ》의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 세웠다.

우리 당은 또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ㄷ.ㄷ》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는것을 깊이있고 폭넓게 형상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당에 드리는 감사

변흥영

내 청춘의 혈기로
가슴이 뚫던 그 시절도 지났노라
당여, 그대의 첫 기발이
새 조선의 창공에 휘날린 그해
세상에 태어난 이 아들
너무도 큰 사랑만을 받아안으며
그대 품에 반백년을 살아왔구나

자식의 효도가
어머니의 사랑에 미칠수 있으랴만
내 진정 그대 위해 무엇을 바쳤던가
창건 첫날부터 험난한 길을 걸으며
그대 쌓아올린 그 성스런 위업에
내 한생이 작은 성돌로나마 고여졌던가

그대 피젖은 기발을 들고
미제와의 결전으로 나아갈 때
방공호 교사에서 첫 글을 익힌 아이
그대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재무지우에 인민의 집을 세울때
붉은넥타이를 달리며 행복만을 누린 소년

내 자라 청춘시절을 맞은 그때엔
당여 그대 자애깊은 손길로
탐사대의 깊은 산중에서
이름없는 로동청년을 대학으로 불러줬나니
위대한 맹세가 나래쳐오른
해쫓는 룡남산의 노을밑에서
나의 학창시절은 꿈같이 흘러갔더라

아, 그대 성스러운 기폭아래
나를 안아 세워주고
가장 고귀한 생명의 피줄을
내 심장에 이어준 입당의 그날
내 뜨거운 눈물에 젖어 우러른
당중앙창문의 밝은 불빛은
내 인생에 비쳐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의 빛이었던가

그렇다, 50년전 그날에 벌써
나의 밝은 앞날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창건해주신 당
준엄한 오늘에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불러 영원한 동행자로 세워주시며
우리 장군님 이끄시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

고마움에 젖어오는 눈길로
그대를 우러르며 생각하노니
당여 어머니당여
내 그대만을 따르며
한생의 총화로 깨우친것
그대는 나에게 무엇이던가

그대는 내 한생에
그 은혜를 다 갚을길 없는
영원한 삶의 은인
내 한생이 모자라 다 받들지 못하면
그 길에 자식들을 세우고
그 후대들을 세워서라도
길이 효성을 다해갈
우리의 아버지수령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감사를 드리노라
그대 아닌 그 누가 이 세월에
내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내 앞길에 해빛만을 비쳐줄것이나
사회주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것이나

감사를 드리노라
50여성상을 하루같이
내 삶을 그리도 따듯이 보살펴준
그 나날들의 고마움을 다 합쳐
내 행복한 날에 못다한 효성을
어려운 날에 천백배로 다해갈
그 불타는 맹세를 다 합쳐
당여 위대한 당여
그대에게 다함없는 영광을 드리노라

오, 믿어다오
그대를 결사옹위해가는 맨 앞장에서
성벽이 되어 서있는 이 아들을
언제나 기쁘게 찾아다오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웃으며 바치리니
내 심장에 뚫는 피는
그대의 붉은 기폭을 더 붉게 하리라!

명언해설

《인간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라는 사상을 밝혀주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이다.

그것은 혁명이 다름아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며 혁명을 하는 목적도 사람들을 위한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은 인간애에 바탕을 둔 사회적변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반드시 인간애를 가장 중요한 정신도덕적풍모로, 필수적인 사상감정으로 지녀

야 하며 이러한 고상한 인간적풍모와 뜨거운 사상감정이 없으면 혁명가로 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인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열렬한 사랑으로 만사람을 감화시키시고 사랑의 정치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라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해나가야 한다.

금강의 물줄기

진철현

연연 굽이쳐간
백리 물길굴앞에서
지하천리를 달려오는
물줄기 바라보니
불현듯 영웅전사들의 모습
가슴 뭉클 어려오는구나

산기슭 천막가에
배낭벗은 그날부터
수천척 지하에서
발파소리 울리고
암반을 가슴으로 밀며
헤쳐온 시련의 고비는 얼마

총대로 지키는 조국땅우에
아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고저
가슴과 어깨로
지하에서 물길을 열며
한치 또 한치

그 어디에 습배였느냐
버력을 지고 성차지 않아

가슴에 또 안고내달던
무명전사의 발자국은

그 어디에 물들었느냐
무너지는 암반을
잔등으로 떠밀어
전우들을 구원하고
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지휘관들의 그 붉은 피가

굽이마다 뜨거운 이야기들
끝마다 금별의 위훈 스며있는
금강의 물줄기는 자연의 물이 아니여라
그것은 일당백의 군인혁명정신
조국의 미래를 불러온 병사들의 숨결

오, 백리굴로 굽이치는 물줄기
그것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
김일성 민족의 도도한 삶의 흐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달리는
충신들의 열화같은 마음이어라

무지개대문

백두산고향집이 자리잡은 소백수몰에는 무지개가 자주 비끼군한다. 다른 고장의 무지개보다 칠색이 더 령롱하고 아름다운 정일봉의 무지개는 여름에만 비끼는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비끼는데 그 형태 또한 특이하고 다양하다.

쌍무지개가 비끼는가 하면 수직으로 선 무지개도 비끼고 지어 원형무지개, 두색무지개도 비낀다. 하늘나라 선녀들이 천상천하제일명산인 백두산에 내려오고싶어 자기들이 짝 가지가지 천을 늘어놓은것이 무지개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는것은 우연치 않다.

그래서인지 이고장 사람들속에서는 무지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는 울바자도 사립문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빛무지개대문이 있다고 한다. 하늘이 낸 절세의 위인이 탄생하신 고향집에 온 세상사람들이 찾아오라고 사립문도 울바자도 없으나 무지개대문만은 늘 활짝 열려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전해지기 시작한것은 백두산밀영이 개영된지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으신 다음부터라고 한다.

장군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신 날 백두산밀영의 강사인 정순이는 해산에 있는 집에 갔다오느라고 한낮이 되어서야 숙영소에 돌아왔다. 그러다나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퍼그나 늦게 알게 되었다.

처음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정순이는 심장이 멎는듯하였다. 오매불망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시는데 자기만이 그이를 맞이하지 못하는것만 같았던것이다.

막내딸인 정순이가 보고싶어 언제부터 왔다가라는 어머님의 독촉에 못이겨 집에 갔던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랐다. 합숙에 가방을 놓고 정순이는 불이 나게 고향집을 향해 달려올라갔다. 반달음으로 종종걸음을 치는 정황속에서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은 시커먼 먹장구름으로 짝 뒤덮어있었는데 후둑후둑 비방울까지 떨어졌던것이다.

《하늘두 참 오늘은 좀 맑아주렴.》

그런데 두주먹을 부르쥔고 달려가던 정순이의 걸음은 점점 떠지더니 그자리에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정일봉을 감돌아흐르는 소백수가 갑자기 신기하게도 철썹철썹 물갈기를 날리며 물결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물가의 나무들에 한여

름철인 때도 하얗게 서리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멈춰서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은가루를 붙인듯한 서리꽃이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꾸르릉! 하는 우뢰소리가 나면서 소백수몰로 밝은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것이였다.

《아!-》

정순이는 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영?》

정순이는 또 한번 놀랐다.

백금같은 태양이 빛을 뿌리는 정일봉의 하늘우에 찬란한 무지개가 비낀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오시는것을 알고 하늘이 무지개대문을 세우고 땅이 때아닌 서리꽃을 피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순이는 장군님께서 오시기전에 어서빨리 가려고 또 달음박질을 쳤다. 이때 소백수몰안에서 만세의 환호소리가 터져올랐다.

(웬일일가? 아직 장군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는데.)

정순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빨리 달려갔다.

고향집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길 하나뿐인데 아직 승용차도 한대 지나가지 않았으니 장군님께서 오실리는 만무했다.

정순이가 숙영소자리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장군님!》

정순이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자리에 서버렸다. 어느새 장군님께서 오신것이였다. 어느 길로 어떻게 오셨을까?

꽃대문을 해세우고 그이를 맞이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정순이는 이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장군님 가까이로 달려간 그는 온몸이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사령부와 고향집을 돌아보시고 박우물도 마셔보시며 깊은 감회에 잠겨 계시었다.

구호나무까지 다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정순이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과 방금 작별인사를 하신 장군님께서 자오희한 안개에 휩싸여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만세의 환호소리가 하늘에 닿았으나 누구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다.

하늘엔 여전히 령롱한 무지개가 비껴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무지개를 타고 가셨구나.》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제야 정순이는 장군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오셨을가 하는 의문이 풀리였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오실 때도 무지개를 타고 오셨구나.)

그는 언젠가 여기서 멀지 않은 조천자골에서 사는 한 로인이 들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해방전 포수였던 그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짐승사냥을 하려고 소백산근방에 자주 다니던 그는 해방되기 몇해전 어느날 소백수골에 령롱한 무지개가 비낀것을 발견하였다.

《히야!-》

로인은 무지개가 칠색이 뚜렷하고 너무도 아름다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색채운이 시리고 류달리 밝은 해빛이 소백수골을 비치고있었다. 꿈이 아닌가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모든것이 분명하였다.

아무리 천변만화하는 백두산날씨가 한들 이런 광경을 펼쳐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자세히 보니 무지개는 마치도 소백수골로 들어가는 대문처럼 보였는데 얼마후 그것이 점점 더 커지더니 장수봉(오늘의 정일봉)하늘가에 커다란 무지개로 변하여 비끼는것이였다.

그후에도 오래동안 내내 소백수하늘가에 무지개가 비껴있었다.

가끔 무지개가 사라지곤하였는데 그것은 잠깐이고 다시 무지개가 걸리곤하였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무지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광복된 다음에도 세월이 퍼그나 흘러서야 그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무지개가 비끼고 채운이 서리고 흰서기가 골안을 가득 채웠던 그날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였고 무지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그때가 장군님께서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고 소백수골을 떠나가신 날이였다고 한다.

로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고향집에 오시면 다시 그 무지개가 금빛대문으로 빛날것세.》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무지개가 나타난것이 아닌가!

정순이는 그 로인의 말이 신통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로인의 말은 후에 사실로 더 증명되였다.

그때부터 고향집에 장군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무지개가 비끼곤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장군님의 탄생일이 다가오면 며칠전부터 쌍무지개가 비끼곤하였다.

그이를 기다리는 이 고장사람들의 념원이 그대로 무지개가 되였는지 아니면 하늘이 그이의 탄생을 축하하여 무지개대문을 세우는지 하여간 무지개는 해마다 빠짐없이 서곤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무지개는 더 자주 서곤하였는데 어떤 때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원형무지개까지 비끼곤하였다.

어느해 2월에는 삼지연군에서 포태에 이르는 긴구간의 상공에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비끼여 2월의 명절을 앞둔 우리 인민을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때 삼지연군 일대에는 0.6메터이상의 깊은 눈이 쌓여있었고 찬날씨가 계속되고있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 바람이 잦아들고 맑게 개인 동녘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삼지연-포태상공에 칠색령롱한 쌍무지개가 생겨나 먼곳에서 보면 마치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축하의 꽃대문을 세운듯한 황홀경을 펼치였다.

삼지연못에서 뻗어오른 아름다운 쌍무지개는 다른 한끝을 포태쪽에 두고 아침 8시부터 40분동안 계속 비껴있었다.

쌍무지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축하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로 보였다.

2월중순아침에 이곳에 쌍무지개가 비낀것은 희귀한 현상이라고 한다.

여름도 아닌 겨울에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기온이 제일 떨어지는 삼지연일대에 쌍무지개가 생겨난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기상학자들은 말하고있다.

그렇지만 백두산의 자연은 2월의 명절을 앞두고 희귀한 기상학적현상을 나타내였다.

사람들은 이 무지개가 바로 고향집의 무지개대문인데 보통때는 보이지 않다가 경사스러운 날을 맞으면서 자기 자태를 드러내준다고 하면서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장군님께서 천상천하 제일명산인 성산 백두산에 내리실 때 하늘나라 선녀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짠 천으로 아름다운 색깔의 줄사다리를 만들어 늘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다리라는것이였다.

이 무지개다리는 후에 대문으로 변하였는데 나쁜놈들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마다 2월이 오면 어김없이 비끼곤하는 정일봉의 무지개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비스러운 전설을 낳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대학찬가

류명호

얼마나 뜻깊은 날이나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하많은 추억들을 펼치며
창립 5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이여

푸른 숲 우거진 룡남산마루
그아래 층층 처마를 잇대이고
대교육도시로 펼쳐진 종합대학의 거대한 웅자
그 어데를 바라보아도 수령님 생각
그 어데를 걸어보아도 장군님 생각

해방후
그 어려웠던 나날
종합대학이 먼저 일어서야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기에
우리 수령님
대학건설로부터 건국을 시작하시였거니

말해다오
그때로부터
장장 50년 역사를 기록한 대학이여
너는 교육사업으로부터 건국을 시작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건국철학이 낳은
세기에 불멸할 대기념비가 아닌가!

수령님 존함으로 높이 솟은 종합대학은
장군님 업적으로 누리에 빛나거니
아직은 대학의 숨결이 고르롭지 못하던 그때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사대와 교조의 거품을 밀어내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게 하신 우리 장군님
그 향도의 자욱은 층계마다 새겨져있어라
그 예지의 빛발은 글줄마다 어려있어라

교사와 도서관 기숙사와 식당...
교정길과 운동장...
그 어데를 바라보고 걸어보아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이 깃들어있으니

오, **김일성**종합대학은
달리는 달리는 말할수 없는
주체교육의 대전당이여라!

여기서 자라난
나라의 대들보들은 얼마나 많으나
여기서 육성된
혁명인재들은 얼마나 많으나
우리 수령님의 기쁨이고
우리 장군님의 자랑인 **김일성**종합대학

수령님을 떠난
종합대학의 존재란 있을수 없고
장군님을 떠난
종합대학의 미래란 있을수 없거니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수령님
천추만대 조국과 혁명앞에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여라
우리 장군님
대를 이어 품어주시고 꽃피워주시는
영원한 태양의 대학이여라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사나운 광풍이 몰아쳐도
김일성종합대학은 영원히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제1선에서 받드는
사회주의 붓대
장군님의 붓대로 솟아있으려니

오!
창립 50돐을 맞는
나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여
너의 반세기 력사우에
세월이 흘러흘러 5백년 5천년이 된다 해도
너는 주체교육의 대전당으로
영원히 솟아 빛을 뿌리리라!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역사와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이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입니다.》

김정일

수기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서 저의 한생이 꽃폈습니다

채희국

이 글의 필자인 **김일성** 종합대학 채희국강좌장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나라의 유능한 력사학자로, 교육자로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여왔다.

《**김일성상**》제관인, 후보원사, 교수, 박사의 영예를 지니고 선생이 보내온 생의 하루하루는 우리 지식인들의 지혜와 재능이 어디에서 샘솟고 꽃피어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편집부는 받아안은 사랑과 행복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선생이 생존시에 적어두었던 수기를 **김일성** 종합대학창립 50돐을 맞으며 발표하기로 하였다.

편집부

해방전 남조선에서 출생하여 《아빠》라는 낱말조차 익히지 못한 세살나던 때에 아버지를 잃었고 먹을것을 입에 넣어준적보다는 세상살이에 대한 짜증과 분풀이로 저에게 매일과 같이 꾸중을 하고 매를 든적이 더 많은 어머니마저 11살에 잃은 저는 이 세상 인간의 설움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힘든 설움-고아의 설움과 식민지노예라는 2중 설움을 안고 이집저집 동냥으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인간이 걸어온 길을 거슬러 편답하는 력사학자가 될 꿈을 가진것은 모순과 환멸로 찬 사회악이 가져다주는 불행속에서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행패를 체험하던 중학시절부터였습니다.

그 시절 학교 소고수였던 저는 일본노래장단대신 물래 조선민요장단을 쳐보다가 왜놈교원에게 매를 맞은 일이 여러번 됩니다. 기타로 울밑에선 봉선화와 눈물에 젖은 두만강, 황성옛터에 대한 구슬픈 노래도 타고 때로는 배구장에 뛰어들어 애꿎은 배구뿔을 땀다 조기며 왜놈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파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짓밟히기만 한 민족이였는가?

이런 분노가 나를 력사탐구의 길로 떠밀었던가 봅니다.

하여 천대와 멸시가 그림자처럼 따르는 고학과 가정교사생활로 푼돈을 벌며 경성제국대학의 문전을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꿈은 컸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저는 력사학탐구는 고사하고 일자리조차 얻을수 없었습니다.

사정은 해방후 남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력사를 연구한다는 죄아닌 죄로 박해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돼오던 제가 마음속에서만 피워 올리던 구름같은 꿈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었던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서부터였습니다.

인생의 진미를 맛보며 력사학탐구의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1958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있던 저는 뜻밖에도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성산유원지건설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왜 고고학자를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던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참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대성산에 유적유물이 많은데 그냥 유원지를 건설하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다 묻히고만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유적유물을 더 발굴하고 원상복구하여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대성산의 력사를 들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민족애와 미숙한 력사학자를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문적인 고적발굴대를 조직하여 유원지건설기간 고적을 다 살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이 짧은 기간에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유물발굴사업을 끝내였을 때에는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면서 부족점도 일일이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언제인가는 제가 《조선통사》를 서술하면서 고조선의 유적유물발굴문제로 하여 고충을 겪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3년동안이나 그 유적이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직접 가서 발굴사업을 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저에게 력사학연구에서 구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할데 대하여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왕 무덤인 동명왕릉에 대한 조사 발굴사업이 기성리론의 테두리에서 맴돌면서 전진을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력사문제를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결부시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어 동명왕릉은 오늘과 같이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무덤이 발굴되고 단군릉으로 새롭게 개건되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한갓 전설적인물로만 전해내려오던 전문가들의 표상을 지워주시고 단군릉을 개발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단군릉의 위치까지 새로 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까지 들여 웅장하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는 평양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중심지는 바로 평양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이 땅에 오랜 민족의 력사를 자랑하는 그 어느 나라도 원시조의 무덤이 력사학적으로 발굴고증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구와 령토의 크기를 자랑하는 나라도 원시조의 무덤이 아니라 근세기 한대 왕의 무덤을 놓고 소리를 치고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는 나라도 왕의 무덤을 형식으로만 세워놓고 숭상하고 있을진대 동방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건국시조의 실체한 유적유물을 찾아내었으니 이보다 더 큰 민족의 자랑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아버이수령님은 반만년의 력사상 그 어느 유명한 력사가도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원시조까지 찾아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 조선의 거세찬 힘, 민족의 지위를 세계만방에 떨칠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유구한 조선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궁지높이 전할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력사학자들을 이끌어주시었을뿐아니라 저의 일신상문제와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살려주신 친아버지이시였습니다.

1989년 4월 어느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제가 이발이 빠져 발음이 정확치 못한것을 헤아려보시고는 마음을 쓰시면서 현지도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큰 병원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채박사가 앓아 나이에 비해 펍 늙어보인다고 하시면서 저의 틀이를 잘 맞게

해주라고 수치의 말씀을 주시고 실무적인 대책까지 취해주시였습니다.

이발을 다 해넣은 얼마후에는 《8만대장경》을 비롯한 유적유물을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이발을 해넣고 제낀 옷을 입으니 한결 젊어보인다고 못내 기뻐하시는데였습니다.

제가 친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어린애의 심정으로 과분함을 억제 못하고 옷자락만 주물고서있는데 아버이수령님께서 채박사와 같은 력사학자들은 매우 귀중한 로학자들이라고, 이들과 같은 권위있는 로학자들이 없으면 우리 나라 력사도 제대로 찾아낼수 없다고 크나큰 믿음이 담긴 말씀까지 하시는데였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발이 든든한것은 오복중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그 복을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받아안았으니 저는 정말 복중의 큰 복을 받은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더울 여름철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쉬임없는 현지도도의 길을 가시던 어느날엔가는 귀한 민족음식이 생겼다 하시며 색다른 음식을 놓고 자식 생각에 수저를 들지 못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멀리에 있는 저를 친히 부르시여 동석식사까지 마련해주시던분도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아버이의 사랑속에 자라난 지나온 나날들을 증견해주는 귀중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당과 국가의 주요행사때마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나라의 이름난 공로자들만 서는 영광의 앞자리에서 《김일성상》을 번쩍이며 서있는 미숙한 력사학자, 위대한 스승을 모신 특전이 마치 제 혼자에게만 있는듯 한껏 넘치는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이수령님곁에 친진스레 서있는 평범한 로학자...

저의 집 방안벽면이 모자라게 가득차있는 이 기념사진들속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었을 때 저의 가슴은 정말 칼로 찢기우는듯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나라의 력사와 관련되는 대중소사의 토의에 선참으로 불러주시며 저와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학문의 막혔던 물목도 터쳐주시던 위대한 스승, 외국수반들을 만나시는 자리에서나 일군들앞에서 저를 곁에 세우시고 우리 로박사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도 해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저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아버지복이 있는 행운아인 저에게는 또 한분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계시었습니다. 그분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십니다.

모색도 인품도 자질도 아버이수령님 그대로이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베풀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저를 우리 로박사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를 이끄시는 분망하신속에서도 몸소 개진된 단군릉에 나오시여 우리 력사학자들에게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비롯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고 《**김일성상**》 계관인으로,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뜨겁고 강렬한 사랑도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랑이 대를 이어 우리모두를 품어주고 지켜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존해계실 때 어느날 저에게 중국의 진시황병마모형박물관을 보았는가고 물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보았으나 새로 병마모형박물관을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올리는 저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좀 휴식을 할겸 관광삼아 중국에 가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온 나라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느라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사실까지 잊지 않으시고 몸소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여담삼아 하신 말씀도 유훈으로 높이 받드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정말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십니다.

제가 남조선에 있었다라면 일생을 값없이 그들속에 시들어버린지도 오랬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운명을 건져주시것만도 그 은혜를 갚을길 없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년전 제가 현대의학에서 사형선고라고 하는 불치의 병으로 앓고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나라의 권위있는 병원들과 의사들을 동원하시여 대수술을 조직해주시고 저를 위하여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값비싼 최신형 의료설비를 들여와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진정 저의 친부모도 온전히 만들어주지 못한 이목구비와 체모를 바로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부럽지 않게 완성시켜주시고 이 세상 모든 영예와 존엄을 안겨주시니 저야말로 북중에서도 제일 큰 복을 받은 수령님의 제자, 수령님의 자식입니다.

다 죽었던 저를 소생시켜주시것만 하여도 대를 두고 갚을길 없는 은정인데 사려깊은 손길은 저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던 한가닥의 그늘마저도 다 가져주시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저에게는 서울에 두고 온 딸자식이 있었는데 그애의 생사여부를 모르는것이 늘 마음에 걸

려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서울에 살던 안해가 저를 찾아 북행길에 오를 때 따라가겠다고 울며 발버둥치는 4살난 철부지에게 강냉이 한이삭을 쥐여주며 두밥자고 온다고 달래여 남기고 온 딸이었습니다.

북남으로 갈라져 40여년 기나긴 세월에 얼마나 만나길 학수고대하던 딸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커다란 슬픔으로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일군을 통하여 저의 이 마음속사연을 헤아리시고 제 딸자식의 행처를 알아보도록 하시였으며 멀리 타향만리에서 살고있는 그애의 행처를 알아내시였을 때에는 또다시 부녀간의 감격적인 상봉을 마련해주시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네번이나 더 변했을 그세월의 흐름속에 죽은줄로만 알고있었고 그 모습조차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려 했던 딸자식을 모래불에서 금싸라기마냥 찾고 또 찾아 부녀간의 상봉의 기쁨을 마련해주시니 진정 그 애의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겠습니까.

50이 다 되도록 조국을 위해 벽돌 한장 쌓아올린 일이 없는 저의 딸이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동안에는 당에서 직접 보살펴줄데 대한 은정넉친 배려를 돌려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먼곳에 떠나보내는 자식을 위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귀중한 보약재들과 사랑의 선물까지 한아름 안겨주시니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모순에 찬 현실만을 보아온 저의 딸은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전 기간 정말 분에 넘치고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온 가정이 두분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얼마나 궁지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가를 가슴벅차게 느끼고있습니다.

하기에 항상 고마움에 북받쳐있는 저는 때없이 이런 시를 읊군합니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지금 내 나라의 남너로소가 너도나도 즐겨 위우는 이 시구는 그 누구의 마음보다도 이 로학자의 진정을 절절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도 있고 저도 있고 저의 후대들도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것입니다.

룡남산

리정수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 그 어딜 가도 명산들이 솟아 제 나름의 기상과 절승경계를 떨치고있다.

하지만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리잡은 룡남산에 정이 들었고 이 나지막한 야산을 세상사람들에게 자랑하고싶은 충동으로 때없이 가슴들먹이곤 한다.

룡남산기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교편을 잡고있기때문인가?

지금은 삼태성도 한껏 기울어진 깊은 밤, 나는 홀로 룡남산기슭을 거닐고있다. 바야흐로 창립 50돐을 맞는 종합대학의 거대한 웅자가 하늘의 못별들과 이마를 맞대고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 가싶다.

룡남산마루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다시금 우르르니 대학이 걸어온 영광에 찬 로정과 더불어 빛나는 그이의 령도자육이 뜨겁게 젖어드는 망막속에 어려온다.

조국광복의 환호성이 이 강산에 차고넘치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역의 혼적인 양 폐기발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잡초가 무성한 룡남산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록이 길어가는 모란봉을 감돌아 유유히 흘러가는 대동강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머지않아 이 땅에 인재의 용융한 대하가 저 풍만한 대동강의 물결처럼 흐를것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걸아닌 길을 헤치시며 대학이 자리잡을 터전을 보아주시고 새 조국 건설에서 첫째가는 과업은 민족간부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주체교육의 위대한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갓 창건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가 상정되었고 온 나라 농민들이 부여받은 제땅에서 농사지은 쌀을 애국미로 신고 평양으로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 지성어린 애국미는 고스란히 대학의 터전을 다지는데 돌려졌다.

람루를 걸치고 이국의 거리를 향방없이 헤매던 학자들과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반감을 품고 서재에 파묻혀 두문불출하던 남조선의 지식인들이 사랑의 《위촉장》을 받아안고 앞을 다투어 룡남산기슭으로 모여왔다.

드디어 **김일성** 종합대학이 력사적인 창립을 선포하던 1946년 10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개교식장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룡남산

기슭에 거연히 솟아오른 대학청사를 감회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종합대학은 광복을 맞이한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선참으로 안겨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이제는 조상대대로의 상속물갈던 무지와 몽매에 종지부를 찍자고, 룡남산에서 주체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혁명인재들을 비온뒤의 참대순처럼 키워내어 주체혁명위업을 온 나라 방방곡곡에 꽃피우자시며 사람들에게 황홀한 미래를 펼쳐주시였다.

룡남산은 이렇게 력사의 절정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주체교육의 거창한 뿌리를 지심깊이 내리고 룡남산은 이날부터 온 나라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전설속의 천리마가 네굽을 안고 나래치던 1960년 9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서 혁명활동의 자욱을 룡남산마루에 찍으시였다.

그이께서 산마루에 오르시자 마침 떠오르는 아침해가 대학의 창가들에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었다. 또 한분의 위인을 맞이한 대자연의 축복이런가 교정에 그윽한 꽃향기, 나무잎 설레임소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룡남산의 해돋이를 뜻깊은 안광으로 굽어보시며 태양의 위업을 해빛으로 이어받들어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신념과 의지가 누리에 빛발쳐간 룡남산마루!

나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창시절을 보내시며 주체교육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령도의 자욱자욱들이 승엄하게 안겨온다.

잊을수 없는 학급세포총회며 세나라시기의 력사에 대한 천재적인 고증, 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서 울려퍼진 창조와 건설의 힘찬 노래소리, 천태만상의 인간생활에 수놓아진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들...

돌이켜보면 인류문명이 눈을 뜨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대학들이 생겨나 제 나름의 진리와 정신물질적진보를 추구하여왔던가. 수백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고색창연한 대학도 많고 방대한 부지와 우람찬 교사들로써 그 위풍을 뽐내는 대학도 수도무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종합대학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의 첫걸음과 함께 일떠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대를 이어 령도의 자욱을

빛내여오신 그런 대학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나는 생각깊어진 눈길로 은은한 불빛속에 안겨
오는 정다운 교정의 구내길이며 교재림 그리고
교사들을 바라본다.

참으로 대학의 강의실과 길가의 꽃밭에도,
이 룡남산기슭의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체취가 스며여있는것
이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들의 삶과 학업의 산 교과
서이며 과학과 기술, 진보와 문명의 이정표가 아
니겠는가.

그렇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대학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으로 하여 후손
만대에 자랑 떨치는 주체의 대학, 번영하는 종합
대학으로 그 이름 길이 전해질것이다.

하여 룡남산은 어제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안고 력사의 증견자
로 솟아 빛나리라.

어느덧 밤은 지새고 룡남산마루에 아침노을이
비끼기 시작한다. 동녘하늘을 점점 붉게 물들이
는 아침노을!

미구에 룡남산은 또 하루의 찬란한 해돋이를
맞이할것이었다.

발자국소리

김명길

오늘도 그 몇번이던가
크고작은 발자국소리로
당위원회-
이 방에 들어서고 나간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래우건만
그들의 발자국소리에서
마음의 무게를 헤아린적 있었던가

생각되여라
군복입은 막내딸 앞세우고
청사가 쿵쿵 울리도록 달려와
병글거리던 박동무
그 소식 처음 안것이 나였고

들릴가말가
문두드리고 들어와
대학다니는 아들이 파오를 범했다며
고심의 흔적인듯 흐트러진 머리를
들줄을 모르던 최동무
그 소식 처음 안것도 내가 아닌가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 당해도
때없이 찾아와
자식들앞에 감추었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터놓는
이들의 꾸밈없는 진정
내 속에 없는 얼굴표정으로
외면한적은 없었던가

돌이켜보노니
얼굴에 어린것 웃음이어도
가슴에 패인 상처 그대로 안고
투덕투덕 멀어져간

남모르는 사연 안은 발자국은 없었던가

책상우에 일감이 쌓여있고
문돌쩌귀에 불이 일 때엔
후날 만나자 웃으며 보낸 그날
책상우에 일감은 없어졌어도
버르다 찾아왔을 그들을 떠밀어보낸 일이
오히려 더 큰 일감으로 가슴에 쌓아졌거니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섰다가
가벼운 걸음으로 가야 할 길을
망설이며 왔다 가슴펴고 나가야 할 문을
되려 무거운 짐을 지어 내보낸적은 없었는가

당조직을 찾아 이 방에 들어서는 사람들
정겨운 어머니 그 부름소리를
마음속에 안고 들어서기에
이 방에서 나가는 사람들
어머니 사랑의 그 의미를 뜨겁게 새겨안고
나가야 하기에

내 오늘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투정섞인 말투에서
사람들의 뜨거운 정을 느끼며 생각하노라
어찌하여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부르는지
내 얼마나 큰 믿음 안고 사는지...

그 믿음 심장에 안고 살리라
하여 어딘가 의지하고싶은 걸음엔 고임돌 되고
보폭이 작은 걸음엔 힘을 주어
장군님 따라가는 우리 혁명의 천만대오속에
높고낮은 소리 없이
오직 하나된 발자국소리만이 쿵쿵 울리도록

우리의 혁명문학이 태어난 로정을 더듬으며

참가자들

강능수; 4.15문학창작단 단장

송찬웅; 《김일성상》 계관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류 만;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부소장, 박사, 부교수, 공훈과학자

리동원;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본사기자

본사기자; 우리 혁명의 거대한 사변으로 수놓아진 10월의 광장에 들어선 우리모두는 끝없는 걱정속에 깊은 감회를 안고 우리 당의 빛나는 년륜을 더듬어보고있습니다.

시대를 노래하고자 사색을 모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시각 누구보다도 추억의 바다가 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능수; 10월은 누구에게나 한없는 기쁨과 자랑이 샘솟게 하며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탄생일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이 흐를 때면 우리 당 기발의 성스러운 기폭이 된 《ㄷ.ㄷ》의 기치가 먼저 떠오릅니다.

조선의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붉은 기발이 누리를 태우며 휘날리던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의 귀전에는 청년전위들이 부르던 《한별만세!》의 웨침이며 그들이 피뎀을 가슴을 안고 새겨가던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존함이 생생히 안겨오고있습니다.

제힘을 믿고 하나로 뭉친 주체의 대오가 장엄한 진군을 개시한 그 걸음으로부터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변의 길을 걸어왔던것입니다.

리동원; 그것은 무지와 몽매를 당연한것으로 알며 외세의 발굽밑에서 약소민족의 슬픔을 안고 탄식과 절망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자기의 단결된 힘으로 일체의 면전에서 항일을 선포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새 세기가 동터울것임을 력사에 선언한것이였습니다.

본사기자; 《ㄷ.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의 려명을 두고 말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문학의 력사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돌이켜보고있지 않습니다.

류 만; 우리의 감회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 혁명의 70년력사는 곧 우리 혁명문학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바로 현대조선문

학의 력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 나날부터 우리 문학이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태적인 구전문학으로부터 굵이굵이 힘겹게 넘어가던 이 나라의 세월을 따라 《봉선화》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슬픈 모순》과 같이 비애의 감정만으로 차있던 우리 문학은 《탈출기》나 《님의 침묵》같은 현실비판의 사실주의문학으로 걸음을 내짚긴 했으나 그것은 모순에 찬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의 토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학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옳바른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할수 없는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의 문학이 사람들의 계급적인 리해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압제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항거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작가의 주정에 그치는것이였습니다.

리동원;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계몽기시기의 문학, 비판적사실주의작품도 있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도 있는 《카프》시기의 문학도 다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본사기자;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진실한 문학의 탄생을 혁명문학의 출현으로부터 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능수; 그렇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생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던 그날부터 우리 문학예술은 비로소 투쟁과 생활의 노래가 되어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궤도우에서 참담하게 발전하여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혁명문학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당당히 말하게 되는것입니다.

송찬웅; 사람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반영된 문학작품은 시대와 함께 숨쉬고 그 시대의 목소리를 터칠줄 아는 열의인들에 의해서만 창작될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E. C》의 청년전위들은 그야말로 혁명의 거세찬 시대를 안고 몸부림친 열혈투사들이였으며 시대의 대변자, 열렬한 선동자였습니다.

우리의 귀전에는 지금도 그들이 부르는 혁명송가 《조선의 별》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수천년 바라고바라던 인민의 념원과 의지를 한몸에 지니시고 어둡던 강산에 새별로 빛나시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삼천만 겨레의 다함없는 신뢰와 믿음이 구절구절 담겨진 이 노래야말로 우리 혁명송가문학의 첫 고고성이였습니다.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훌륭히 심어진 이 노래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며 널리 퍼져갔습니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게 될 때라야 견인력과 전파력을 가지게 되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류 만; 그 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창작 보급된 문학작품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카툰, 고유수, 오가자의 하늘높이 울려퍼졌던 《혁명가》의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혁명대오를 백배로 다져주며 오늘에로 불리워오고있습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을 불타는 일념으로 《내 조국을 한몸에 안으리》라는 노래도 지어불렀습니다.

강능수; 특히 우리가 크나큰 공지를 안고 말하게 되는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히 창작하시여 우리 혁명문학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우리 문학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셨다는것입니다.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시작된것은 우리 문학사에 길이 빛날 더없는 영광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활동의 첫 걸음부터 문학예술의 사회적의의와 그가 노는 인식교양적이며 전투적인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몸소 혁명가요를 한자한자 지으시여 노래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각성시키나가지였습니다.

아직은 제 나라를 잘 모르고 조국땅도 알아보지 못한 소년들에게 조선의 녀를 심어주어 그들

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8년 1월 무송에서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반일부녀회성원들을 망라시켜 연예선전을 진행하실 때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를 창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밤을 밝혀가시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일체를 내몰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에 자주적인 인민의 나라를 세울데 대한 혁명적지향을 이 노래에 심어 가시였습니다.

본사기자; 예. 아버지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인민의 비참한 현실과 각성되어가는 인민대중의 열의를 반영하시여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 혁명연극 《3인 1당》과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도 창작하시여 무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리동원;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도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싸우실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이 아닙니까.

1929년 5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통현 고유수의 삼광학교사업을 지도하시던 어느날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배워주시고 지금 애놈들의 압제와 착취로 말미암아 수천수만의 우리 민족은 그림고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이국땅에 와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조국과 정든 고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감회깊은 말씀도 하여주시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대원들에게 자주 이 노래를 들려주시며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불타게 하시고 힘을 주곤하시였습니다.

오늘도 이 노래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다듬게 해줍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가무대인 고전적명작 《단심줄》, 《13도지랑》 등 많은 소품들도 창작하시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교양하시고 민족자주의식이 싹트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정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우리 혁명문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그때로부터 고루한 민족주의적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한탄만을 읊조리던 진보적량만주의와 비판적사실주의경향의 문학과는 인연이 없는 새형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기자; 《E.C》의 첫 세대들이 높이 부른 혁명의 노래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류 만; 우리 혁명문학의 유산은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풍부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혁명가요들과 혁명가극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일제의 100만대군과 피어린 혈전을 벌리던 그 시기 노래와 춤은 원쑤격멸에로 부르는 호소였고 무적의 힘을 날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결사전가》, 《끓는 피는 더 끓어》, 《유격대행진곡》, 《적기가》 등 혁명가요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무장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면 《단결하라 무산대중》, 《심진가》, 《로동자가》와 같은 노래들은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조국광복성전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본사기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적인 가요문학들은 그 주제가 또한 다양하지 않습니까.

리동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의 실생활과 남녀로소의 구분에 맞게 다양하게 형상된것으로 하여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혁명가요들인 《혁명군은 왔고나》, 《어데까지 왔니》, 《혁명군놀이》 등 아동단원들의 씩씩한 모습과 량만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가 있는가 하면 봉건의 굴레를 쓰고 잠자던 우리 녀성들을 깨워주는 《녀자투사가》, 《녀성해방가》와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또한 대대로 머슴살던 사람들이 밝은 세상을 그려보며 용기를 내도록 해주는 《무산자의 노래》, 《일어나라 무산대중》, 《가난한자의 노래》도 있는것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가사문학은 얼마나 많습니까. 《메데가》, 《인민주권가》, 《즐거운 무도곡》 등이 그 실례로 됩니다.

본사기자; 역시 이 시기의 작품들중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사에 가장 의의깊게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웅; 많은 혁명가요들과 혁명문학작품들이 창작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으신 고전적명작들은 내용의 심오성과 사상에술성 그리고 격동적인 감정에 있어서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습니다.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한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

수난당한 우리 조국의 시대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안겨오고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오르게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사선의 천교령눈보라길을 한치한치 넘으시며 굳은 맹세를 심어 불러주신 《반일전가》의 노래가 있었기에 영영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사지판에서 우리 혁명은 구원되었던것입니다.

한편의 노래로 혁명을 생사기로에서 일으켜주시고 혁명가의 굳센 신념을 안겨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은 우리 작가들에게 위대한 스승의 모습으로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리동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혁명에 맹세다지며 일떠서게 해주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교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오늘도 우리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강능수; 그렇습니다. 그 영원불멸할 작품들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문학은 그에 토대하여 자랑스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겨주신 고귀한 문학유산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문학의 전통이 있어 우리 문학은 해방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 단편소설 《개선》, 《장군님을 맞는 날》과 같은 혁명적인 작품들을 낳았고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나날에는 시 《조선은 싸운다》, 서정시 《경애하는 수령》, 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 단편소설 《불타는 섬》과 같은 사상에술성이 높은 수많은 작품들로 원쑤격멸에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

송찬웅; 우리의 문학은 자랑스런 년대기들마다에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믿음을 노래한 송가문학의 창작으로 더욱 그 대가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혁명전통을 거세하며 우리 문학의 혁명성과 계승성을 없애보려고 책동할 때에는 가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와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와 같은 송가문학들이 그자들의 궤변을 쳐갈기며 인민들의 심장을 울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소설작품들과 극문학작품들도 이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문학의 혁명성과 순결성을 고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본사기자; 우리 문학의 풍성한 계절은 문학예술의 거장이시고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이루어지고 자기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일약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류 만: 정말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시던 그 나날 우리 문
학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규정해주시고 문학의
모든 분야를 현명하게 이끄시어 현세기뿐만아니
라 먼 후날까지도 인민들의 향유물로, 생활과 투
쟁의 길동무로 삼아갈수 있도록 그 면모를 일신
시켜주시었습니다.

우리 문학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는 수령의 위
대한 품모를 형상하고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
적을 만대에 빛내이는것으로 되어야 하다는 숭고
한 뜻을 지니시고 그이께서는 수령관이 일관되도
록 문학의 모든 형태를 지도하시어 명실공히 문
학으로서의 사명을 더하도록 이끌어주시었습니
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 **《나
의 어머니》**, **《충성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
까 그리운 장군님》**과 같은 수령송가문학의 본보
기를 창조해주시고 **《조선아 너를 빛내리》**, 시
《우리 교실》,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시어 우리 혁명문학사에 특
기할 사변을 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
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
하도록 하시어 그것을 우리 혁명의 교과서로, 나
라의 만년재부로 남기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
었습니다.

송찬웅: 노래로 정치를 하시고 노래로 혁명승
리의 그날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우리의 가사문학을 주옥같은 문구로 다듬어
모든 노래가 다 명가사로 짜여진 훌륭한 가요가
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고계십니다.

강능수: 오늘 우리 문학은 혁명성과 주체성이
보다 확고해지고 날마다 눈부시게 발전하여 대전
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서사시
가사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가 국보
적인 작품들로 태어나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는가
하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같은 세
계적인 작품들이 련이어 나와 문학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스승
으로 창조와 예술의 영재로 높이 모시고있는 무
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매일 매 시각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문학
은 주체적인 혁명문학으로 계속 발전해나갈것입
니다.

지금 저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
라난 주체조선의 작가답게 더 좋은 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여 우리 혁명문학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본사기자: 가지가지의 사연과 추억이 깃든 우
리 문학의 자랑스러운 로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면 정말 끝이 없구만요.

우리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시작
된 혁명문학을 대를 이어 빛내가는 직접적계승자
라는 영예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주체의 태양이시
며 영원한 혁명의 수령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변함
없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할 무겁고도 영
예로운 임무를 맡고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대의 가수, 혁명의 나팔
수로 펜을 힘있게 틀어잡고 우리 주체문학의 채
부를 늘여가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리라고
믿습니다.

본사기자 로창일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

신지락

장군님 마음속 첫자리에는
그이의 하늘이 된 인민이 있네
인민이 바라면 돌에도 꽃을 피우는것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이라네

하나의 생각도 만가지 일도
언제나 인민위해 펼쳐가시네

인민이 바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것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이라네

인민의 기쁨을 띠고로 삼고
한생을 그 길위에 바쳐가시네
인민의 가슴에 만복을 안겨주시는것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이라네

우리는 장군님의 7련대

신병강

한밤중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총, 총을 으스스하게 틀어잡는다
제국주의 원수들과 반동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있어
전군은 오중흡 7련대가 되어
천겹만겹 총검의 진을 쳤노라

태양을 잃었던 우주에
찬란한 태양이 되신분
하늘을 잃었던 지구에
창창한 하늘이 되신분
아,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심장
그이는 혁명의 수뇌부

우리는 듣는다
대사하 격전장에 울린 총소리
수령을 육탄으로 보위한 항일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총소리, 총소리...
광란하는 백두의 눈보라를 뚫고
고난의 행군길에 메아리치던
오중흡동지의 그 웨침소리
7련대의 목소리, 목소리...

우리는 보았노라,
최신형 무장을 갖추었어도
넋이 없어 허수아비로 된 군대들을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했어도
초석없는 성벽처럼 무너진 나라들을

우리는 피로써 절감했노라
총대가 무력하면
당도 수령도 보위할수 없음을
신념에 녹이 쓸면
사회주의도 나라도 지켜낼수 없음을

눈우에 찍혀진
한점의 발자욱에도 눈길 모으고
가랑잎 흔드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귀를 강구며
사령부 안전만을 생각한 투사들처럼
우리의 자세는 총탄을 재운 격동상태!
우리의 마음은 팽팽한 활시위!

지금은 어디에 체실가
또 어느 초소길을 걷고계실가
아침마다 군보의 소식 기다리는 병사들
장군님 비속을 헤쳐가실 땐
그 마음 《피뢰침》이 되고
장군님 어두운 산비탈을 지나실 땐
그 눈길 《탐조등》이 되어
계시는곳 가시는 길에 따라서노라

원수들 제아무리 날편다 하라
그것은 태양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어리석은 망동
충효의 억센 심장들이 성새로 솟고
총잡은 억센 피줄들이 교압으로 뻗친
결사옹위 호위진을 범접 못하리

오, 천년을 만년을 솟아
만고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산처럼
불패의 군력을 만방에 떨치는
우리는 **김정일**장군님 군대
존엄높은 그 이름과 함께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히 안녕하리니
김정일! 우리의 심장이시여
김정일! 우리의 태양이시여
김정일! 우리의 미래이시여

《작가, 예술인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데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당과 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한생을 당과 더불어 보람있게 마칠 것인가 하는 높은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김정일

수기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김만영

사람들은 제가 어버이수령님 서거 1뿔때 쓴 서사시를 보고도 그랬겠거니와 이번에 어버이수령님 서거 2뿔에 즈음하여 쓴 서사시를 보고도 만날 때마다 정말 잘 썼다고 우리 인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였다고 진정에 넘치는 축하의 말을 해주곤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다른것을 생각하곤하였습니다.

과연 그 서사시들이 어떻게 씌여지게 되었던가. 그러면 눈앞에는 위대한 스승의 인자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문학의 초학도에 불과했던 나의 손을 잡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징검돌도 건너지주고 때로는 저의 등을 두드려주고 때로는 밤길을 걷는 나의 앞길에 등불을 밝혀주며 함께 간 그 손길,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시 내 몸 가까이 에 있어준 그 손길, 그것은 바로 우리 작가들의 스승이시며 운명의 보호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회주의가 일떠서던 해에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전설처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선에서 태어난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할 때에도 문학청년들의 취미까지 헤아려 문학소조까지 조직하도록 해주시며 말그대로 실천속에서 산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학소조에서 작가들의 지도밑에 종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구성과 형상에 대해서 등 창작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그대로 첫걸음마부터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 나날에 저는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에 대해서 체득했고 심오한 인간문제들에 해답을 준 장군님의 불멸의 로작들에서 배우며 문학의 키를 자래우고 문학의 뼈를 굳혀나갔습니다. 보잘것 없는 재간을 가지고 제편에 무엇인가 읽고 쓰고 하며 큰일을 하는것처럼 생각하고있던 저를 대학으로 불러 정규교육을받도록 해주심으로써 높은 령마루에로 한걸음한걸음 손잡아 이끄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스승의 지도와 로고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규교육을 마친뒤 시인대렬에 세워주시어 전문적으로 창작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도 제가 쓴 미숙한 시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며 때로는 가필도 해주시어 작품을 완성시켜주시고 때로는 잘되었다고 고무도 해주시고 때로는 창작방향도 그어주시며 시인에게 창작적 열정과 담력을 안겨주시였습니다. 하여 지금 돌이켜보면 창작에 뜻을 두고 걸은 15년길에 찍혀진 저의 작은 발자국들은 제가 제 힘으로 찍은 발자국은 한자국도 없는듯싶습니다. 모두 위대한 스승의 손을 잡고 그이의 지도와 사랑과 고무를 힘으로 숨결로 보폭으로 하여 찍혀진 자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며 한번 보시고 두번 보시고 세번 네번 거듭 거듭 반복하여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수고했다고 잘 썼다고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배려와 크나큰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어버이수령님 서거 1뿔을 맞으며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썼을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사시를 몇번이고 록음으로 다시 들으시며 정말 잘 썼다고 자신의 심정을 다 대변하였다고 하시며 세계적인 작

품이라고 다른 시들보다 단수가 높고 철학성이 있고 시구성자체가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하게 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름없던 필자에 대해서는 당과 혈맥이 상통하는 시인이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최상의 평가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름없는 용해 공출신 시인이 대견하시여 영예의 《김일성상》을 안겨주시고 문학학사증도 주시고 창작활동을 더 활발히 벌리라고 고급승용차도 주시었으며 부엌 세간일식과 가구일식을 다 갖춘 고급살림집까지 배려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스승이면 이런 스승이 어버이면 이런 어버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저의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하여 문단과 지상연단을 통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인간의 높은 충정, 탁월하고 비범한 로고를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자 사실그대로 썼을뿐인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도 벅찬 사랑이 저를 찾아왔으니 제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자신도 잘 알지 못하던 시적재능을 발견해주시고 첫 걸음마를 떼는 저의 손을 잡아 한걸음 한걸음 이끌어주시고도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시는 이런 스승에게 제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한단말입니까.

시를 최고의 높이에서 아시고 시를 높이 내세워주시는분은 세상에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장군님이시야말로 시의 거성, 대시성이십니다. 그런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편편을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창작하는 우리 시인들이 어찌 담이 크지 않을수 있으며 우리 시문단이 왜 흥성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안계셨더라면 나는 시인은 못되었을것이다. 시인은커녕 단 한편의 시도 쓰지 못했을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장군님은 그대로 시이며 노래이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일**- 그 이름을 떠나 우리 문학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날에도 그랬던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태양의 찬가, **김정일** 찬가를 소리높이 부르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명작창작을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장군님을 따라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투지와 신심을 안고 《고난의 행군》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명작품을 훌륭히 써낼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게 실력전을 벌려 인민이 바라는 명작을 훌륭히 창작하여 위대한 스승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받아안은 하늘과 같은 사랑과 은정에 뜨거운 심장을 바쳐 보답해나가겠습니다.

문학예술의 거장, 위대한 스승을 위대한 령수로 모시고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지도를 받으며 시도 쓰고 노래도 짓는 우리 로동당의 시인, 공화국의 시인들처럼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시인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시도 배웠고 문학도 배운 사람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며 그 고동소리에 박동을 맞추어 세상에, 력사에 없는 위대한 인간을 모신 영예와 긍지를 전하는 시인이 되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살고 죽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무릎을 베고 죽는 장군님의 참시인이 되겠습니다.

쇠물은 뜨겁다

장동일

1

우리 용광로직장 일이 요새처럼 잘 되어본적은 없었다. 이것은 제철소련합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용광로직장초급당일군들이 용해장에 직접 내려가 용해공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걸린 문제를 원만히 풀어준 결과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긍정자료를 가지고 내가 초급당비서로 일하는 용광로직장에서 전 도적인 당일군방식상학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 날자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직장의 모든 력량을 다가오는 방식상학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는 이번 계기에 작업반세보비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의 당일군경력이 결코 헛된 나날이 아니었다는 긍지를 가지고싶었으며 그 실천적성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었다.

하여 나는 요즈음 뜬눈으로 밤을 밝히면서 긍정자료들을 종합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주필을 손에 쥔채 출입문에 다가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출입문밖에는 뜻밖에도 제철소련합당위원회 책임비서 홍현수가 서있었다.

《아, 난 또… 방식상학준비에 너무 바쁘다나니 그만…》 내가 먼구스러워하자 《일-없소.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홍현수는 나를 너그러이 리해해주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소매가 짧은 살색잠바의 야크를 풀어헤쳤다.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목덜미에 내뿜은 땀을 훔쳐낸 그는 마지막으로 안경을 벗어두고 안경알에 어린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었다.

《여기 앉아 좀 쉬십시오. 오늘 높은 기온은 32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활짝 열어놓은 창문옆에 의자를 내놓고 그옆의 서류장 위에 놓여있는 선풍기스위치를 넣었다.

《오늘이 벌써 중복이요. 몹시 덥겠는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근심어린 얼굴을 수긋하고 앉아서 잠시 바람을 맞았다. 발치앞을 굽어보는 그의 두눈동자에는 아직도 빨강게 피발이 서있었다. 흰 얼굴때문에 눈동자의 피발이 대조를 이루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알알하게 했다.

《책임비서동지, 이번 방식상학이 끝나면 평양에 올라가 입원치료를 꼭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조직비서동지도 이미 결심이 선것 같습니다.》

엇그제 련합당비서한테서 호된 추궁을 받던 일을 상기하며 내가 말했다.

그것은 닥새전 일이었다. 뜻밖에 3호용광로에서 두개소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다. 비상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마침 현장을 돌아보러 왔던 홍현수가 나타났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수습하고 이어 용접을 하도록 긴급대책을 취하였다. 그는 용접공들에게 용접봉을 섬겨주다가는 저항기의 답브를 조절해주면서 용접이 질적으로 되도록 살피며 일일이 조언을 주었다.

내가 뒤미처 기상장과 함께 달려갔을 때 홍현수가 지휘한 사고처리는 빠른 시간에 기술적면에서 원만히 되었다. 이것은 그가 야금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데다 용해공생활까지 체험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사장동무가 오기전에 내가 선손을 썼는데 제대루 되였는지 잘보아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미안해하는것이였다.

그때 홍현수는 쉰 용접불빛을 보았기때문에 각막에 심한 화상을 당했던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자인하고있었다.

홍현수는 내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반응이 없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홍현수와 몇년째나 함께 일하고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의 성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였다.

홍현수는 올해 선세살이다. 그의 부친은 이미 70고령을 넘으신 우리 나라의 명망높은 학자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두뇌가 명석하였다고 한다.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그는 전후에 류학을 갔는데 거기서 조선사람의 지혜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가 조국에 돌아왔을 때 청렴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의 부친은 조국이 재더미우에 복구건설을 할 때 벽돌 한장 놓치 못한것만큼 자기 전문분야인 야금부문에 가서 땀을 흘려보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엄한 훈시를 하였다고 한다.

하여 홍현수는 XX제철소에 내려와서 3년동안 쇠물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체험하였다. 여기서 그는 기증기운전공처녀와 결혼했고 첫딸을 낳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북변의 야금기지에 뿌리를 내리는가 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맞지 않았다.

당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야금기사를 지켜보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받고 제철소압연분공장 기사장, 공장장으로 그리고 금속공업부 부부장을 거쳐 5년전에는 다시 여기 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책임비서동지, 제 말을 명심하고계시다가 평양에 올라가 꼭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곱씹어 강조하였다.

그제서야 홍현수는 생각에서 깨어난듯 머리를 쳐들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일없을거요. 진흙찜질을 시작했으니까. 용접불을 본데는 진흙찜질이 좋더군요 하더구만.》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대신 그는 나에게 권고했다.

《초급당비서동무, 우리 3호용광로에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3호용광로는 제대되어 나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된 곳이다. 나는 3호용광로주상으로 올라가자면 용수타빈의 어느 배관열을 어떻게 빠져 어디로 질러가야 그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할수 있다는것까지 다 알고있다. 지어 밤중에 울려오는 출선종소리를 듣고서도 그 종은 누가 때리는가를 알아맞힐수 있다.

그런것만큼 내가 앞서서 홍현수를 안내하였다.

3호용광로에서는 방금 출선작업을 끝낸 뒤였다.

저거운 쇠물을 실은 용선담비차들이 디젤기관차에 이끌려 2강철직장쪽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용해공들은 한숨 쉬고있었다. 두 용해공이 탄 산수통을 가운데 두고 마주서서 약속이나 한듯이 하눌로 쳐들고 탄산수를 마시고있다.

그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던 홍현수가 이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초급당비서동무, 크림과 얼음과자를 펴구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쪽 북쪽로대에 설치한 선풍기가 세차게 돌고 그앞에 두사람이 나란히 서서 선풍기의 바람을 자기네가 다 독차지하려는듯 팔들을 활짝 벌리고 서있다. 그들의 옷자락이 찢어질듯이 나뉘인다. 새의 날개인가싶다.

그들을 뒤에 두고 두 용해공이 이쪽 주상층대쪽으로 걸어나오고있었다. 저 아래 목욕탕옆에 샤워실도 있고 우유마시는 방도 있었지만 용해공들은 대체로 용해장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으며 저렇게 주상의 층대쪽으로 오군했다. 여기에 나와 앉으면 선풍기의 바람과 또 다른 맛이 있는

바다바람을 시원히 쏘이는것이 좋았기때문이었다.

나도 용해공시절에는 이 층대에 나와서서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몸을 식히곤했다.

그래서 용해공들은 지금의 휴식시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것이다.

지금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있는 사람들도 나는 잘 안다. 앞에 오는 사람은 공장문학소조에 다니면서 제철소벽신문에 시편들을 이따금 발표하곤하는 송병찬이라는 청년이고 뒤에 오는 사람은 한때 책을 많이 읽는것으로 소문난 강철규다. 50대전반기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혼시같은것을 곧잘 하곤하여 건방지다는 말을 듣곤 하였는데 지금은 신고개를 넘어서 《강아바이》로 불리우고있다.

앞의 송병찬은 우리와 마주치자 나와 홍현수를 번갈아보다가 먼저 홍현수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는데 몹시 황송해하는 표정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뒤에 따라온 강철규가 우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인사할줄 알았던 그는 나와 나란히 서있는 홍현수를 얼핏 올려다보긴 했는데 어째서인지 두눈을 쪼프리며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그냥 지나쳤다. 이것은 눈 깜짝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홍현수는 굳어진듯 그자리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도 그를 마주보았다. 우리 두사람의 눈길은 공중에서 동일한 감정을 주고받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뒤에 홍현수가 나에게 물었다.

《요새 강철규동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현수는 말꼬리를 흐리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야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였다.

2

홍현수로서는 심분 그럴수 있었다.

나는 홍현수와 강철규의 판례를 잘 알고있다.

홍현수는 1965년에 우리 제철소에 왔었다. 그때 우리 제철소는 낡은 형의 주체식용광로 두기가 있었는데 홍현수는 1호용광로에 배치되었다. 여기서 그는 교대조장을 하고있는 강철규와 만났다. 홍현수의 회상에 의하면 그 당시 강철규는 전쟁의 포연에 그슬려본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한 30대의 청년용해공이었다고 한다. 그는 왜서인지 공장대학에는 다니지 않고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였는데 그중에는 문학서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걸 홍현수가 현대야금공업은 알아야 할수 있으며 용해공은 막로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

단히 영향을 주어서 공업대학 야금과에 입학시켰다. 그러니 홍현수는 강철규를 온 나라의 인테리화로 떠밀어준 은인이었다.

그런 은인을 강철규가 조폭하게 대했다.

그것은 홍현수가 용광로에서 일을 시작한지 1년도 못되는 어느날 휴야근교대때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 홍현수는 교대조장인 강철규의 지시대로 쇠물남비감시를 서게 되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쇠물이 쇠물남비에 정확히 쏟아져내리는가를 감시하다가 남비에 쇠물이 거의 차게 되면 용해공들에게 신호를 하여 쇠물도랑을 다음 남비에 돌리도록 하는 일이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지만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쇠물남비를 감시하던 홍현수가 깜박 졸았다. 순간에 여러톤의 쇠물이 구내철길바닥에 흘러내려 불바다를 이루었다. 아직 밤일에 단련되지 못한 홍현수로서는 심분 저지를수 있는 사고였다.

그러나 강철규는 홍현수의 처지를 조금도 리해해주지 않았다.

《...아니 여보, 여기가 뭐 눈감고 사색하는 당신네집 서재인줄 아우? 이 사람이 쇠물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려면 아직 멀었군. 아이되겠어! 래일부터 당장 저아래 광채처리작업반에 내려가서 삽질이나 하라구!》

강철규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홍현수는 그 이튿날부터 광채처리작업반에 내려가 석달동안 손바닥에 물집이 지게 수재(용광로슬라크분말)를 푸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한 인간관계에 있던 홍현수가 바로 제철소련합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내려왔으니 강철규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러나 홍현수와 강철규사이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하긴 한사람은 책임비서이고 한사람은 로동자이기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쉽게 만날수 없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방식상학을 눈앞에 앞둔 오늘 이렇게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자 딱해진것은 그들보다 나였다.

우리는 제각기 생각에 잠기여 강철규가 휴식하고있는 동쪽충대와는 반대쪽인 사령실충대까지 묵묵히 걸어갔다.

나는 홍현수의 눈치를 보다가 불쾌해진 그의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나직이 말했다.

《책임비서동지, 너무 섭섭해마십시오. ...사실 강철규아바이는 백내장입니다.》

홍현수는 발걸음을 멈추며 이쪽을 뒹 돌아보았다.

《뭘-이요? 백내장이라니?! 어떻게 하다 강동무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생각에는 로인성백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바이 나이가 올해 천여덟입니다. 로인성백내장이 올수 있는 나이입니다. 백내장에 걸리면 대낮에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홍현수가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했다.

《모를 소리요, 모를 소리.》 하고 홍현수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다가 나를 갑자기 돌아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왜 모르고있었겠습니까?》

《책임비서동지야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내려온지 이제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든가?...》

그제야 홍현수는 머리를 수그리며 주춤거렸다. 그의 낮빛이 펍 어두워졌다.

《...그렇다... 그렇다면 초급당비서동무는 강철규동무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나의 심신을 강하게 자극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얼마전에 우리 초급당위원회는 강철규동무를 설비교관으로 추천합의하였습니다. 마침 래일 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설비교관??》

《예, 용광로직장안의 모든 설비들을 맡아보는 교관입니다. ...강아바이는 오래동안 용광로에서 일했기때문에 로와 련관된 설비상태를 손금보듯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그만한 적임자는 없습니다.》

《...적-임-자라... 그렇다면 방식상학에 강철규동무가 빠지게 된단 말입니까?》

《...》

《...용해장에는 강철규동무처럼 관록있는 용해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본인은 거기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논때문에 용해작업에 지장이 된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홍현수는 입을 꼭 다문채 용광로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이날 용광로에서 공장 련합당위원회로 돌아갔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우리 용광로직장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사무실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처럼 중요한 방식상학을 앞둔때에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한마디도 주지 않고 돌아갔다.

3

그날 저녁 나는 2교대 세포비서한테 강철규를 퇴근하는 길에 얼핏 초급당에 들리도록 지시했

다.

강철규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성큼성큼 걸어오다가 응접탁모서리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바이 오셨습니까. 자. 이 책이 세포에 한권씩 배정되었는데 먼저 강아바이가 보십시오.》 하고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제 7권을 응접탁우에 내놓았다.

《아, 이거 새로 나왔구만요. 참 고맙습니다!》

강철규는 《회고록》을 두손으로 정히 집어들고 다시 자기 위치에 가섰다.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이 책을 내가 먼저 보아도 되겠습니까?》

《일 없지 않구요. 아바이야 나이에어나 로동생활에서나 이제는 2교대의 좌상이 아닙니까.》

내가 미소를 지어보였다.

《하긴...》 그는 책표지를 쓰다듬다가 첫페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기도 했다.

《퇴근길을 지체시켜서 미안한데 오신김에 제 아바이한테 한마디 좀 할가요?》

순간 그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다.

《어서 하십시오.》 그가 나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인지 선듯 입을 열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오늘 용해장에 찾아온 책임비서를 노엽히고 나를 딱하게 만든 강철규에게 지난날의 실례를 들어서 당일군들의 존엄을 로동자들이 어떻게 지켜주어야 하는가를 좀 따끔하게 말해주려고 지금과 같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지난날의 실례란 이런것이였다.

...그날 나는 당위원회청사 밤경비였다.

저녁 9시가 지나서 뜻밖에도 경비실접수구에 강철규가 나타났다.

《아- 마침 박동무가 앉아있었구만!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이래서 좋다이, 헛허허...》

그는 털모자의 귀덮개를 올리면서 대기실이 떠나가게 큰소리로 웃었다.

(아-니 저 아바이가?... 여기가 뭐 용해공들 탈의실인줄 아는가부지...)

나는 접수구창너머로 그를 의아한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강철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로동생활의 성실성을 보증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을 애써 누착했다.

《그런데 아바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 갔다오시는 길입니까?》

《퇴근하는 길이네.》

그가 대기실의자에 편안히 앉으며 대답했다.

《퇴근이라니요? 아니 뭘하다 이제야 퇴근합니까?》

《응. 낮에 일하면서 보니 출선구착공기 가동이

찌원치 못해서 정비해주고 나오는 길이네. 변번치 못한 설비를 그대로 다음교대에 넘겨줄수가 없지 않나, 그래 시간을 좀 지체했네!》

《에- 그렇게 됐습니까? 또 남을 위한 일을 했구만요. 그런데 여긴 왜 들렀습니까? 빨리 집으로 올라가지지 않구.》

《어, 책임비설 좀 만나자구 들렀네. 불이 켜진 걸 보니 아직 퇴근하지 않은것 같구만.》

《책-임-비서동지를요?》

《음-》

《아니, 이 밤중에 책임비서동지는 왜 만나시려구 그러니까?》

《아, 글썄 한걸음 늦는바람에 봉천동행 마지막 뺄수를 그만 놓쳤다이. 허참! 그래 호미난방격으로 서성거리다가 발길이 가는대루 여기까지 왔네. 여기에 오면 혹시 무슨 수가 나질것만 같아서말 일세.》

《??...》

나는 크게 벌린 일을 다물지 못했다. 아연해졌다. 이런게 바로 《용해공특세》가 아닌가? 이런 버릇은 강철규처럼 남보다 식견이 좀 높다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날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 일군들을 함부로 대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물며 그는 홍현수한테 평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혁명화》를 시킨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도 어떻게 감히... 얼굴이 달아오르고 맥박이 빨라졌다. 그러나 흥분하지는 않았다.

《...강아바이, 그 어느 기관에 가보아도 접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글썄 물론 홍현수동지가 옛날에는 강아바이랑 같이 로동을 했지만 지금이야 이 크나큰 제철련합기업소 책임비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밤중에 련합기업소책임비서동지한테 집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아닌 당기관에 와서말입니다.》

《아 여보. 당기관이기때문에 때없이 찾아온게 아닌가?!》

《야 참, 아바이! 이제보니 아바인 정말...》

나는 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공연히 접수일을 들었다놓았다 하였다.

그제야 강철규는 접수구창너머로 나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한참동안이나 찬찬히 마주보았다. 그러던 그는 이윽고 고개를 크게 세번 끄덕이였다. 알만하다는 뜻인것 같다.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인가 암시하는듯한 의미심장한 그의 노여운 눈길이 나를 자리에서 일켜세웠던것이다.

바로 이때 홍현수가 접수실에 들어섰다.

《수고합니다. 뭐 제기된건 없습니까?》

이것은 그가 퇴근할 때마다 근무생들에게 건네는 《표준조작》과 같은 물음이었다.

사방을 살펴보던 홍현수의 눈길이 마침 대기실에 서있는 강철규의 얼굴에 가닿았다.

《아-니, 거 강철규동무가 아닙니까?!》

홍현수가 반가움에 겨워 부르짖었다.

《예, 접니다. 그새 안녕하십니까?》

창너머에서 강철규가 털모자를 벗으며 이쪽에 다 대고 굽적 인사를 한다.

《아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왜 거기 서계십니까? 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불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추운 날에 좀 바깥입니다. 어서 여기 들어오십시오. 예? 어서요!》

홍현수가 손짓까지 하며 곱씹어 권고했으나 강철규는 이쪽으로 들어올 기색이 아니다. 오히려 털모자를 천천히 쓰면서 몹시 계면쩍어하는것이었다.

《자. 이거 오늘은 강동무가 용해공답지 않게 웬일입니까?》

홍현수는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지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곧 대기실로 나갔다. 그가 강철규한테 정식으로 깎듯이 인사를 하고 두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쥐고 흔드는 모양이 대기실의 형광등불 빛아래 여기서도 환히 내다보였다.

그다음은 홍현수가 묻고 강철규가 대답했다. 그때마다 홍현수가 연신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두사람 사이 대화의 내용을 대체로 알수 있었다.

어째서인지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금 산란해지기 시작했다.

얼마후에 홍현수가 다시 접수실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지도원동무, 앞으로 내가 사무실에 있는 한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나게 해주세요. 며칠전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만나겠다고 무려 사흘동안이나 당위원회 접수에 왔다가 되돌아가군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부서사업총화에서 강조하겠지만 우리 동무들속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홍현수는 현관으로 나갔다.

나도 따라나갔다. 현관에는 강철규와 다른 두사람이 서있었는데 나는 희미한 외등불빛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수 있었다. 그들도 3호용광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강철규가 자기들의 청을 가지고 대기실에 들어가있는 동안 밤추위에 얼대로 언 그들은 솜동복옷깃을 올리고 발을 구르느라고 누구를 돌아볼새가 없었다.

이때 승용차가 현관앞에 천천히 다가와 멎어섰다. 홍현수의 퇴근을 보장할 그의 승용차였다. 그러나 그는 왜서인지 운전사를 밖으로 불러내어

무슨 지시를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나서 그자신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강철규일행을 돌아보며 어서 타라고 일렀다. 그는 저이기 당황해하는 강철규에게 빨리 차에 오르라고 다시금 재촉했다. 그들이 차에 오른 다음 홍현수는 밤색모자채양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나서 차를 앞으로 전진시켰다.

그는 이날밤 각이한 계층의 노동자세대를 세집씩이나 방문하고 통근빠스은행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봉천동을 떠나내려왔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봉천동행 마지막빠스 시간은 2시간이나 더 연장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그때는 내가 연합당위원회 조직부부원을 할 때였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 그 추운 겨울저녁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강철규를 왜 좀 더 따듯이 대해주지 못했는가 하고 후회를 하군한다.

그것은 내가 갓 제대되어 3호용광로에 배치되었을 때 거기서 교대조장을 하던 강철규를 만났고 그한테서 출신구착공기를 운전하는 법을 배웠기때문이었다. 그 시절 고정하고 남에게 좀처럼 굽어들지 않는 그의 성미는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하여 나는 그를 사무실에 부른 의도를 다 말할수 없었다.

《...강아바이, 오늘 일이 좀 별나게 되긴 했는데... 이번 방식상학에 빠진것을 두고 그리 섭섭히 생각지 마십시오. 좌우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상급당에서두 곧 소식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설비교관사업을 맡아보면서 천천히 눈도 치료합시다. 그래 무슨 제기할 문제는 없습니까?》

그때까지 처음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있던 강철규가 고개를 쳐들었다.

《한두가지 제기해도 일없겠습니까?》

《예, 어서 하십시오.》

내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강철규는 입에다 주먹을 가져다대고 일부러 마른 기침을 한번 한 다음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나를 아바이라고 부르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

《그리구 두번째로 내가 백내장에 걸렸다는것을 책임비서동지한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답니다.》

《...??》

나는 두눈을 습벽이며 강철규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나는 아직 자식들중에서 시집이나 장가를 보낸 적이 물론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요즘 방식상학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대사를 앞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것처럼 조마조마하면서도 희망에 찬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홍현수는 사흘만에 우리 초급당에 왔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일꾼들이 자주 내려왔지만 이번엔 그의 걸음은 방식상학준비를 최종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오늘은 선풍기를 돌리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났는지 농촌로인들이 쓰는 갈부채로 땀을 식히었다.

그는 레의버터대로 손수건을 꺼내어 천천히 안경알을 닦으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초급당비서동무, 우리 강철규동무를 입원시켜 수술치료를 해봅시다.》

《예-예?...》

나는 처음엔 저으기 놀랐으나 사흘전에 강철규와 마주앉아서 그의 눈치료를 놓고 논의하던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강아바이하고 치료문제를 의논한적이 있었습시다.》

《아-그랬겠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설비교관을 말아보면서 천천히 치료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시다.》

《천천히?... 그렇게 할수 없습시다!》

홍현수는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이것은 그에게서 아직 볼수 없었던 강경한 의사표시였다.

그는 꼭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내가 엇그제 우리 공장병원 안과과장동무를 만나본데 의하면 선반공이나 용해공들의 경우에 백내장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조절해가지고 말을 이었다.

《강철규동무는 입원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똑똑한 병력서가 아직 없습시다. 그러나 나는 우선 우리 일꾼들이 용해공들의 눈에 관심이 없었고 강철규동무가 자기 눈을 혹사하였기때문에 바로 그 백내장에 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급당비서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강철규의 눈을 수술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홍현수가 중대한 방식상학을 목전에 두고 당장 그를 입원시켜 수술을 단행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는 홍현수에게 이미 빈틈없이 조직한 로력조직의 실패와 강철규를 설비교관으로 조

절하게 된 내용을 말했다.

《...강아바이의 눈수술이 그의 운명문제가 아닌 것만큼 이번 일이나 치른 다음에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의 운명문제요!》 하고 홍현수는 책상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

그는 나에게 담배를 청했다.

그는 갈부채질을 세차게 하면서 내가 준 담배를 피웠는데 연기를 삼키지 못하고 후-후- 밖으로 내뿜었다.

《...초급당비서동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채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면서 홍현수가 갈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는 나에게 그동안 용해공들과 한 사업에 대하여, 생산에 대하여, 설비상태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물었다.

나는 어제저녁 내가 품고있었던 생각과 강철규와 담화한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강철규동무는 나에게 자기를 아바이라고 부르지 말아줄것과 자기가 백내장이라는것을 책임비서동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는 제기를 하였습시다. 내참, 허허...》

홍현수는 반응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나갔다.

밖에는 벌써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이맘때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인적도 뜸해진다. 다만 용광로의 열풍소리만 은은히 들려올뿐이다.

그는련속소결직장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짚었다. 고개를 수긏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짚고있는 그의 표정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였다. 강연회, 간부협의회,련합당집행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혹은 그 모임들이 끝난 다음에 말이 적었으며 어떤 날에는 《그만합시다.》 하는 한마디의 말로 회의를 결속할 때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은 말이 많다. 그걸 보면 그는 분명 오늘 나에게 하는 이 말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느껴진다. 왜냐 하면 그가 하는 말마디들이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때문이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있던 홍현수는 이쪽으로 돌아서서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초급당비서동무, 결국 한손아귀에 쥐여짜보면 우리는 지금 한 당원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지 않은것을 두고 신경을 쓰고있습시다. 물론 인사

는 생활에서 겸손성과 더불어 인간호상간의 법도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표준도덕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해공들의 뜨거운 인사를 받을만하게 일하였는가? 말하자면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는 나한테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받아가지고 서야 떠나갈양으로 나를 찬찬히 마주보았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방금 강철규동무가 자기의 백내장을 나에게 숨기려고 하며 아바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듣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 그는 나한테 쇠물늑이는 법을 배워준 스승인데 나는 아직도 그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날저녁 홍현수는 나더러 사무실에 오래 남아있지 말고 제시간에 퇴근하는 습관을 붙이라고 일러주고나서 떠나갔다.

그러나 나는 사무실에서 쉽게 떠날수가 없었다.

5

그동안 미루어오던 방식상학이 또 한주일가량 연기된다는 전화가 어제 연합당위원회 조직부에서 걸려왔다.

그에 따라 나는 용해공들이 긴장성을 늦추지 않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대사는 밀리워도 하게마련인것이다.

내가 사령실에서 내려오니 부비서가 병원초급당에서 온 전화내용을 알려주었다. 강철규의 눈수술을 한다는 내용이였다.

강철규가 입원하는 날 그의 수술이 제기되면 곧 알려달라고 병원초급당비서에게 내가 부탁했던것이다.

나는 곧 병원으로 나갔다.

나는 병원초급당비서방에 들어서면서 사업수첩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비서에게 물었다.

《우리 강철규동무의 수술을 몇시에 하우?》

《수술은 이미 시작했소. 빨리 올라갑시다.》

그는 복도로 나서더니 말없이 앞서걸었다.

나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입원실건물의 4층복도로 올라서더니 약간 느린 걸음으로 맨 끝쪽방을 마주향해 걸어갔다. 그 끝방은 두쪽의 넓은 문으로 꼭 닫혀있었는데 흰 에나멜을 먹인 출입문상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리에 두개의 커다란 적십자표식이 붉은 색으로 찍혀져있었고 그 아래에 각각 《수술실》이라는 글자를 강조하듯이 써놓았다. 역시 붉은 색이였다.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섬찍한 느낌이 든다.

바로 그 수술실문앞에서 몸집이 체소한 한 사

나이가 마치도 입당심의순서를 기다리는 처녀처럼 두손을 마주잡은채 서있었다. 그는 우리의 발자국소리를 듣자 재빨리 이쪽으로 돌아서면서 두번째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대었다.

그가 바로 홍현수였다.

《?!...》

나는 그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리하여 나와 병원초급당비서는 이미 홍현수한테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배허벅우에 두손을 마주잡고 엉거주춤히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내가 좀 일찌기 나왔어야 하는건데... 강철규의 백내장은 로인성질환인가, 아니면 쇠물늑에 의한 눈의 흑사로부터 생긴 병인가? 수술은 누가 할가? 이 병원의 안과의사가 과연 수술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

나는 셈을 세듯이 이런 생각을 반복했다. 나는 기다리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때처럼 강하게 느껴본적은 없었다. 발치앞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서있느라니 문득 고등중학교 1학년시절에 무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학교원앞에서 숙제를 하지 못해 벌을 서던 생각이 났다.

이윽고 수술실문이 열리었다.

맨 처음에 수술실문을 나선 사람은 두눈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처럼 새하얀 위생복차림을 한 간호원처녀였다.

홍현수가 마스크를 벗는 간호원처녀앞에 바투 다가서며 조급한 어조로 물었다.

《간호원동무, 어떻게 되였습니까?》

《네??...》 간호원처녀는 땀을 씻던 수건을 가슴앞에 처든채 자기앞에 바투 다가선 낮익은 사람을 까만 눈동자로 찬찬히 마주보다가 그만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이, 책임비서동지가?!... 그럼 책임비서동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서제셨습니까?》

《아 난 일없소. 그래 우리 용해공동무의 수술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홍현수가 재차 물었다.

《잘되였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처녀가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소?! 아- 그럼 됐구만! 수고들했습니다! 그럼 박사선생이랑은?...》

《예, 이제 곧 나오십니다.》

그제야 병원초급당비서가 한걸음 나서며 입을 열었다.

《책임비서동지, 이제 내려갑시다. ...간호원동무, 모두들 원장실로 안내해 내려오우. 우린 먼저 내려가 기다리겠소.》

《네.》

간호원의 대답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원장

실로 내려왔다.

잠시후 넓은 원장실에는 다섯사람이 앉아있었다. 밤색으로 번쩍이는 응접탁을 마주하고 목이 길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원장과 홍현수 그리고 병원초급당비서가 앉아있었고 선풍기가 세차게 돌아가는 바로 창문옆 안락의자에는 이마가 넓고 머리에 반나마 흰서리가 내린 70대의 로인이 앉아있었다. 그의 큰 눈동자에는 40대의 정기가 넘쳐나고 표정은 칼칼했다. 그가 바로 어제 급행차로 평양에서 내려온 의학박사라고 했다.

나는 이쪽 출입문쪽 벽에 붙여놓은 긴 안락의자의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었다.

모두들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은 오직 홍현수뿐이었다.

그는 마주잡은 두손을 응접탁우에 올려놓고 박사가 충분히 휴식하기를 참을성있게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마주잡고있던 손을 약간씩 마주 비비면서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년로한 나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박사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천천히 비벼끄고나서 홍현수를 똑바로 건너다보며 석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는 내가 아니라 67분동안 수술장밖에서 기다린 책임비서동무가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게 무슨 수고이겠습니까?》

홍현수는 두손을 더 세게 마주 비비며 먼구스러워했다.

《모르는 소리요. 어떤 필자는 수술실에서 집도 하는 사람과 수술장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소비하는カロ리가 동일하다고 자기의 론문에 썼소.》

의학박사가 일깨워주듯 강조했다.

모두들 커진 눈들을 서로 마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안의 침묵을 주인이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원장이 안경다리를 추켜올리면서 말했다.

《정말 선생님이 이번에 내려와서 우리 공장 용해공의 눈을 직접 수술했으니망정이지... 사실 저희들은 결심은 했었지만 수술결과는 장담하지 못하였습니다.》

홍현수가 머리를 크게 끄덕이는것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나는...》 하고 의학박사는 홍현수를 내려보듯이 건너다보다가 엄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나는 이 제철소 책임비서동무의 눈치료를 급히 요구하는 연합당위원회의 긴급연락을 받고 내려온 담당의사요. 그런데 책임비서동무는 자기가 치료받아야 할 우리 병원에 올라오지도 않았을뿐만아니라 내가 내려오자 한 용해공의 눈부터 수술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소. 물론 용해공

의 눈도 고쳐야지요. 그러니 책임비서동무의 건강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린다는것을 명심해야겠소.》

《!!...》

홍현수는 머리칼이 응접탁에 닿도록 고개를 깊이 숙인채 앉아있었다.

방안에는 뜨겁고 승엄한 공기가 흐르고있었다.

《...그런것만큼 책임비서동무는 래일부터 일체 자기 사업을 중지하구 내 요구에 응해주어야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수는 영치를 약간 들었다놓으며 공손히 대답했다.

6

갑자기 계획에 없던 연합당확대집행위원회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이 회의가 지금까지 밀려온 방식상학과 련관된 긴급회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물론 계획에 있을리 없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나의 이러한 생각이 한시간도 못하고 뒤집어졌다. 회의안건은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로동자들의 건강관리와 로동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조직들의 과업이었다.

회의지도는 도당비서가 하였다.

먼저 홍현수책임비서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속공업부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중에서 해당한 부문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지금 우리 용해공들의 눈이 나빠지고있는데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몹시 걱정하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보안경을 구해오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안경을 사오자 그이께서는 친히 그 보안경알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여기에다 테를 잘 만들어서 용해공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보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토론 역시 준비시키지 않은것 같았다.

그대신 제철소병원 안과과장이 고열로동자 및 정밀부분의 로동자들의 시력감퇴실태를 연령별로 통보하였다.

다음으로 병원원장이 안경다리를 연신 쥐었다 놓았다 하며 구내진료소들에서 직장담당의사들이 로동자들의 건강관리부를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은 결함에 대하여 자기비판을 하고 한편 일부 직

장당조직들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부를 단 한 번도 리용하지 않고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있는데 대하여 날카롭게 의견을 제기했다.

회의는 집행계획서를 채택하는것으로 끝났다.

구성은 협의회형식으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은 회의였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나는 당일군으로서 일찌기 체험한적이 없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으로 하여 나는 도당비서가 연단에 나선줄도 몰랐다.

도당비서는 이제야 자기 차례가 왔다는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가끔 제철소에 내려오군하는 그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굽어보는듯한 회고 누르르레한 그의 통통한 얼굴표정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표정은 그렇지 못하였다. 지어 순박해보였다.

그는 사업수첩을 연락우에 펼쳐놓았지만 눈길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주고 입을 열었다.

《도당위원회는 ××제철소련합당위원회 책임비서 홍현수동무의 제의를 접수하고 신중히 토론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사업수첩을 내려다보았지만 할 말은 이미 머리속에 있는것 같았다.

《…거기에 기초하여 도당위원회는 새로운 대책안을 세웠는바 그에 의하면 래일 ××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에서 하계 되어있던 도적인 당일군 방식상학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구??…)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하마트면 벌떡 일어날뻔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귀에서 잉-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이때 도당비서가 마치도 나 한사람만을 납득시키려는듯이 마지막 말을 다시한번 반복했다.

《…방식상학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이제 하는 말도 주의해 들어야 한다는것을 암시하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재빨리 훑어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와 함께 도당위원회는 본인의 제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홍현수책임비서동무를 ××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두길동무 왔습니까?》

《예?!》

나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앉소, 앉소. 이상입니다.》

도당비서가 연단에서 내려왔으나 나는 그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날저녁 나는 용해공시절에 노동보호맥주를 마시고났을 때처럼 휘친거리며 직장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자전거를 련합당위원회 마당에 두고 왔다.

×

그로부터 보름후 나는 홍현수와 함께 강철규의 집으로 갔다.

이날은 강철규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다.

홍현수는 마치도 제집문턱에 들어서듯이 강철규네 부엌출입문을 열었다.

《아-니! 책임비서동지!!》 하고 웨치면서 저녁동자질을 하고있던 강철규의 안해가 물에 젖은 두손을 행주치마에 성급히 닦으면서 달려나왔다.

홍현수는 강철규의 안해에게 빙긋이 웃어보이며 부엌출입문을 잔잔히 훑어보았다. 그는 자기가 손수 그 출입문을 만든 목수이기라도 한듯이 문모서리며 손잡이를 만져보기까지 했다.

《음- 이제 출입문같아보이는군!》

《예, 훌륭한 문짝이 됐습니다. 책임비서동지에서 특별과업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택건설직장 목수아바이가 해주었습니다.》

강철규의 안해는 그저 반가움에 겨워 넉두리하듯 맛장구를 쳤다.

《아 아, 됐수다. 헌데 령감이 퇴원한 날인데 왜 집이 이리 조용합니까?》

홍현수는 이번에도 역시 주인처럼 방에 척 올라섰다.

그때에야 인적기를 느낀 강철규가 단복바지에 런닝그바람으로 옷방에서 불쑥 나타났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량손에 책을 들고있었다.

《아- 책임비서동지!! 야, 이거 정말…》

그는 책들을 열른 땅바닥에 놓고나서 홍현수가 내민 손을 잡아쥐고 세차게 흔들었다.

《헌데 뭘 합니까? 벌써 책을 보면 눈에 해롭겠는데…》

《아닙니다. 아 글썽 내가 입원한 사이에 집사람이 책을 인민반녀인들한테 함부루 빌려주어서… 그 책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들었다구… 그 래 책들을 좀 정돈하는중입니다. 고런데 왜 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래일 책임비서동지를 찾아가 인살 하자구 했는데.》

강철규는 이렇게 말하며 두권의 책을 재봉기다리열에 소중히 밀어넣었다.

《난 그런 인사보다두 병원의 진단대루 집에서 폭 쉬면서 눈을 안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던 홍현수가 나를 책망했다.

《아 왜 아직두 거기 서있습니까? 어서 들어오지 않구.》

그때까지 나는 열여놓은 부엌출입문밖에 서있었다. 왜그런지 선뜻 들어서게 되지 않았던것이다.

내가 천천히 방에 들어서자 강철규는 급하게 옷방에 올라가서 양복을 입고 내려왔으며 그의 처는 부엌에서 공연히 그릇가지들을 옮겨놓으며 서성거렸다.

《초급당비서동지가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다… 정말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방이 어지러워서…》

강철규는 홍현수보다 나를 훨씬 더 어렵게 대하였다.

그것이 나에게서 피로왔다.

《왜 난 뭐 못을 집인가? 허허… 그래 수술후과는 어떻게?》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러나 그로 하여 나는 진실과 위선의 이중적감정에 더 깊이 끌려들어갔다.

《예, 후과가 아주 좋습니다. 수술이랑 다 잘되었습니다. 초급당비서동지랑 관심을 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도 나때문에 할줄 모르는 외교를 하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위선이란 누구에게나 자유를 속박하는 유령과 같은것이다.

우리는 재털이를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홍현수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강철규가 권한 담배대에 무슨 비밀이나 있거나 한듯이 그것을 이리저리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머리를 쳐들었다.

《강철규동무,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강철규는 의아해진 큰 눈으로 나와 홍현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홍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동무, 강동무는 용해공으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쇠물을 뽑으면서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것만큼 이제는…》 그는 나를 돌아보고나서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것은 응당하고 또 이젠 강동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초급당비서동무랑 이미전에 설비교관의 책임을 맡기도록 토론이 있었다는데 나두 거기에 동감입니다.》

강철규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두번째 담배를 붙여물고있었다.

나는 새로 불인듯한 연분홍색갈의 벽지무늬며 알맞춤한 위치에 놓여있는 텔레비존수상기와 재봉침이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철규에게 돌려지도록 한 당의 배려가 먼저 은퇴한 다른 용해공들보다 못하지나 않은가를 타산해보았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것은 없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강동무, 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을 잘못해서 강동무한테 섭섭한 점이 많았었는데 조금도 개의치 말고 다 말씀하십시오… 지년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이제는 강동무네 집에 자주 오겠습니다.》

강철규는 세번째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비벼끄면서 머리를 쳐들지 않은채 입을 열었다.

《…내 면목이 없수다. 내가 눈을 혹사하여 백내장에 걸리도록 한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숨기려고 한것도 졸렬했지요. 숨긴다구 해서 모르고 지낼 우리 일꾼들이 아니지요… 제철소는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그만큼 불앞에서 치워나고도 아직 속물이었수다. 젠장!…》

(《제철소는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하고 나는 되뇌여보았다. 불앞에서 땀을 흘려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생각해낼수 없는 명언이다. 내가 만약 이미전에 강철규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는 백내장에 걸리지도 않았을것이며 우리가 그처럼 힘을 넣어 준비해온 방식상학도 중지되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강철규가 갑자기 재털이너머로 홍현수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책임비서! 책임비서가 오늘 나한테 새로운 눈을 주었는데 내가 가면 어디루 간단말이요?!…초급당비서랑 용해공시절 친구들처럼 이렇게 찾아왔는데 용해공을 내놓고 내 무슨 일을 하란말이요?… 난 평생 쇠물다루는 일밖에 다른 일은 못해보았소. 난 용광로를 떠나지 않겠소!… 이젠, 옆에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힘이 생기우다! 일은 이제부터요!!》

《강철규동무!!》

홍현수가 강철규의 손우에다 자기의 손을 덧놓았다.

《강동무! 강동무가 책을 헛읽지 않았구만! 참 좋은 말을 했소!…그러나 이번에 강동무가 새로운 눈을 받아안았다면 그것은 내가 준것이 아니라 당이 준거요! 우리 당이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순간 나는 목구멍으로 불뭉치같은것이 치솟아 오르는것을 견잡을수 없었다.

이때 하마트면 나는 《이번에 새로운 눈은 강철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안았소. 내가!》 하고 웨칠변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세차게 고통치는 심장속에 묻어두었다.

불앞에서 평생 일하며 땀흘리는 로동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로동자의 존엄은 그들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일꾼들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 시대 일꾼들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백내장에 걸려있던 사람은 강철규가 아니라 내자신이었다.

강철규한테 손을 맡긴채로 그의 빛나는 눈동자를 찬찬히 마주보던 홍현수가 갑자기 허리를 펴며 부엌쪽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주머니, 아 책임비서가 왔는데두 그냥 이렇게 맨입으로 앉아서 입 방아만 쥘으라우?》

《예- 부엌에서두 다 알구있수다아-》

어떻게 들으면 노래를 부르는것 같기두 한 그녀자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아주머니, 더두말구 그전에 내 광채구작업반에 <혁명화>내려갔다 교대루 돌아왔을 때처럼만 차리시우.》

《예- 올라갑니다.-》 하며 강철규의 안해가 벌써 맥주병과 낙지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우에 올라서고있었다.

나는 흰이를 드러내며 나에겐 방긋이 웃어보이는 강철규 안해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그만 어안이 병병해졌다.

언젠가 썩 오래전에 (무슨 명절이라고 기억된다.)이곳으로 이사오기전의 단칸짜리 강철규네 집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목이 받고 얼굴이 철색인 강철규의 처한테서 매우 뻥뻥한 인상을 받았다. 그때 나는 부모의 교양을 모르고 자란 전쟁고아이니 모든것을 랑해하는 립장에서 인차 자리에서 일어났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강철규 안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친절성이란 돈을 주고 살수 없는것이며 상대방에게 진심을 주는 뜨거운 인간만이 받아안을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나는 강철규가 철철 넘치게 부어놓은 커다란 맥주고뿌를 단숨에 내었다. 가슴복판으로 전류같은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자신이 강철규와 나 사이에 만들어놓은 장벽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쇠물과도 같은것이였다.

《초급당비서! 무슨 말이든지 좀 합세! 내 용해가사

공을 계속 해두 의견이 없겠지?》

나는 그를 정겹게 마주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강동무, 우리 방식상학준비를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였수다! 내 이번 방식상학에선 꼭 주동이 되겠수다!》

《그럼 난 강철규동무만 믿겠습니다.》

《예!!》

홍현수와 나는 땅거미가 질무렵에 강철규의 집을 나섰다.

우리는 남청진거리의 포석우를 묵묵히 걸었다. 이따금 자전거를 탄 로동자들이 조그마한 발전기전조등을 반짝이며 우리옆을 휩-지나가군했다. 탑식아파트의 활짝 열어놓은 어느 창문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나는 마치도 용해공시절에 퇴근길을 걸을 때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고 또 듣고싶었다.

나의 심정을 알아맞혔는지 홍현수가 입을 열었다.

《초급당비서동무, 아까 초급당비서동무가 강철규동무를 믿어준것처럼 이제 그가 주동이 되여서 방식상학을 성과적으로 치른다면 그는 자기의 존엄을 지켜준 당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쇠물로써 우리 당을 받들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당일군들이 로동계급의 존엄을 지켜주는것이 결국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의 존엄을 지키는것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책임비서동무, 그건 내가 할 말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많은 말을 대신하려고 했다.

우리는 더 기운차게 걸어갔다.

나는 뜨거운 쇠물을 끓이고있는 용해공들곁으로 어서 가고싶었다.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김동혁

이 땅에 꽃피는 계절이 와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산발마다 어리어있는 선렬들의 발자취
가는 길 험난해도 헤쳐가라고
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가슴에 소중히 품어보아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자욱마다 스며있는 선렬들의 붉은피

열백번 쓰러져도 일어나라고
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사나운 불바람 몰아쳐와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선렬들 물들인 붉은기 높이 들고
고난의 발자취 이어가라고
아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혁명의 성인의 도덕과 인품을 닮은 시대의 명작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 대하여-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한 시인 김만영은 또다시 수령님의 서거 2돐에 드린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를 명작으로 창작하였다. 이것은 시인의 창작계렬에서는 물론 우리 문학운동에서 특기할 사변이나 창작년조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아직 새 세대라고 말할수 있는 시인이 련이어 특출한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으며 서사시가 명작으로 될수 있는 표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참면모를 고찰해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은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이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체현하고있는 당과 수령,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해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는 의의있는 문제를 작품의 종자로 옳게 선정할수 있으며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이것이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이고 생명선이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방식이며 우리 문학의 승승장구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우리 당이 제시한 명작창작방도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파시한 작품이다.

서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평양시간은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력사, 영원한 **김정일** 동지의 력사이며 영원한 태양의 력사이라는 철학적무계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아 그것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관, 미학관에 맞게 형상하였다. 서사시는 종자와 제기한 문제, 형상 기교와 수법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데로 선택되고 활용되어 작품의 생리가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경애하

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담력과 기질,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체질화되어 서사시형상의 유기체를 이루었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닮은 시대의 명작이다.

서사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닮은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혁명의 성인의 도덕과 인품이 뜨겁게 형상된데 있다.

언뜻 지나가는 승용차만 보아도
수령님 타신 차는 아닌지
눈여겨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 마음
문득 광장의 주석단만 바라보아도
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와
더더욱 사무치는 이 그리움

수령님의 다정한 그 발자욱소리
오늘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평양
수령님의 후더운 그 숨결
오늘도 그대로 안고있는 평양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그
리움속에 달은 바뀌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어
느덧 두해가 지난 이 시각, 평양의 모습을 통하
여 느끼는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이 감정은 별
써 시인의 시야에서 환기된 주정이 아니다. 그것
은 여기 평양에서 탄생하시여 마지막순간까지 사
시며 그리도 평양을 사랑하시고 정을 부어오신
아버이수령님이여서 여기 평양에서 영생의 모습
으로 계시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의 세
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관에 뿌리를 둔 시대의
느낌이고 감정이다. 하기에 서사시가 두해전 위
대한 심장이 너무도 조용히 고동을 멈춘 그 새벽
2시에 인민은 안식의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지구보다 무겁게 실린
그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차마 인민에게 알
릴수 없고 또 알리지 않으면 안될 그 비보를 전
하지 못하시던 장군님의 모습, 눈물에 젖은 붓
을 들어 수령님의 위엄을 한자한자 새겨가시며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고 또 우러르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부각하였을 때 독자들은 혁명의 성인의 도덕과 인품을 가슴뜨겁게 감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시의 형상세계에 깊이 들어가며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번개치고 우뢰울던 그 새벽 2시부터 두해가 흘러가는 과정에 발현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충효의 세계를 되새기며 《아, 우리의 장군님은 진정 하늘이 낸 성인이지구나!》 하는 걱정과 탄성을 마음속으로 터뜨리는 것이다.

인간은 최대의 불행속에서 진리와 진실을 더 깨닫게 되는 법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 반만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가장 큰 슬픔인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우리가 천년을 두고도 깨닫기 힘든것을 한순간에 체험할수 있게 하였으니 우리 인민은 가장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속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사무치게 느꼈을뿐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류가 하늘이 낸분으로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과 똑같은 천출위인, 혁명의 성인이시라는것이 서사시가 격조높이 구가하는 주장이다.

성인은 보통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특출한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위인적자질만이 아니라 높은 도덕과 인품을 갖춘 완성된 위인이다. 성인은 모든 일을 세상리치와 도리에 맞게 처리하며 만사람을 자애로운 손길로 이끌어주는 높은 도덕과 인덕의 소유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전지전능의 비범한 능력과 함께 가장 숭고한 도덕과 한없이 높은 덕망을 지니신 혁명의 성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로 인한 우리 인민의 슬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것이였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주가 깨여져나간듯한 그 거대한 공백, 위대한 태양을 잃은 우주의 공허를 위대한 태양으로 꼭 채워주신, 우주창조의 신화와도 같은 전설아닌 현실을 안아오시였다. 바로 그 위대한 신비의 힘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실성이며 가장 숭고한 도덕이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나 서거하신 후나 변함없이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며 인민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덕망과 인격이다. 서사시에서 펼쳐지고있는 평양시

간을 영원한 수령님의 시간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방송개시음악을 하도록 하시고 개신문을 세우고도 불멸의 혁명송가를 만년대대로 부각하게 하시는 장군님의 충효의 마음, 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에 온 나라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시는 그 뜻, 수령님 구상대로 거창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고 수령님식대로 언제나 인민을 찾으시며 헌신하시는 그 거룩한 자욱, 여기 평양에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해 지새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형상에서 우리는 완성된 혁명의 성인의 거룩한 품모를 보게 된다. 서사시는 수척해지신 그이의 모습을 보며 녀려하는 일군에게 《내가 잠을 덜자고 내가 휴식을 덜해야 우리 수령님 영생하신다》고 모든 심혈을 다 바치시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개방과 그 충효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수령님의 녀원이 활짝 꽃피나고있는 우리 혁명의 빛나는 현실과 전도양양한 미래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성인의 품모를 한껏 부각하고있다. 성인의 도덕과 인품은 아버지 수령님 서거 2돐을 맞으며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웅장하고 위엄있고 숭엄하게 꾸리시여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자신의 심장속에 백년천년 영원히 고동칠 의리의 태엽, 도덕의 태엽, 충효의 태엽을 감으시는 걱정의 화폭속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자주적인류가 바라는 그 추대를 미루시고 3년간 상복을 벗을수 없다시며 조상전래의 관습우에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도덕의리관을 창조하신 위대한 인간의 모습속에 정화를 이루고 뜨겁게 어려있다.

참으로 서사시에 형상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도덕의리의 세계는 한점의 티로 없는 순결무구한 세계이며 불타는 열정의 세계이다. 바로 성인의 세계속에 아버지수령님을 받들어모시여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백년천년을 내다보며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나가도 0.001프로도 미흡한 점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가 맥박치고 수령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라면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이로 모든 사색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며 모든 중하를 감당하시고 천백가지 일을 다 헤아리시는 충효성의 최고화신의 모습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혁명의 성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도덕과

인품을 훌륭히 형상한 여기에 서사시가 세기의 창공높이 빛나는 시대의 명작으로 된 근본요인이 있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관, 미학관을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최상의 수준에 이른 시대의 명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다 같이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는데 우리 문학작품창작의 목표가 있다는데 대하여 늘 가르치고계신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이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점차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통일, 철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의 통일, 사상과 정서의 통일을 잘 보장함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서사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고상한 내용이 세련된 형식과 완벽하게 통일되어있으며 당의 의도에 대한 민감성과 그에 대한 시적형상의 완벽성, 생활과 철학의 결합,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통일로 구현된 서정성의 강화 등으로 사상예술적풍격을 더욱 높이고있다.

한마디로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담력과 기질, 감정정서를 그대로 형상화하였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정치적대를 굳건히 세워놓음으로써 사상성의 최고표현인 정치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정치에 복무하는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의 요구를 관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의 필연성과 확고성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평양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령님의 영생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기원되고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는 작품의 기본주장에 맞게 서사시전편의 모든 형상구조가 튼튼히 이루어지고있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리 전연초소를 시찰하시고 돌아오시여 평양역의 시계탑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회억의 자욱을 찍어나가시는 위대한 력사의 한순간을 노래하고있으나 포괄하고있는 력사적사변과 생활은 방대하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시원이 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튼튼없이 복잡다단한 우리혁명의 빛나는 승리적전진이 시적화폭속에 부각되어 있으며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

도, 풍모의 위대성으로 칭송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불패할 태일을 가지고있다는 확고한 신념의 열정으로 격조높이 구가되고있다. 서사시가 세상에 대고 격찬하는 이 주장은 강한 서정으로 안반침된 철학과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의 금선을 강하게 울려준다. 서사시의 심오한 사상적진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의 위대함과 혼연일체가 된 격동적인 감정, 열정의 충격, 웅건한 서정의 맥박으로 충만되고있다.

이러한 시형상이 깊은 감동을 가지고 뜨겁게 안겨오는것은 진실성과 철학성이 구현된데 있다.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진실성과 철학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이 양자는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서사시는 시형상의 진실성으로 철학성을 더욱 심오하게 하고있으며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의 깊이있는 구현으로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현실의 진실한 반영은 비단 예술에만 고유한것이 아니다. 개념적인 저술들속에서도 현실의 진실은 반영될수 있다. 그러나 예술적진실은 구체적이며 감성적이며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며 일반성을 표현한다는데 있다.

이 서사시에서의 진실성은 생활 그자체에 뿌리박으면서도 그것의 단순한 기록적라벨이나 복사가 아니라 위대한 사변들에 대한 깊이있는 서정화를 통하여 구현되고있다. 여기에는 높은 미학적견지에서 시적세부의 옳은 선택과 평가, 깊이있는 사색과 진지한 탐구, 나래치는 시적환상과 서정화의 훌륭한 숨씨 등이 통일적으로 활용되고있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인상깊게 구사된 어버이수령님과 지팡이에 대한 세부에서와 금수산기념궁전의 테프를 꿰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위에서조차 시적생명을 끄집어내고있으며 그 바탕에 숨쉬고있는것을 파헤쳐 거룩한 성인의 모습으로 힘있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서 시적환상은 생활사실에 토대하여 그것의 본질적측면을 옳게 재현함으로써 생동한 미학적현실로 되게 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되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서사시에 구사되고있는 모든것이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생활적진실로 처리되고있는 비결이 있으며 생활과 철학이 결부되어 진실성과 철학성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 근본고리가 있다.

특히 이 서사시에서 시적환상의 힘에 의하여 미학적진실로 재현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생동한 형상은 매우 성공적이다. 서사시에서 심각히 추구된 심리세계의 묘사는 성인의

한없이 고매하고 숭고하고 깊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체험할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시인은 여기에서 대담한 시적환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욱자욱 따라서고 그이의 심중 갈피갈피에 감히 들어서며 사람들을 거룩한 성인의 마음속으로 안내한다.

정원의 전나무잎새들도 창가에서 고요를 지키드리고 전등의 불빛도 내리기 저어하는 집무실의 깊은 밤, 겹쌓인 일감을 놓고 자신도 모르게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아 전화기를 드시는 그 장면 하나만이라도 상기해보자.

수령님을 찾으시는 장군님께
아무 말씀도 못드리는
교환수처너
목메여 흐느끼는 소리...

그제서야 장군님
무너져내리는 역장 다시금 누르시며
오히려 교환수처너를 위로하시나니
-안됐소, 교환수동무
정말 안됐소!-

아, 조국이여 인민이여
기쁘면 기쁨을 놓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놓고
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이야
우리 더 말해서 무엇하리

시인의 미학적리상, 철학적사색의 깊이에 의하여 재현된 이 장면은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사실전달이 아니다. 여기에는 혁명의 성인을 모시는 성인의 높은 도덕의리관이 풍부한 정서의 물결과 더불어 소용돌이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을 체험하는 넓은련상의 공간으로 나래치게 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쳐주는 여운이 있다.

서사시의 이러한 형상은 철학의 대가, 탁월한 예술의 대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관, 미학관의 투철한 구현이며 명작의 표징을 실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특출한 자질과 능력, 숭고한 도덕과 인품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닮아 형상기교면에서

도 완전무결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명작창작에서 기교는 아주 중요하다. 물론 기교는 작가의 사상과 분리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기교의 부족에 사상만으로 보상되는것도 아니다.

기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훌륭한 체득은 명작창작의 기본요인이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창작성과는 이를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서사시는 그 구성에서부터 차분하지 않고 선이 굵고 명백하다. 서사시에 도입되고있는 력사적 사실은 방대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하나의 사상정서적주장으로 조화롭게 통일되어있으며 형상적주장도 철학적심오성에 있으면서도 난해하지 않고 명료하여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서정화되어있다.

서사시에 관통된 서정은 시대의 충격적인 사변의 격동성, 그에 대한 흥분과 절절한 느낌, 평양시간에 건주운 주체혁명위업의 영구불멸성과 승승장구성에 대한 거세찬 신념의 정열과 랑만으로 출렁이고있다. 서사시가 풍기고있는 강한 서정성은 이 작품에서 활용되고있는 주정토로와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이 작품에서 주정토로는 성인의 거룩한 품모에 매혹된 우리 인민들의 가장 숭고한 감정과 밀착되어있으며 그들의 감정의 풍부성과 심각성을 전달하고있다. 때문에 서사시의 주정토로를 시인자신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추앙심, 매혹된 념과 열정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여기에서 주정토로는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혁명의 성인을 모시고 혁명하는 위대한 우리 시대, 우리 인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을 맞추며 사대와 인민의 지향과 결합되어있는

그러한 심장만이 가질수 있는 내적격동의 분출로 되고있다. 이 작품에서 주정토로는 서사시의 종자를 해명하고 사상정서적주장을 형상적으로 감득시키는 기본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성인의 거룩한 품모에 체현되어있는 지혜의 절정, 신념의 산악, 정열의 화산과 같이 지성이 있고 담이 큰 심장의 울림으로 통소리가 나며 랑만적 열정으로 이글거린다. 그리고 심오한 사상감정으로 독자의 리성을 이끌어주고 가장 숭고한 도덕으로 인간의 랑심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풍만한 정서로 심장을 틀어잡는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서사시의 종자가 직접 체현된 몇개의 시련만을 레들어보자.

수령님의 심장에서

높이 고동치며 시작되고
 역사를 이끌며 굽이쳐온 그 시간은
 해빛을 뿌려
 별빛을 뿌려
 이 땅에 광명을 준 시간
 인민에게 열을 준 시간
 조국에 활력을 준 시간

(1장에서)

우리의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도
 그 어떤 세기의 길이로도
 재어볼수도 헤아려볼수도 없는
 숭고한 도덕관으로 흐르는 시간
 숭고한 의리관으로 흐르는 시간

(2장에서)

그렇다, 평양시간은
 시대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력사
 거룩한 그 자욱으로 이어가시는
 영원한 **김정일** 동지의 력사
 영원한 영원한 태양의 력사

감사를 드리노라
 인민의 우리 아버지
 수령님의 심장이
 영원히 높이 고동치게 하여준
 우리 당에 인민은 감사를 드리노라
김정일 동지께 조국은 영광을 드리노라

(3장에서)

서사시는 언어형상에서도 완벽하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시에서 기본속성인 서정의 구현도 언어표현에 의하여 그 농도가 좌우된다. 이 서사시의 서정미를 고찰해보면 구사된 언어의 질, 언어의 맛, 언어의 향기에 의하여 그것이 담보되고 있다. 여기에 리용된 단어는 단순히 어휘적의 미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생활력과 개성적인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서사시에서 시문장은 단순히 사상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억양에 의하여 실현된 정

서-사상적물결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성인의 숭고한 도덕과 인품에 대한 강한 매혹과 절대적인 숭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만큼 시어들은 격찬의 감정이 스며여있으면서도 친근하고 생활적이다. 서사시의 1장에서 평양의 모습에 대한 소박하고 친근한 시적묘사, 2장에서 푸르른 솔향기, 만발한 살구꽃향기 한데 어울려 모란봉을 감돌아흐르는 개신문거리에 대한 그윽한 정서 풍기는 시적묘사, 3장에서 사시창철 수령님이 그리워 찾아오는 인민들이 비 한방울, 눈 한송이라도 맞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그리도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효성에 대한 주정토로 등 서사시의 전편에 활용된 시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세계에 깊이 끌어들이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언어형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는 사상리론활동과 문필활동을 벌이시면서 우리 말과 글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해결하고 완성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닦았다.

작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과 로작을 많이 읽고 새기면서 문장과 단어표현의 묘미를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였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킨 측면, 주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한 측면, 인민이 받아들일수 있는 쉬운 말로 심오한 뜻을 표현한 측면, 담력있고 열정에 넘치는 독창적인 새로운 표현을 탐구한 언어구사의 빛나는 모범을 창작에 적극 구현하였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닮음으로써 시대의 명작이 된 특출한 작품이다.

서사시의 창작성과는 당의 문학,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을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이 어떻게 지향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실로 귀중한 해답을 주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 정서를 완벽하게 구현한 명작을 창작함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장수봉

수십쌍의 눈길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존경과 선망에 넘친 눈길들이다. 어딘가 스승을 어려워하는듯한 주눅이 든 얼굴표정도 보인다.

김일성 종합대학 한성규교수는 조선문학사 졸업시험을 앞두고 지금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고있는중이었다. 불그레 화색이 도는 우뚝뚝한 얼굴에서 조용히 빛을 뿜는 암갈색 눈이며 묵직한 중량감이 내뿜기는 느긋한 몸가짐...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기쁨이 느껴지는 학자의 모습이다.

이제는 학생들의 질문도 뜸해졌다. 교수는 투시하는듯한 눈길로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에 넘친 표정들이다. 아닌게 아니라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들어보니 탐구를 깊이 하였다는것이 석연히 알렸다. 그런데도 교수는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듯한 느낌을 좀처럼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단순한 로파심인가? 아니면...

하긴 교수도 어느덧 환갑고개를 넘어섰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는 저술사업이나 하는게 어떻가고 자주 권고들 한다. 혹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졸업시험으로 될지도 몰랐다. 아마 그때문에 오는 지나친 책임감은 아닌지...

불쑥 교수가 누군가를 지명하였다.

《정순영동무》

그러자 앞에서 너학생이 일어선다. 반듯한 이마아래 맑고 그윽한 눈을 가진 처녀였다.

《학생은 조기천선생의 시 <조선은 싸운다>를 공부했을테지.》

너학생은 류달리 긴 속눈썹을 연신 깜빡이다가 자신없어하는 어조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예, 물론...》

교수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 시의 4장부분을 읽어보라고 말하였다. 순간 너학생은 당황해하는 빛을 감추지 못한다. 잠시 고개를 숙인채 머뭇거리기만 하던 그는 이윽해서야 가름한 뺨을 스치며 흘러내린 머리칼을 한손으로 쓸어넘기고 나서 나직이 시를 낭송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동틀무렵 그는 홀로 남았다
눈내리는 고지에

처녀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차분한 정서로 채색되어있어 퍼그나 감미롭게 들려왔다. 화술도 류창하였고 감정도 그만하면 팬찮았다. 하지만 교수는 가늘게 양미간을 찌프렸다. 낭송자가 시의 체험세계보다도 세련되게 다듬어진 운률과 어휘에 더 매력을 느낀듯싶었던것이다.

(너무 미끈해. 꼭 배우연기같은걸...)

학생들은 숨소리마저 숙인채 처녀의 시랑송을 열중해서 듣고있었다. 맏시있게 차려입은 푸른색 교복들이며 싱싱한 젊음이 뿜어나오는 혈기찬 얼굴들, ...교수는 그들 매 사람을 인민군 전사가 홀로 남았던 동틀무렵의 그 눈내리는 고지우에 세워보았다. 왜 그런지 교수에게는 그 시각 자기의 제자들이 애되게만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느덧 랑송이 끝나자 학생들속에서 가벼운 탄성이 일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가? 교수가 눈을 감은채 천천히 도리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기웃거렸다.

한성규교수는 말없이 창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을날의 서늘로운 음영이 건뚱거리는 창문 너머로 낮익은 대학전경이 비껴왔다. 수려하게 솟아오른 정원수들, 은은한 선물이 들려오는 룡담산언덕을 경건하게 우러르는 대학교사들, 그 언덕우에 서서여 한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먼 지평선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문득 무거운것이 가슴 한가득 솟구쳐오른다.

그렇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가슴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참된 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제서야 교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미타한 심정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어렵듯이 깨달은듯싶었다.

그는 흥분을 누르며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다시 돌아온 교수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있었다. 교수는 영문을 몰라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미안하오. 이렇게 졸업시험을 앞둔 동무들을 대하고보니 지금까지 해온 내 강의가 어떤지 미흡하게 여겨지는구만...》

한동안 손에 든 봉투를 묵묵히 들여다보던 교수는 얼마후에야 다시 말을 이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나는 해방후에 종합대학을 다닌 첫 세대 졸업생들중의 한사람이요. 세월은 많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나는 학우들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소. ...그들가운데는 박문수라는 친구도 있었지.》

교수는 말을 멈추더니 봉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것이였다. 그것은 네모나게 접은 여러장의 종이였다. 누렇게 바랜 그 종이들은 눈같이 흰 봉투와 강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교수는 가늘게 펴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쳐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사진이라도 들여다보듯 유심히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덩둘하게 휘갈겨 쓴 보라빛 잉크의 글줄들이 박문수의 뜨겁고 어글어글한 눈빛처럼 가슴에 젖어왔다. 교수는 독백이라도 하듯 나직이 말한다.

《이 편지는 전선에서 그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요. 왜 그런지 나는 오늘 이 편지를 동무들에게 보여주고싶구만.》

그리고 나서 교수는 방금전에 시랑송을 한 녀학생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녀학생은 교수가 내미는 편지를 조심히 받아들였다.

잠시 후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녀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성규교수는 흥벽을 때리는 심장박동의 세찬 박동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과, 이게 얼마만인가. 어제 련락병이 자네의 편지를 가져왔을 때 난 너무 기쁨김에 애어린 전사의 어깨를 세차게 후렷네. 련락병은 금시 숨넘어가는 소리를 치며 엄살을 부리더군. 하하하...

정말 반갑기 그지없었네. 1차진공때 편지를 주고받은 뒤로는 처음 받아보는 자네의 소식이 아닌가. 나는 즉시에 편지를 온 중대앞에서 독보하였네. 그런데 편지를 읽고났을 때 한 대원이 불쑥 이렇게 묻는게 아니겠나.

<중대장동지, 현대 그 창과요 홍과요 하는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절 소리내어 웃고말았네. 하긴 그 친구야 우리들의 사연을 알리 없지. 자네도 눈에 선하겠지. 50년봄에 룡라도에서 조직했던 학급야유회가말일세.

어디를 보나 온통 발그스름한 꽃물이 녹아흐르던 화창한 그 봄날, 우리는 학구열에 달아오른 머리들을 식히며 새 조국의 봄정취를 마음껏 즐겼지. 연록빛 봄풀들이 복스럽게 돌아난 강기슭에서 시랑송모임도 하고 푸른 가지들이 주렷발처럼 드리운 버들숲에서 보물찾기도 하고... 청류벽기슭에서 룡라도까지 해염처은 우리가 늑실늑실 흘러가는 대동강의 용용수를 바라보며 한숨 돌리던 모래터가 생각나나. 바로 뜨겁게 달아오른 그 모래터에서 누군가가 말을 꺼내는바람에 우리는 한바탕 바다이야기를 벌려놓았더랬지.

남포가 고향인 자네는 흰 갈매기 날아에는 푸른 서해바다야말로 천하절경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청진대기인 나는 온 바다가 시뻘건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동해의 해돋이야말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경치라고 목청을 돋구어 자랑했었지. 동해에 비하면 서해도 바다인가고 이죽거리는 나에게 별절게 열이 올라 달려들던 자네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져나오는것을 참을수 없구만.

결국 둘다 지쳐버린 우리는 별수없이 학급에서 그중 박식한 옥필무에게 판결을 물었더랬지. 그때 후덕스러운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그 친구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네.

<자네들 말은 다 옳다고 보네. 그런데 난 좀 다른 생각이야. 동무들도 알다싶이 내 고향은 열두삼천리벌일세. 해방후 우리 집에서는 난생처음 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에 벼를 심었었네. 가을이 오자 땅이 꺼지도록 온 들판이 누렇게 무르익었지. 구수한 낱알향기가 들 한가득 차넘치는데 가을바람이 선들 불뉘듯 무겁게 고개숙인 벼이삭들이 파도쳐 넘실거려네. 그 광경을 어찌 만경창과에 비기겠나. 물론 서해도 볼만하고 동해도 멋있겠지. 하지만 난 내 고향 열두삼천리벌의 그 금과 만경이야말로 정말 절경중의 절경이라고 생각하네.>

역시 시인이 달랐어. 흠냄새 풍기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모두를 벼바다 설레이는 열두삼천리로 이끌어갔네. 그때부터 학급동무들은 서해의 푸른 바다를 자랑한 자네를 보고는 《창과》라고 부르고 동해의 붉은 해돋이를 자랑한 나를 두고는 《홍과》라고 불렀지. 그리고 황금의 벼바다를 자랑한 필무를 가리켜서는 <금과>라고말이리세...》

한성규교수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정말 환희로운 나날들이었다. 포부는 또 얼마나 컸던가. 마치 조국의 앞날은 자기들이 다 걸머진듯한 심정이었다. 성규는 이름있는 소설대가를 꿈꾸었고 옥필무는 시인이 되어 해방조국의 벅찬 생활을 마음껏 노래하겠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문수는 ... 그 친구는 지독한 영화광이었지. 영화연출가가 되는것이 문수의 들도 없는 소원이었다.

당시 학급에서는 문학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영화관람을 자주 조직하였는데 웬일인지 문수는 남들과 달리 꼭꼭 두번씩 관람하곤하였다. 그것을 이상스레 여긴 동무들이 어느땐가 물으니 그가 하는 말이 한번은 관람석에 앉아 관중의 한사람으로써 영화를 관람하고 다음번은 연출가의 견지에서 감상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무들은 얼마나 배를 그러안고 웃었던가.

참으로 힘의 불꽃이 튀어나고 희망이 꽃구름처럼 피어나는 시절이었다. 녀학생의 목소리는 점점 감동에 젖어들었다.

《지금 여기는 캄캄한 밤이네. 한시간후면 우리 중대는 습격전투에 나가게 되네. 새로운 공격작전의 첫 돌파구로 되는 중요한 전투일세. 오늘 항일투사인 사단장동지가 중대에 내려왔다가 불쑥 나에게 묻는게 아니겠나.

<중대장동문 전쟁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다지?>

<그렇습니다, 사단장동지.>

그러자 사단장동지는 미더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네.

<음. 잘 싸우기 바라오. 난 동무를 민소.>

이미 수십차례의 전투를 치르어온 나지만 왜서인지 사단장동지의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도무지 가라 앉힐길 없구만. 마치 대학시절 시험을 앞둔 그 시각처럼말이야.

이보게 창과, 전선으로 나오기전 마지막 시험장에서 선생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난 동무를 민소>...》

한성규교수는 추억의 빛이 서려도는 눈길로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때도 지금처럼 질의응답시간이었지. 교수는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듯 가없이 펼쳐진 높푸른 창공을 하염없이 더듬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간밤에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설친 성규는 그날 아침 여느때보다 썩 늦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보니 호실동무들이 보이지 않았다. 성규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이틀후에 그들은 《현대소설사》졸업시험을 치게 되어있었던것이다. 3학년 진급시험기간에 치는 마지막시험이었다.

어제 학급반장인 성규는 동무들에게 마지막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나 학급전원이 최우등을 쟁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부분의 동무들이 성규의 그 호소에 기꺼이 호응해나섰다. 그런데 몇사람만은 머리를 긁적거리는것이였다. 그중에서도 박문수가 더욱 그러하였다. 문수는 해방전에 청진부두에서 고역을 치르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문명을 퇴치하고 대학까지 오게 된 동무였다. 그러다보니 워낙 기초가 약한데다가 전공만 중시하고 다른 과목을 홀시하는 경향까지 있어 성격이 더구나 시원치 않았던것이다. 성규는 이번에는 단단히 다물아야겠다고 속다짐하며 오금을 박았다.

《여러말 할것 없소. 아무튼 이번 시험에서 최우등을 못하는 동무는 학급에서 되게 문제를 세울테니 그리 알라구.》

아마 그래서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아침부터 서두른 모양이다. 성규는 얼른 자리를 정돈하고나서 책을 끼고 식당으로 향하였다. 하늘은 비가 오려는지 흐릿하고 불투명했다. 습하고 눅눅한 대기속에서 장미꽃향기가 진하게 퍼돌고있었다. 성규는 몽클 풍겨오는 꽃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이제 마지막시험을 치르고나면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누구나 고대하는 방학이지만 성규내 학급동무들에게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은 류다른것이었다. 바로 지난봄 바다에 대한 론쟁이 벌어졌던 룡라도 모래불에서 그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는 여름방학기간에 학급전원이 동서해안을 답사하기로 일치한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얼마나 여름방학을 손꼽아 기다리었던가. 성규는 벌써부터 부

풀어오는 행복감에 가슴을 들먹이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식당에 이르니 기숙사생들이 식당안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그가 식당입구에 이르렀을 때 습관적으로 눈길을 쳐들었다. 거기에는 칠판이 걸려있었는데 그날의 지시사항이며 우편물소식같은것이 적혀있었던것이다. 다음 순간 무심히 칠판을 쳐다보던 성규의 눈길이 놀라움으로 굳어져버렸다. 칠판에는 여느때와 같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뜻밖에도 공화국 내무성보도가 썩여져있는것이 아닌가. 적들이 38선 전연에 걸쳐 우리측 지역을 1~2키로메터나 침공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백목으로 다급히 휘갈겨쓴 글씨가 사태의 급박성을 더욱 강조해주는듯싶었다.

(놈들이 또 도발을 거는건가?)

근래에 들어와 더욱 우심해지는 적들의 도발책동이었다. 성규는 착잡한 생각을 굴리며 식당안에 들어섰다. 식탁우에는 일요일이면 늘 그러하듯이 푸짐한 특식이 올라있었는데 그것은 방금전에 본 내무성보도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는 평화의 분위기를 암시해주고있었다. 어느덧 식탁을 비우고 흐뭇해서 나오던 성규는 다시금 칠판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칠판에는 이미의 내용외에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단호히 격퇴하겠다는 위협적인 글발이 첨가되어있는게 아닌가. 글씨도 아까와는 달리 명백해지고 단호해진듯싶었다.

성규는 무엇인가 철렁하는 내심의 충격을 느꼈다. 엄청난 예감이 그의 뇌리를 비수같이 찌르고 들었던것이다. 복치듯이 쿵쿵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걸음을 옮기는데 아닌가 아니라 라지오의 보도내용을 옮기는 누군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민군대가 전 전선에 걸쳐 반격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세차게 뛴뛴 심장이 쿵 멎어버리는것만 같았다.

《전쟁이로구나!》

성규는 입속으로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렇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던것이다. 어디선가 먼 우뢰질소리가 들려온다. 꺼먼 흑구름이 서리서리 타래쳐오고있었다.

한동안 얼어붙은듯 서있던 성규는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부르쥐고 본관창사로 달려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질의응답을 빨리 조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던것이다. 맹렬한 흥분이 피줄로 줄달음쳤다. 터질듯이 푸닥거리는 심장의 다급한 박동소리가 고막을 세차게 두드려대고있었다. 사품쳐끓는 감정을 숨가쁘게 걷어안은채 강좌실 문을 여니 마침 방안에는 시험과목을 담당 한 심청하선생만이 홀로 앉아있었다. 휴식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 집필에 여념이 없던 선생은 숨

이 턱에 닿아 혈떡거리는 성규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성규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교원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질의응답을 오늘 조직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굵은 밤색테안경속에서 교원의 두눈이 가늘게 쪼프려졌다.

《무슨 일이요? 질의응답이야 래일 하게 되어있지 않소?》

성규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교원의 말대로 질의응답은 시험전날인 26일에 하기로 되어있었던것이다. 하다면 어째서 자신은 질의응답을 오늘로 앞당기려는것인가? 그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단지 모든것을 앞당겨야 한다는, 막대한 사변속에 한시바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촉박감만이 온몸을 무섭게 채찍질하고있을뿐이였다.

이상하게도 심청하선생은 더 따져묻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자고 선선히 응낙하는것이였다. 성규는 너무도 반가운김에 교원에게 꾸벅 절을 하고나서 강좌실문을 나섰다. 11시까지는 인제 2시간정도 남아있었다. 그때까지 동무들을 다 모이게 할수 있을까? 기숙사생들은 그렇다치고 시내에 흩어져있는 외박생들이 문제였다. 성규는 초조감을 달래이며 내쳐 강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있을 기숙사생들을 움직여 시급히 연락을 띄워야겠다고 걱정하였던것이였다. 두세계단씩 쾅쾅쾅쾅 뛰어넘어 4층으로 달려올라간 성규는 숨돌릴새 없이 강의실 문을 열어제꼈다. 순간 그는 우뚝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놀랍게도 학급전원이 기다리리라도 한듯이 모여 웅성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성규는 어리둥절해진 눈길로 동무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질의응답을 하는줄 어떻게들 알았소?》

그러자 누군가가 대뜸 격해서 부르짖는것이였다.

《질의응답이 다 뭐가. 전쟁인데!》

또 다른 목소리로 들려왔다.

《반장은 아직 잠잠이구만. 저길 좀 보라구!》

성규는 그가 가리키는 칠판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활발한 영어문자로 《전선으로!》라고 휘갈겨 쓴 구호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제야 성규는 예전과 달리 엄숙해진 강의실의 공기를 느낄수가 있었다. 덮어버린채 한켠으로 밀어놓은 학습장들, 황황 불타는듯한 눈동자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성규는 집짓 엄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이건 누가 썼소?》

그 물음에 한 친구가 주저없이 나서는것이였다.

《내가 썼네. 뭐가 잘못됐나? 미국놈들과 싸워야겠는데 응당 영어로 써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그의 두눈은 열기가 여러 번 뜨키고있었다. 성규의 가슴도 세차게 뛴뛰었다.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가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박문수였다. 문수는 칠판으로 달려나오며 한손을 들어 허공을 쳐갈랐다.

《무슨 쓸개빠진 영어판말인가! 이왕이면 우리 말로 먼저 쓸 노릇이지!》

그리고는 칠판 맨 옷자리에 우리 문자로 큼직하게 《전선으로!!!》라고 써내려갔다. 그가 감탄부호를 세개씩이나 힘있게 휘갈기자 동무들속에서 소나기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잘한다. 잘해!》 《역시 홍파가 제일이다!》

눈뿌리가 화끈해왔다. 뜨거운 피가 울컥 목을 치받는것 같았다. 불같은 친구들! 성규는 감동에 겨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질의응답은... 그는 딱한 표정으로 동무들에게 물었다.

《동무들, 11시부터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걸 어쩌면 좋소?》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여기저기서 항변의 목소리들이 튀어나왔다.

《조국이 위협에 처했는데 시험이 다 뭐가?》

《난 시험은 못쳐도 당장 전선에 나가야겠네.》

《아무렴. 시험은 전쟁을 이기고와서 쳐도 늦지 않아!》

동무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들을 내두르며 제가끔 떠들었다. 성규는 어지간히 바빠났다. 하지만 그라고 무슨 수가 있겠는가. 이 불도가니 같은 친구들을 막기에는 그의 심장에 흐르는 피가 너무도 뜨거웠던것이다. 나중에는 성규자신도 화염마냥 휘몰아치는 드세찬 힘의 사품속에 어쩔수없이 휘말려들고말았다.

서로 말을 가로채며 열변을 토하는 속에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문이 열리더니 심청하선생이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삼시에 강의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심청하선생은 제자들의 열기띤 모습들을 둘러보다가 칠판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칠판위에 휘갈겨진 격동적인 구호들, 그것은 그대로 거센 숨결이였다. 조국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청춘들의 높뛰는 피방울이였다.

오래도록 칠판을 들여다보던 교원은 한참후에야 천천히 학생들쪽으로 돌아섰다. 안경을 낀 그의 얼굴이 어둑하게 흐려져있었다.

《이건 뭐요?》

노기띤 음성이 울려왔다. 성규가 모두를 대신하여 교원앞에 나섰다.

《선생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단마디명창이였다. 마치도 그 한마디에 수백가지 사변이 다 응축되기라도 한것처럼.

심청하선생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다는듯 당당하게 서있는 애젊은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어이없어하는 어조로 물었다.

《나도 알고있소. 그런데 어쩔다는거요?》

이번에는 성규네가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어쩌면 전쟁이라는 낱말을 저리도 폐사롭게 받아넘길수 있단말인가.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하기나 한듯이. 그들은 스승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심선생은 그러는 제자들을 조용히 눈여겨보다가 교탁앞에 나서며 말하는것이였다.

《중소. 그럼 정말로 전선에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질의응답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은 묻는듯한 눈길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자, 시험공부과정에 이해 안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제기하시오.》

모두들 머리를 움츠렸다. 줌전의 그 호기롭던 기세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다시금 스승앞에 선 학생이 되어버린것이다. 누구도 선뜻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방금까지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욱욕거리던 그들이었으니 질의응답준비를 제대로 하였을리는 만무한 노릇이였다.

오래도록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선생은 피로하게 흘러가는 그 침묵속에서 사랑과 증오의 피가 가슴아프도록 고통치는 젊은이들의 맥박을 듣고있었다. 한참후 선생은 가벼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일렀다.

《그것보오. 그레가지고도 전선에 나가겠다고 안되겠소. 반장동무, 질의응답은 래일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시험은 예정대로 27일에 치겠소.》

심청하선생은 차갑게 번뜩이는 안경을 추슬러 올리며 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선생님!》 하며 한 학생이 성급히 일어서는것이였다. 욱필무였다. 평소에 과묵하던 그로서는 너무도 당돌한 행동이였다. 그래서인지 교원도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였다. 필무는 조금 주저하는듯하다가 교원에게 물었다.

《저, 한가지 제기해도 좋겠습니까?》

《어서 말하시오.》

《시험을 래일로 앞당기면 안되겠습니까?》

순간 붓초리같은 교원의 눈섭이 의문부호처럼 꿈틀거렸다. 너무도 뜻밖이었던것이다.

시퍼런 섬광이 방안에 번뜩인다. 잠시후 멀리 않은곳에서 하늘을 뒤마는듯한 천둥소리가 구울러왔다. 학생들은 다시금 바람만난 숲처럼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문수가 벌떡 일어난다.

《선생님, 래일은 너무 늦습니다. 오늘 오후에 칩시다.》

학생들이 더욱 열이 올라 웅성거렸다. 그들은 터진 홍수마냥 스승앞이라는것도 잊고 저마다 흥분해서 부르짖었다.

《그렇바엔 차라리 지금 당장 칩시다!》

《미국놈들이 우릴 먹자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시험공부나 하고있겠습니까!》

《선생님, 저희들을 이해해주시시오!》

다음 순간 격노한 스승의 목소리가 온 강의실을 들끓다놓았다.

《뭐라구?! 한가롭게 시험공부나 한다구?! 누가 시험을 가지고 흥정할 권리를 동무들에게 주었소? 누가? 전쟁이 터졌으니 공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총이나 잡으면 그만이다 이거요? 그렇다면 동무들은 무엇때문에 지금껏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왔소? 단지 글줄이나 외워바쳐서 졸업증이나 받자는것이였는가.》

교원은 거칠게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학생들은 숨죽은듯 그자리에 얼어붙어있었다. 그렇듯 격해하는 스승의 모습을 그들은 처음 보았던것이였다.

《동무들이 배워온 지식이 어떤 지식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의 미래요. 장군님을 한생토록 받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정신적양식이란 말이요. 그레 가슴속에 목숨바쳐 지킬만한 진리 하나 변변하게 없다면 과연 동무들이 전선에 나간들 얼마나 잘 싸우겠소?》

교원의 목소리는 서리찬 기운을 품고 떨려왔다. 밖에서는 비줄기가 창유리를 세차게 두들겨대고 있었다. 잠시후 교원은 단호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전선에 나가더라도 시험은 반드시 치고 나가야 하오.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은 27일에 치겠소. 쉽게 넘겨버릴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게 좋겠소. 갑절 더 엄격히 받아낼테니까. 동무들, 명심하시오. 보통이나 락제를 하면 절대로 전선으로 나갈수 없다는걸 말이요. 그런 사람은 전선에 나갈 자격이 없소. 자격이!》

심청하선생은 이런 말을 남기고 휙하니 나가버렸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스승이 열고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뿐이였다. 한참후에야 그들은 무언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흩어져버리고말았다.

《현대소설사》졸업시험은 어김없이 27일에 진행되였다. 모든것이 이전과 다름없었다. 오전에는 필답시험을 치고 오후에는 구답시험을 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시험규율이 보다 엄격해진것이였다. 하지만 교원에게서 줄경을 치른탓인지 거의 모든 동무들이 시험에서 최우등의 점수를 받았다. 다만 4점을 받은 사람은 학급에서 유독 박문수 혼자뿐이였다. ...

한성규교수는 생각에서 깨어나 강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편지를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심각한 표정들이 어려있었다. 또다시 교수의 귀전에 녀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웬일인지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꼭 40여년전 그 나날에 올리던 문수의 목소리로만 들려오는것이였다. 교수는 다시금 눈을 감았다.

《졸업시험이 있는 이튿날 아침 학급에서는 전

선탄원결기모임을 가졌었지. 뿔어오르는 투지, 결의의 불꽃, 용솟음치는 피의 설레임,··· 불길같은 숨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파동치던 그날의 강의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벅차오르네.

자네는 맨 선참 연단으로 뛰어나갔지. 두눈에 선 마치 불이 펄펄 타는것 같았네.

<동무들, 나와 같은 노동자의 아들이 배움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행복을 원썬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그림고 정다운 고향산천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우리 공화국의 통성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나는 펜을 총으로 바꿔치고 교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격멸소탕하는 전선으로 달려나갈것을 열렬히 탄원합니다!>

톡톡 뛸뛸는 피방울의 피력인듯 불을 뿜는 자네의 토론은 삽시에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열풍마냥 번져갔네. 동무들은 뒤질세라 달려나와 토론에 참가하였지. 누군가는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종합대학 학생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토론하였고 또 누군가는 전화에 그슬린 군복을 입고 승리하는 날 뿔뿔한 모습으로 강의실에 다시 앉겠노라고 열변을 토하였네. 그런가 하면 금과처럼 북받치는 의분을 즉흥시에 담아 노래하는 친구도 있었지.

그들의 토론은 나의 가슴을 달구고 피를 끓여주었네. 하지만 나는 선뜻 일어설수가 없었네.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앓았거든. 결국 나는 맨 마지막에야 연단으로 나갔네. 온몸이 땡땡 소리가 나도록 긴장이 되더구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나는 한참만에야 더듬더듬 입을 열었네.

<동무들, 저는 뿔뿔치 못한 심정을 안고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저는 최우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더군. (저 친구 선탄원모임을 시험총화로 착각한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그들의 얼굴마다에 떠돌았네. 그러나 나는 이왕 말을 뽕김이라 하고싶던 말을 내쳐 터놓았네. 지금 돌이켜보건대도 그때 내가 전선에 나가 잘 싸우겠다는 결의보다 돌아와서는 꼭 최우등생이 되겠다는 결의를 더 많이 다진것 같아. 나중에는 어느 성미 급한 친구가 툭 내쫓더구만.

<동문 전선에 나가자는 회의인데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구만. 그런 결의는 후날 다져도 늦지 않아.>

그제서야 나는 회의분위기를 잡쳐놓은것 같아 정신을 번쩍 차렸네. 나는 헛기침을 하면서 갑자르다가 용기를 내서 마지막 말을 뱉었지.

<다시한번 굳게 결의다집니다. 전선에 나가서 용감히 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꼭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순간 엄숙하던 회의장에 웃음소리 터져오르더구만. 하하하···》

청년 불덩이같은 친구들이었다. 벅차오르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저저마다 탄원서에 뜨겁게 타오르는 조국보위의 열망을 적어나가던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성규교수의 눈앞에는 탄원모임이 있던 그날밤의 광경이 영화화면처럼 선히 비쳐왔다.

···그밤은 기숙사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날이 밝으면 대학생들은 전선으로 떠나야 하였다. 쉬기에는 너무도 흥분되어있어 그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난날의 잘못을 두고 용서를 비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슴속깊이 묻어두었던 진정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청춘들도 있었다. 떠들썩한 말소리며 속삭임소리, 호젓한 웃음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은은한 밤공중으로 퍼져가고있었다.

성규와 그의 동무들도 기숙사 뒤뜰의 잔디밭위에 누워 한밤을 지새웠다. 그룹같은 은하수가 찬란히 흐르던 그밤, 검푸른 허공에서 신비롭게 반짝이는 못별들을 꿈같이 올려다보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였던가. 그밤 두 눈을 습벽이며 옥필무가 하던 말이 올라온다.

《···내가 대학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이 경사가 난것처럼 흥성거렸지. 글썽 평범한 농사군의 자식이 대학생이 되었다니 세상에 그런 희한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나. 마을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문이 터지도록 우리 집에 찾아들 왔네. 누군가는 책보를 들고 찾아오고 누군가는 정성껏 지은 새옷을 들고 찾아왔었네. 대학으로 떠나는 날 동구밖까지 따라나와 부디 공부를 잘하라고 당부하던 그들앞에서 난 뺨을 타고 흐르는 후더운 눈물을 감출수가 없었네.···》

이렇게 말하는 필무의 눈가에서는 파르스름한 별빛을 머금고 물기가 떨고있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갖가지 추억과 상념이 그들의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서 샘물처럼 피어올라 온몸을 휩싸고있었던것이다. 어찌 필무 혼자뿐이라. 이 땅에서 해방의 5년을 보낸 청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뜨거운 사연이 간직되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입김처럼 후끈한 대기속으로 여름밤의 숨결인 양 좌-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나무가지들이 바람결에 휘청거린다. 싱그러운 풀냄새를 싣고 훈훈한 기쁨이 가슴가득히 번져왔다. 마침내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격정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야. 정말 우리 세상이 좋긴 좋아. 정다운 이 교정길을 오가며 우리가 보낸 3년간이 막 꿈처럼 생각되누만. 웃음도 많았고 노래도 많았지. 문수, 생각나나. 언젠가 영화구경을 하고 밤늦게 기숙사 울타리를 넘어오다가 사감아바이에게 들켜 줄

경을 치르던 일이말이야. 하하하...》

가벼운 웃음속에 모두의 눈길이 문수에게로 쏠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늘쌍 웃음이 빙글거리던 그의 얼굴이 여느때없이 흐려있는것이 아닌가. 성규가 영문을 몰라 그의 팔을 건드렸다.

《아니, 자네 왜 그러나?》

문수는 대답대신 황소숨만 몰아신다. 그러다가 어둠한 투로 독백이라도 하듯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난 이번에도 최우등을 못했네...》

동무들은 아연해지고말았다. 누구도 그 시각 시험점수를 두고 신경쓰는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하긴 레사로운 학창시절이라면 틀림없이 시험점수가 그들의 가장 큰 화제거리로 되었을것이다. 그렇지만 삶과 죽음이 판가름되는 엄혹한 전쟁의 이 문어구에서야 과연 그것이 무슨 큰 의의가 있단말인가. 그들에게는 불과 이틀전에 친 졸업시험이 먼 과거의 일처럼 여겨졌다. 성규는 허구프게 웃으며 너스레를 부렸다.

《원 이런 친구라구야. 혹시 심선생님이 진짜 자넌 전선에 내보내지 않을가봐 겁이라도 난게 아닌가?》

그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동무들도 문수의 심정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다음순간 문수가 손을 뻗 내젓는것이였다.

《그만두라구!》

동무들은 모두 어안이 병병해졌다. 까닭모를 마음의 번열이 문수의 얼굴에 괴롭게 떠돌고있었다. 한동안 고개를 짓속인채 거친 숨을 내뿜던 그는 얼마후에야 뜨직뜨직 말을 떼는것이였다.

《자네들도 알다싶이 난 마지막 구답시험에서 대답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였네. 선생님은 엄한 눈길로 나를 지켜보시더구만. 금시 불이라도 일듯 뜨겁게 찍어보시는 그 눈길앞에서 나는 감히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네.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말씀도 없이 천천히 성적기록부를 펼쳐드시는것이였네. 그리고는 내 이름옆에다 <4>라는 점수를 매기시는게 아니겠나. 순간 나는 쥐구멍이라도 숨어들고싶은 심정이였네. 아마 여느때 같으면 그래도 보통은 면했다고 자기위안을 하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시각에는 수치와 자책감이 사정없이 온몸을 후려갈기는걸 견딜수 없더라말일세. 선생님은 수수떡같이 달아올라 어쩔바를 몰라하는 내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구만. 그러다가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네.

<난 동무를 민소.>...》

문수의 목소리는 그 어떤 덩어리에 킁 막혀 끊어졌다. 잠시후 어둠속에서 애써 흥분을 묵새기는 그의 말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왜 그런지 선생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귀뿌리에서 떠나지 않는구만. 솔직한 말로 며칠전만 해

도 내 심정은 이렇지 않았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할지... 꼭 시험장에 들어서는 심정일세.》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문수의 말은 모두의 가슴마다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켰던것이다. 정녕 이 전쟁이야말로 그들 매 개인이 조국앞에서 치러야 하는 엄숙한 시험이 아니겠는가. 그제서야 그들은 탄원모임에서 시험점수를 놓고 그리도 모대기던 문수의 마음이 이해되는것이였다. 무거운 사명감이 바위마냥 어깨우에 실리어왔다. 대학생들은 새삼스러워지는 마음을 절감하며 머리로 흐르는 별무리를 묵묵히 쳐다보았다.

별, 별, 온통 별천지이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에서는 밝고 푸른 별들이 영원을 노래하며 아득히 반짝이고있었다. 어디선가 눈부신 류성이 나타나 활갈은 궤도를 그리며 대성산쪽으로 사라진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필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조용히 속삭이는것이였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순간순간을 조국에 바치는 땀땀한 답이 되도록 빛나게 살자구.》

그러자 문수도 걱정을 감추지 못하며 덧붙인다.

《그래, 우리 언제나 저 별들처럼 빛나게 살자구.》

대학생들은 어깨를 그러안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절절 소리내어 웃으며 은하수 웅장하게 흐르는 조국의 높은 밤하늘로 기운차게 손들을 흔들었다. 아, 그밤에 울려퍼지던 청춘들의 웃음소리여...

한성규교수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순간 서늘로운 대기가 파도마냥 밀려든다. 교수는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려는듯 가을의 들크무레한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창밖에서는 키높이 솟아오른 정원수들이 바람에 설레이고있었다. 무성하게 뻗은 억만가지들을 펼쳐들고 좌-좌- 원무를 추는듯한 나무들의 설레임, 혹 그것은 무더운 그 여름밤에 우등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그네들의 심혼의 속삭임은 아닌지...

한참만에야 교수는 강의실에 흐르는 부자연스러운 정적을 깨달았다. 돌아보니 학생들모두가 그를 주시하고있는것이였다. 아마 교수의 흥분된 거동이 그들의 눈길을 끈 모양이다. 한교수는 어쭙게 웃으며 제자들에게 랑해를 구했다.

《이거 안됐소. 순영동무, 어서 마저 읽소.》

너학생은 다시금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창과, 조국을 위해 한몸 바칠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우리가 전선으로 달려나온지도 벌써 1년이 되어오네. 1년, 비록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도 나는 웅근 하나의 대학을 나온것 같은 심정이네. 그 나날 우리가 넘어온 피의 강, 시련의 언덕은 얼마였던가. 어려울 때면 늘쌍 나는 학우들의

모습을 그려보곤하였네. 고집이 코끼리발통같은 자네며 주명이, 경림이, 명호 그리고 태섭이... 활기에 넘치던 그들의 밝은 얼굴이, 희망에 불타던 그들의 씩씩한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

참, 금파는 자네와 한부대에서 싸운다면, 그 친구가 무척 보고싶구만. 언젠가 전선신문에 실린 그 친구의 시를 읽었네. 인사를 꼭 전해주게...》

명치끝이 저려왔다. 문수는 필무가 이미 전사하였다는것을 알리 없었지. 교수의 눈앞에는 옥필무의 최후가 가슴아프게 떠올랐다.

그것은 홍파의 편지를 받기 한달전 전선중부의 어느 나지막한 고지에서였다. 그날 필무가 속한 부대는 일곱차례에 걸치는 적들의 악착한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증원임무를 받은 성규가 소대를 이끌고 고지에 당도하였을 때 필무는 중상을 입고 전호가 바위곁에 쓰러져있었다. 가슴에서 흐르는 더운 피가 파편에 으깨여진 바위돌을 흥건히 적시고있었다. 성규를 알아보는 순간, 필무의 눈언저리에 피어오르던 미소, 그 선명한 미소를 성규는 일생토록 잊을수가 없었다. 필무는 마지막 숨을 모아 성규에게 당부하였다.

《전쟁이 끝나면 학우들과 함께 꼭 내 고향 열두삼천리벌에 가보라구. 진짜 금파가 제일이야...》

옥필무는 이렇게 갔다. 금파는 이렇게 조용히 조국의 이름없는 야산기슭에 묻히었다. 친구의 선혈이 스배인 그 바위우에도 지금은 두텁게 이끼가 덮여있으리라.

교수는 두눈구석에 핑그르르 눈물이 도는것을 느꼈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물기를 머금은듯한 녀학생의 음성이라도 들려왔다.

《얼마나 많은 동무들이 우리곁을 떠나갔나.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대학을 그려보며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던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수가 없네. 창과, 놀라지 말게. 우리가 그토록 꿈결에도 보고싶어하던 정다운 모교, 사랑하는 대학의 모습을 나는 작년가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길에서 보았네.

아마 그때가 10월중순이었을거야. 당시 전투임무수행중이던 우리 소대는 본부대보다 뒤떨어져 평양을 지나게 되었네. 우리가 대동교앞에 이른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이었지. 밀지 않은곳에서 쿵쿵 포성이 들려오더군. 사랑하는 도시는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듯 어둠속에 누워 부르르 떠는듯싶었네. 나의 심장도 참을길 없는 분노를 안고 푸들푸들 떨고있었네. 그런데 불쑥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것이었네.

<소대장동지, **김일성** 종합대학은 어느쪽입니까?>

나는 금시 전류에라도 감전된것처럼 온몸을 움

츠하었네. 돌아보니 동국대학교에 다니다가 입대한 리창길이라는 대원이 아니겠나. 그때 우리 소대의 대부분은 의용군출신 병사들이었지. 소대원들은 나에게 종합대학에 대하여 부러움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곤하였지.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대학에 깃든 아버지장군님의 은정에 대해서, 보람찼던 학창시절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 해주었네. 평양에 들어서는 첫 순간 그들이 종합대학부터 찾은것도 아마 그때문일걸세.

나는 그들에게 대학이 있는곳을 가리켜보었네. 종합대학이 있는 룡남산쪽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더구만. 그런데도 나는 눈곱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네. 얼마나 와보고싶던 대학인가. 전선에서 모진 시련이 가로막을 때에도 우리는 모교로 돌아갈 그날을 그려보며 힘을 가다듬군하지 않았나. 하건만 나는 선듯 대학으로 달려갈수가 없었네. 긴박한 전투임무가 어깨에 지워져있었거든. 속타는 가슴을 부여안고 굳은 침을 모아삼키는데 뜻밖에도 한 대원이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나.

<소대장동지, 이왕 예까지 온바엔 아예 종합대학청사를 보고 갑시다.>

그러자 약속이라든 한것처럼 소대원들모두가 대학을 보게 해달라고 나에게 간청하는것이었네. 참을수 없이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더군. 하지만 나는 단마디로 잘라버렸네.

<안되오. 우리에게엔 시간이 없소.>

사실 우리에게엔 시간이 촉박하였네. 어느때 갈으면 대원들도 인준 단념해버리고말았을걸세. 그런데 그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물러설념들을 하지 않더라말일세. 그들은 내 팔을 부여잡고 막무가내로 졸라대었네.

<소대장동지, 뛰어서라도 시간은 어김없이 보장할테니 종합대학청사를 한번 보고 갑시다.>

<소대장동지야 우리들보다 더 대학에 가고싶겠지요. 만일 불의의 정황이 생긴다면 우리모두 대학을 지켜 싸웁시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지켜 싸우는건 우리들의 더없는 영광입니다.>

라는듯한 소망이 그들의 얼굴마다에 세차게 굵이치고있었네. 정말 그때는 결심을 채택하기가 여간 바쁘지 않더구만. 마침내 나는 소대원들에게 지고말았네. 아니,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졌다고 하는게 더 솔직한 표현일걸세. 나는 흥분을 억누르며 대원들에게 명령하였네.

<동무들, 갑시다. 급보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네.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귀부리에서 휘파람소리가 나는것 같더구만.

<대학이 보인다!>

누군가가 소리치는바람에 나는 우뚝 굳어져버렸네. 푸릿한 새벽빛속에 신기루처럼 검푸르게 빛나는 본관청사의 자태가 나의 눈앞에 비쳐왔네. 폭격에 창유리는 다 떨어져나갔어도 벽체만은

그전 그대로 웅건하게 솟아있더군. 갑자기 시뿌연 안개라도 친듯 눈앞이 흐려왔네. 목이 짹 메여오더구만. 나는 몽클 솟구쳐오르는 걱정의 덩어리를 삼키며 못박힌듯 서있었네.

고요하였네. 모든것이 이슬에 젖어 신선하고 푸르싱싱하게 안겨왔네.

<저 청사가 몇층이나 됩니까? 한 30층은 되지 않습니까?>

결에 있던 대원이 나에게 속삭이는것이었네. 사실 나도 의아한 눈길로 보고있었네. 5층에 불과한 본관교사가 어찌면 그리도 까마득히 올라다 보이던지. 은은한 광채에 휩싸인채 푸르른 소나무숲으로 솟아있는 본관교사는 흡사 공중에 떠있는것처럼 보였네. 고담한 자태, 숙연한 기백, 대기속에 퍼져 감도는 향긋한 송진내...

부잇한 시야속에 학창시절의 나날들이 물결처럼 흘러가더구만 마지막 시험이며 전선탄원결기모임, 바다를 두고 론쟁을 벌리던 룡라도의 그 모래불이말일세. 그러면 나의 눈앞에 불현듯 눈부신 채광이 비쳐왔네. 그이의 영상이었네. 해빛처럼 밝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이었네. 잊지 못할 5.1절날 <민주청년행진곡>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시던 아버지장군님...

뜨거운것이 억누를수 없는 힘으로 목에 차오르며 숨이 막혔네. 나는 후들후들 떨려나는 몸을 다잡으며 힘찬 기운과 열정이 파도쳐나오는듯싶은 본관교사를 바라보았네.

(아, 정다운 교사여. 저 4층에 올라가면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친 강의실이 있을테지. 전쟁이 일어나던 날 후판에 써놓은 우리의 글발은 아직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을것이다. 우리의 글발을 누구도 지우지 못할것이다. 전승의 그날 우리 모두 후판앞에 모여 자기의 전투총화를 지은 다음에야 오로지 그 다음에야 글발은 지워질것이다!)

무엇인가 불을 타고 흘러내리더군. 그제서야 나는 자신이 울고있다는걸 깨달았네. 그때 내 손을 짹 부여잡는 사람이 있었네. 리창길이었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렇그렇하더구만.

<소대장동지, 전쟁이 끝나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하렵니다. 그때 저를 꼭 도와줘야 합니다.>

나는 머리만 끄덕였네. 목이 짹 잡겨 아무말도 할수 없었거든. 미여터질듯한 궁지가, 산갈은 자각이 나의 온몸에 그들먹이 차오르고있었네.

그렇네. 정녕 대학시절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을 변함없이 불태워 갈 삶의 목표를 세워주었네. 이 나라의 지성인들이 지녀야 할 열렬한 심장을 주었네...>

너학생의 목소리는 감동에 젖어 고요히 떨려왔

다. 흥분된 눈길들이 그를 주시하고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되었네. 10분후면 우리는 출발진지로 나가야 하네. 이번 전투는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걱정말게. 아무렴 이문수가 다시야 4점을 맞겠나.

심선생님에게는 전선에 나온 이후로 아직 한번도 편지를 못올렸네. 아마 몹시 노여워하신걸세. 기회가 생기면 자네가 내 심정을 잘 말씀드려주게. 이 못난 제자가 소설사시험에서는 비록 4점을 받았어도 조국이 부르는 성전에서는 기어이 5점최우등생이 되어 선생님앞에 땀땀이 나서겠다 고말일세.

창과, 우리 먼 후날 후대들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랑스럽게, 열렬하게 살자구. 가슴가득 차넘치는 그리움을 담아 자네를 뜨겁게 포옹하네.

자네의 위훈과 건강을 빌며 홍파로부터.

1951년 6월 20일》

편지는 끝났다. 무거운 정적이 강의실에 깃들었다. 한성규교수는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이윽고 갈린듯한 음성이 그의 입에서 힘들게 나왔다.

《후날 백송리에 와보니 홍파는 보이지 않더군. 그가 늘 가슴에 품고다니던 피묻은 학생증만이 대학에 와있었소...》

교수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눈굽을 훔쳤다. 학생들의 눈가에서도 이슬이 맺혀 흐르고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국의 대지를 강의실로 삼고 심장에 흐르는 붉은 피로 이 땅의 밝은 래일을 노래한 선배들의 모습이 가슴을 쳐왔다. 참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명언은 누구보다도 대학생들이 심장깊이 새겨넣어야 할 탐구의 지침, 삶의 좌우명이 아니겠는가.

얼마후 교수는 천천히 교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나직하나 엄숙한 어조로 학생들에게 말하느것이였다.

《대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자신들의 지식의 무게를 가늠해보기전에 조국을 위해, 진리를 위해 불태우는 심장의 무게를 먼저 가늠해볼줄 알아야 하오. 정녕 강의시간에 배운 단 한줄의 평범한 진리를 지켜 준엄한 시각이 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달 각오가 되어있는가? 나는 동무들모두가 시험장에 나설 때 스스로 량심에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라오.》

교수는 묻는듯한 눈길로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달아오른 눈들이 해빛에 불꽃처럼 반짝인다. 꼭 그날에 타오르던 학우들의 눈빛을 보는것만 같았다. 한성규교수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자, 그럼 졸업시험은 예정대로 래일 치겠소. 모두들 시험준비를 잘하시오.》